01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성경말씀: 요1:1-3

요한복음 강해 시작, 복음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생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증언을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 4개의 복음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공관복음이 아니다. 공관복음: 마태(유대인들 왕 메시아) 마가 누가(이방인들 구원자), 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함

요한복음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언과 가르침의 영적 교훈을 상술했다. 그분의 전체 생애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 강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기록자: 요한, 기록 시기: 주후 90년경, 바울 서신 기록 이후, 성전 파괴 유대인 유랑 후 총정리

기간: 영원 전 과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나타나심까지, 수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20:31). 이름: '요한복음'이라는 책명은 이것을 기록한 사도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를 뜻하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13:23; 20:2). 그는 주후 50년경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고 그 뒤 소아시아에 감독으로 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으며 밧모 섬에 유배되어 계시록을 기록하였다.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목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내용: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전 존재, 출생 후의 삶과 사역, 죽음, 부활 그리고 부활 후의 나타나심 등을 기록한다.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 죄로 인한 어린양이시고(1:29) 목마른 자를 위한 생수이시며(4:14) 배고픈 자를 위한 빵이시고(6:35)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시다(8:12). 또한 그분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는 문이시고(10:9) 길 잃은 자들을 위한 선한 목자이시며(10:11)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시고(14:6) 영적 성장을 위한 참 포도나무 이시다(15:1).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영적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다.

핵심 장: 1장(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그래서 1장을 잘 이해해야 하고 아마 5번 설교

얼마나 강해할까? 가장 심오한 말씀 가운데 하나, 적어도 40번은 해야 할 것이다.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읽으라고 하는 책이 요한복음과 로마서, 그만큼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함유

요한은 창조자 구원자를 바로 옆에서 3년 반 동안 본 사람(요21:24). 강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알아가기를 소망한다. 구원받으려면, 성화하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어스비, 매튜 핸리, Preaching the word, 럭크맨, 낙스, 파이퍼 등 참조

요한복음 서문(1-18)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려면 여기를 보아야 한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한 부분

'성육신하신 말씀에 대한 찬송', 보통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남

유대인들의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 그러나 요한복음이 보여 주는 예수님은 전 우주적인 창조자 하나님, 우주를 채우는 빛, 어두운 세상에 들어오신 빛, 구약의 은혜를 대체하는 신약의 은혜를 주시는 분

위대하신 그리스도(1-3), 1. 말씀은 스스로 존재하신다(1).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1). 여기의 처음은 창세기 1장 1절의 처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 영원

이것을 쪼개면 과거의 영원,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약 6,000년), 1000년 왕국, 미래의 영원

여기의 처음은 과거의 영원의 첫 부분, 시간 개념이 아님, 바로 그때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다.

I AM THAT I AM(출3:14). 스스로 있는 분, 시간 전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

2.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1).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이다. 성경의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 세 인격체(본질, 권능, 영광, 속성 상 동일하시다).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세 분 중 한 분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세 분이 영원토록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계신다.

요일5:7, 이 구절이 있는 성경이 바른 성경,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성경

3. 말씀이 하나님이셨다(1).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지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도마와 같은 고백이 나온다(요20:28; 요일 5:20). 요1:1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가장 간단하게 신학적인 요약을 준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계1:17).

4. 말씀은 영원한 창조자시다(3).

이 우주 공간의 창조자, 지구와 인간의 창조자(골1:16- 17; 히1:2-3: 계4:11).

별들 창조, 얼마나 많은가? 보통 크기의 은하 내의 별들 1000억 개, 우리가 아는 우주 공간 내에는 이런 은하계가 1억 개, 아인슈타인 아무리 큰 망원경을 써도 전체 우주 공간의 10억 분의 1만 관찰한다.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누가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런 대규모 공간만 생각하지 말라. 인간의 세포, 분자, 원자, 핵 등 미시적 공간도 보라.

그 안의 원자들, 셀 수도 없다. 천사들 셀 수도 없다.

그러니까 창조자라 함은 셀 수 없는 것들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 내는 분

그래야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않는가? 타종교의 예배 대상, 부처, 공자, 무함마드, 마리아 비교 거부

창조하지 않은 자는 신이라 불릴 수 없다(렘10:11-13). 해변의 모래까지만 물이 오게 하신다(렘5:22).

물질의 99.9999999%는 속이 비어 있다. 지구의 빈 곳을 제거하면 각설탕정도가 된다(2.5 세제곱센티).

베드로후서 3장의 10-13절의 의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 우리를 만든 분, 우리를 아신다. 창조 세상을 아신다.

고생하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구원하실 수 있다. 재림하신다.

자동차 엔진, 누군가가 설계함, 고장이 나면 엔진이 절대 못 고친다. 설계자 정확히 알고 고칠 수 있다.

헨리 포드, 그의 자동차 기사 찰스 스타인메츠, 엔진 설계

어느 날 자동차 조립 공정에 문제, 아무도 못 고친다. 그래서 스타인메츠를 부름, 몇 분 뚝딱거리더니 스위치를 켬, 공장이 돌아감, 며칠 뒤 수리비용 만 달러, 포드의 말 몇 분 뚝딱거리고 만 불 너무 비싸다. 그의 대답: 몇 분 뚝딱 소비 10달러, 어디를 만져야 하는지 아는 데 드는 비용 9,990달러

마찬가지 인간은 고장 난 상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원인: 죄, 교만 죄, 하나님 무시, 경시, 멸시, 인간은 절대 못 고친다. 우리를 창조하고 만든 분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고장 난 것을 고칠 수 있다. 그분에게는 쉬운 일이다. 다른 사람은 절대 못한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는가?

5. 왜 말씀이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말을 한다. 말을 하면 단어가 나온다(words). 이 단어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말씀이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된다.

복음서 기록의 목적(요20:30-31)

요한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개념 도입, 유대인 이방인 모두 말씀 즉 로고스에 대해 알고 있었다.

유대인(시33:6; 107:20; 147:15-18; 사55:10-11)

그리스인: 당시 유행하던 플라톤 사상 즉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려와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즉 로고스는 하나님과 물질세계의 중보자, 그래서 이런 개념의 말로 복음서 시작

그러나 요한의 로고스는 유대인과 그리스인의 로고스 개념을 철저하게 뒤엎음

유대인들: 로고스는 하나님의 인격화, 그리스인들: 로고스는 단순한 중재자

요한의 로고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실: 로고스는 참 하나님, 참 사람, 창조자, 그리고 구원자(요3;16; 14:9),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들어 있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었다.

히1:1-3, 대언자들, 표적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단어는 글자가 있어야 표기된다. 그래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다(계1:11).

결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이분을 아는가?

성육신, 솔로몬의 질문, 성막과 성전, 떠나기도 하심(위어스비 첫 부분)

ㅁ큰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참 빛, 이 빛에 반응하고 살아야 한다

성경말씀: 요1:4-9

요한복음 강해 1절, 3절, 지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에서 놓치면 안 되는 관전 포인트: 예수님의 위대하심

기독교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 체계, 그분이 우리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크기 혹은 확신은 그 대상이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있다. 예수님이 진정 위대하다고 생각되면 믿음이 부쩍 자란다. 삶이 바뀐다. 두려움이 생긴다.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대하게 보아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사람이 존재하는 으뜸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기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4-5)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4). 요한복음의 주제 혹은 주요 단어: 생명(44회)

약 6000년 전 우주 공간, 땅을 만드셨다. 성경에 따르면 생명은 지구 안에만 있다. 확실하다.

가장 확실한 과학: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온다. 그냥 생기지 않는다. 진화론은 가장 큰 거짓말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생명을 주는 분에 의해 부여가 된 것이다. 그 이후에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 같은 종에서 같은 종이 나온다.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메바, 박테리아, 새, 물고기, 호랑이, 나무, 채소, 원숭이, 사람 등 모든 생명

생명에는 잠정적(temporal) 생명=이 땅에(earthly) 속한 생명, 영구한 생명(everlasting)=하늘에 속한(eternal) 생명, 그런데 이 두 생명 모두 예수님이 주신다.

인간 생명에 필수적인 요소들: 빛, 공기, 물, 음식: 예수님은 생명의 빛(4),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생명의 숨, 생명수, 생명의 빵, 예수님에 의해 인간 생명이 유지된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5)

요한복음의 특징: 빛과 어둠의 대결, 하나님은 빛(요일1:5), 마귀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눅22:53)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출33:18, 영광을 보여 주소서. 반석의 틈, 그를 가리심,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 빛이 났다. 그 결과: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서 백성이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출34:29-35).

영광의 빛: 물리적인 빛, 이런 영광을 구약에서는 셰카이나 영광,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남

특별히 성막과 성전에 이런 영광의 빛이 존재함

우주 공간의 형성 창1:2-4,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함

빛의 특성: 어둠이 견디지 못한다. 우리는 늘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잘 모른다.

2차 세계대전 영국 시내 전체 정전, 성냥불 하나, 30킬로미터 상공에서도 보인다.

하나님의 권능: 우주는 무한대의 공간,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1년에 9조 4,600억 킬로미터(1광년), 멀리 있는 별들의 빛이 지구까지 도달할 쯤 별은 이미 죽고 없다. 그렇게 광대한 공간이 우주. 이런 물리적인 빛으로는 아무리 빨라도 우주 공간을 순식간에 채우지 못한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200억 년 되었다고 주장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온 우주가 빛으로 차게 되었다(창1;3). 완성된 우주

1. 빛이 들어가면 하는 일: 절대로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 아무리 어둡던 곳이라 해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견디지 못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무지, 미신, 노예의 나라, 주자학에 빠져서 사농공상 계급,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없던 시대, 이러던 시기에 조선의 수도 서울에는 가장 큰 건물: 왕궁 2층,

지금부터 액 90년 전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설계도 2주에 완성, 1929년 기공, 1931년 완성, 해저 터널 홀랜드 터널 1927년

도저히 위생 상태가 나빠서 사람이 살기 어려움,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인천에 복음을 들고 들어옴, 개화의 빛

물론 복음 선포, 그 외에 교육, 학교(이승만 등), 의료, 인권의 가치(3.1 운동) 등, 대한민국 건국 및 그 이후의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기관: 교회, 대한민국의 한법, 미국 헌법, 그 기초는 성경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빛이 마귀의 어둠을 물리치고 이루어낸 하나님의 산물이다. 아무도 부인 못함 기독교인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빛의 국가 유지해야 한다.

2. 빛은 영적 차원의 빛이기도 하다, 물리적 빛은 자연스럽게 어둠을 몰아낸다.

그런데 인간 내부의 어둠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다(5).

고후4:3-6

자연계와 달리 사람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다. 빛이 오면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오래 비추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결과 이들은 정죄를 받는다(요3:18-21).

자기 스스로 정죄를 자초하고 받는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딤전4:2).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조국이라는 사람을 통해 빛을 거부하고 양심에 화인을 맞는 것 목격함

예수님의 말씀: 한 사람의 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 부드럽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빛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다(9)

많은 사람들의 항변: 나는 그 빛을 받은 적이 없다. 성경의 증언, 아니다 모두 받는다(9).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롬1:18-20

해와 달과 별들 창조물,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 우리의 양심(2:14-15),

아마존 밀림에 사는 자들, 아프리카 식인종도 알 수 있다.

극악무도한 스탈린, 히틀러, 모택동, 김일성,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법칙: 이 빛에 반응하면 반드시 말씀 선포자를 보내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하는 일(롬1:21), 우상 숭배(22-23)

하나님의 심판(28), 버림받은 생각, 무지의 때, 사람들이 악한 죄를 지음, 죄의 악순환(32)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노아의 홍수 당시, 사람이 상상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창6:5)

수억의 사람들 간운데 8명만 빛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멸절됨

바로 이런 일이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천주교 암흑시대,

우리나라 신라, 고려,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1884년 복음 전파

지금은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 사람들이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극도로.

우리는 그 빛의 증인(6-8)

어둠이 판치는 세상, 빛을 수용하는 자가 많지 않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의 전령으로 한 사람이 나타남. 그는 침례자 요한(John the Baptist)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속성이 그에게서 드러남

침례자(Baptist), 침례 주는 자,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줌(눅3)

1.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7-14). 2.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15, 요1:8), 3. 예수님이 오신다: 성령 침례, 불 침례(16-17), 4. 그분을 드러낸다(요1:31), 5.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요3:30), 진리를 위해 죽고 말았다.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들어온 사람, 이렇게 하신 목적,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행1:8)

1. 하나님이 은혜로우심을 맛보아 안 사람, 2.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3. 회에 합당한 열매, 4.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4. 예수님이 오신다: 성령 침례, 불 침례(16-17), 5. 그분만을 드러낸다. 6.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우리는 참 빛을 보았는가? 그분을 영접했는가? 전하는가?

ㅁ3 요한복음: 기독교의 핵심_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성경말씀: 요1:10-14

요한복음 강해 시작, AD 90년경, 하나님이 총정리 해서 주신 편지, 가장 중요한 부분 1:1-18의 도입부, 심히 신학적이다. 고기와 같은 심오한 진리, 1. 예수님은 말씀, 2.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 3. 예수님은 세상의 빛(4), 4. 모든 사람을 비춘다(9). 변명할 수 없다(롬1). 그런데 문제 발생(5), 1. 왜 사람들이 그 빛에 반응하지 않는가? 2.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 3. 반응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것, 4. 그 빛이 하시는 일, 〈 〉

왜 사람들이 그 빛에 반응하지 않는가?(10-11)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10). 로마서 1장, 창조 세상, 양심, 사람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않음, 버림받은 생각에 빠짐, 아는 것의 중요성, 친밀하게 알아야 한다. 사랑한다. 인정한다.

심지어 그분의 친백성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음(11), 우리 아들딸이 우리를 몰라보면 어떨까?

예수님은 참 빛, 모든 빛은 참 빛에서 나오는 반사된 빛, 유대인들은 반사된 빛에 만족함: 모세, 율법, 예루살렘 성전과 희생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 목적: 이것들을 통해 참 빛을 보라고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훈육 교사9갈3:24-25)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 성경의 예표들을 성취하신 분임을 여러 차례 입증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다가 아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만나, 나는 하늘의 빵, 모세가 아니라 나다(요6:31-32, 48-50)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어도 이미 종교의 형식에 사로잡혀 진리의 빛을 배척함

많은 기적들, 완전한 삶, 수많은 진리, 내가 길 그러나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진리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내가 생명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임, 이유: 알지 못해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아는 데서 나온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요5:39)

소수의 사람들이 그 빛에 반응한다(12-13)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보통 영접한다. receive(serve),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1:21)

본래 이름은 전 인격체를 뜻함, 그분의 모든 것을 믿는다(인격, 사역, 권능, 영광 등)

그분을 믿는다와 같은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power)을 받는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아들의 특징: 아버지의 본성 소유(벧후1:3-4), 대단히 중요한 것, 아들과 아들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14), 독생자(18), only begotten Son

get, got, gotten, I got a cold. 관계를 맺다. beget: 특별 관계를 맺다. 이것을 낳다로 번역함

마1;1,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begot), 특별 관계를 맺는다. 실제로 낳은 것은 아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은 아버지가 유일하게 특별 관계를 맺은 아들

낳은 게 아니다. 어떤 분들은 2000년 전쯤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음, 아버지만 있고 아들은 없던 때가 있나? 아니다. 요1:1 아버지, 아들, 성령님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많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양자로 입양된 아들들

예수님은 독생자, 즉 아버지와 특별 관계를 맺는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요3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

이것은 육신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이다(13).

혈통, 육신의 뜻, 사람의 뜻, No!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특권(요일3:1-2)

예수님은 누구신가(14): 성육신

14절을 읽는다. 읽고 설명,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신다. 몸을 입고 오신다.

우리는 누구인가: 거역하는 자들, 죄인들, 그 당시 플라톤 영지주의자들 이해 불가능

성육신의 신비. 기독교의 핵심: 사람이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대신 직접 하신다.

다른 종교들: 사람이 노력하는 것, 기독교: 사람의 구원,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 하나님이 해 주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쉽기도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다. 그래서 알아야 한다.
히1:1-2, 다양한 시대, 여러 방법으로 대언자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훨씬 더 좋다.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다(사람으로 본다).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 유일한 아들 하나님
1. 그분에게는 영광이 있다. 하나님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영광이다.
2. 영광의 계시는 은혜와 진리: 예수님 안에 충만히 있다.
3.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사랑, 친절(롬5:2)
4. 진리: 불변의 사실, 옳은 것, 공의
5. 하나님이 진리대로만 우리를 다루시면 우리는 곧바로 다 죽는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다루신다.
6.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부활 통해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 한 번에 충족, 더는 죄로 인한 희생물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충만한 은혜 즉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주신다.
7. 진리가 없는 은혜 거짓, 은례가 없는 진리, 사람 정죄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말씀, 참 빛, 은혜와 진리,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무엇을 믿는가? 십자가 희생, 부활, 나도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났다.
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한다.

ㅁㅓ 요한복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 침례자 요한

성경말씀: 요1:15-28

요한복음 강해 시작, 오늘 네 번째 강해, 1장 1-18절 도입부가 가장 중요하다. 요한의 총정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고기와 같이 단단한 음식, 1. 예수님은 말씀, 2.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 3. 예수님은 세상의 빛(4), 4. 모든 사람을 비춘다(9). 5. 대다수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 6. 반응하는 소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남,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 8.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9.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침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 예수님 사역에서 꼭 있어야 하는 중인(7), 성경에 약 90회 언급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소개,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백성 설득(31)

예수님 표현: 구약 4000년 동안, 여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마11:11), 〈 〉

침례자 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눅1:5-6),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아이들이 될 확률이 크다. 나 이야기, 내게는 세 딸, 세 사위, 모두가 착한 아이들, 그러나 세상 아이들처럼 다 방황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감사

침례자 요한에 대한 예언(눅1:13-17), 하나님의 축복(80),

눅3:1-2, 유명한 사람들 소개, 그러나 주인공은 침례자 요한, 나머지는 들러리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침례 선포(눅3:3), 회개에 합당한 열매(8)

어찌나 경건했던지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지 앎(15), 그러나 헤롯 안디바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목이 베어 죽음, 마16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침례자 요한(마16:14), 헤롯의 말: 침례자 요한이 부활하였다(마6:14).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침례자 요한으로 인해 유대 땅에 소동이 발생함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인들 문의하러 사람을 보냄(요1:19)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20), 엘리야냐(21), 그 대언자냐(신18:15, 18)

너는 누구냐?(22),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23)

왜 침례를 주느냐(25)

나는 물 침례, 그러나 그분은 불 침례, 성령 침례(눅3:16-17)

불 침례: 지옥 불, 성령 침례: 알곡,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분, 이분을 믿는가?

요한의 증언(15-17)

1. 그분은 영원하시다(15), 원래 6개월 먼저 출생함(눅1:36), 나보다 먼저 계신다. 침례자 요한의 수태 전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8:58)
2.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16), grace for grace, 은혜 위에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고 충만한 은혜, fullness, 더 채우지 못함

   구약 시대에도 은혜, 그러나 신약 시대의 은혜는 비교가 안 된다. 대체한다.

   짐승 어린양, 이제는 실체 어린양이 와서 그것을 대체한다.

   구약에도 모세의 율법 진리,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진리 자체
3. 신약과 구약의 차이(17), 참 빛, 반사된 빛

   출35:29-35, 모세, 하나님과 대화, 얼굴이 빛이 남, 하나님 때문에, 모세는 빛을 받은 사람

   빛의 근원이 아니다.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의 율법 자랑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면 구원, 수백 가지 규정을 만듦

   구약 시대 대표자 모세: 율법,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갈3:24-25).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기에 안주함,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18)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낸다.

하나님은 원래 볼 수 없는 분이다(딤전1:17). 자연계에 드러난 그분의 모습, 역사의 섭리 속에 드러난 그분의 주권, 그러나 그분을 직접 볼 수는 없다. 죽는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골1:15), 판박이, 그분 지체의 정확한 형상(히1:3)

3년 반 공생애, 요14,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도마의 말: 예수님의 말씀 14:6, 빌립의 말, 예수님의 말(9),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요10:30).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18절 독생자(only begotten Son), 그러나 다른 성경, 여호와의 증인 성경 등은 '독생하신 하나님'(only begotten God), 이렇게 되면 아버지보다 못한 신, 미가엘 천사장

요한복음이 말하려는 핵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9회(1:34,49; 3:18; 5:25; 10:36; 11:4,27; 19:7; 20:31), 아들(the Son) 19회 나옴: 아버지와 유일하게 독특한 관계를 맺는 독생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요약

1.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자 한 것: 말씀, 하나님, 창조자, 참 빛, 은혜와 진리 충만, 그 은혜의 핵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희생이 되심, 그리고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심
2. 그 결과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동일하게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함
3. 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ᄆᆞᆨ 요한복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성경말씀: 요1:29-34

요한복음 강해 시작, 오늘 다섯 번째 강해, 1장 1-18절 도입부, 단단한 고기, 침례자 요한의 증언: 회개의 침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20).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23),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신약을 여신 분,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16), 구약은 모세와 율법(17), 신약은 예수님과 은혜와 진리, 아들은 아버지를 밝히 드러낸다(18), 그의 또 다른 증언(32-34) 〈 〉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29)

구약 성경은 예표(그림자), 신약은 실체, 기독교의 목표: 죄들의 용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 문제 해결, 사람 편에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죄를 미워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분 앞에 서려면 죄가 없어야 한다. 사람은 죄를 짓는다. 어떻게 죄를 없앨 수 있는가? 때처럼...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 죄 없는 자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서 심판을 받으면 된다. 대신 속죄

대신 속죄의 사례

1. 아담과 이브의 죄, 에덴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힘(창3:21), 처음으로 대신 속죄, 시청각 교육
2.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자기 뜻대로 선한 행위로 나오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자고 나와야 한다. 아벨은 부모의 교육을 받고 믿음으로 대신 속죄 어린양의 희생을 가지고 나옴(창4:4)
3. 아브라함 이삭을 바침: 그의 믿음을 보시고 숫양을 미리 예비하심(창22:13), 대신 속죄
5. 출애굽 사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어린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의 기둥과 인방에 뿌려라. 그 피를 보면 내가 그 집을 넘어간다(출12:21-23). 대신 속죄
5. 그 이후 레위기를 통해 짐승의 희생 예물 제도: (*) 그림, 죄를 지은 사람, 어린양이든 소든 짐승을 끌고 간다. 제단 옆에서 제사장이 칼을 가지고 기다림, 안수함, 칼을 넘겨주면 본인이 죽임, 죽은 다음에 조각내어 불에 던짐, 지옥 불, 이런 경험을 통해 죄를 덮어 줌, 죄가 제거되지 않음, 염소와 황소의 피로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히10:4). 이 일이 구약 시대 4000년 동안, 1500년 동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행위는 믿음의 표시
6. 영원한 해결책 필요: 반복을 끝내야 함, 짐승, 사람, 천사 안 됨.
7. 갈4:4,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여자의 씨로 보냄,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에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심(고후5:21), 완전한 희생물로서 하나님의 심판 담당,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음, 단 한 번에 영원히 대신 속죄를 이룸
8.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해결책을 믿음으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

기독교는 피의 종교

기독교는 피의 종교, 죄는 붉다(사1:18). 그래서 피로 덮어 하얗게 만들어야 한다.

이사야서 53장(6-7, 10-11)

신약 성경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묘사(1:29, 36), 계5:5-6, 13, 9-14, 13:8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29)

1. 어린양은 하나님의 어린양,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 다른 방법 없음
   어린양,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하는 어린양,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 없다(히9:22).
2. 세상 죄를 제거한다. 세상: 온 세상 모든 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사람, 제한 속죄가 아니다(요일2:2).
3. 죄: 죄와 죄들, 단수 죄: 근본 뿌리, 복수 죄들: 죄의 열매들, 단수 죄: 부리와 열매 모두
4. 제거한다. 구약은 덮는 것,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들 제거하는 것 불가능, 어린양의 피는 죄들 제거
5. 결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셔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단번 속죄 희생물이 되어 영원한 사면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양,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불필요 단번 속죄(히10:11-14)

여기까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어린양을 보라!

그 어린양을 바라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가? 어린양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스펄전 이야기

영국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1834-1892),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목사, 그러나 청소년 시절에 구원을 받지 못해 엄청난 고민, - 복음을 듣기 전의 고통, "젊은 시절에 내가 겪었던 심적 고민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나는 이러한 고민으로 몇 년을 헤맸다. 율법의 고통을 직접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있다면 나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나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약속은 성경의 무서운 경고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복이었고 죄인인 내게는 전혀 관계없는 사실임을 확인했던 것이다. 내가 느끼는 고통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주었고, 영생과 영멸을 깨닫게 했고, 내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내게 복음을 말해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소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국가에서 살았지만 비록 어린아이라도 깨달을 수 있고 누구든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복음의 단순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내가 살던 도시의 곳곳에 있는 교회를 다 찾아가 보았다.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파했다. 또 다른 분은 늘 율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실제적인 내용의 설교자였다. 마치 임전태세인 군인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는 사령관 같았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절름발이를 모아놓고 작전 명령을 하달하는 것으로 들렸다.

나는 진정으로 복음 그대로를 전하는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 드디어 복음을 듣다, 1850년 1월 눈이 오는 일요일 아침. 15살 나이의 나는 눈 때문에 늘 가던 교회가 아닌 가까이 있는 교회로 가고 있었다. 골목길을 지나서 조그만 감리교회의 예배당으로 가고 있었다. 거기에는 열다섯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찬송을 들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듣는 사람의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 오지 않으셨다. 아마도 눈 때문에 길이 막혔던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매우 말라 보이는 한 남자가 설교를 하러 강단 위로 올라갔는데, 그는 구두 수선공이거나 재단사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 같았다. 그는 자신이 정한 구절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그것 이외에는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설교의 말씀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였다 —이사야서 45장 22절

그는 단어의 발음조차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구절 속에 나를 위한 한 줄기 희망이 있었다. 그는 말하였다. “보는 것을 배우려고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리석어도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연습을 하려고 1000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어라고 말합니까?”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 말씀을 힘주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는 마치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나에게 눈을 고정시키며 말했다. "젊은이여 당신은 매우 비참해 보이는군요." 나는 실제로 그랬다. 그는 계속 말씀했다. "당신은 앞으로도 항상 비참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구절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여전히 비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에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 교회에 들어갔던 10시 30분과 12시 30분 사이에 나에게는 분명히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단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는 절망에서 일어났다. 너무도 기쁜 마음이 들어 나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 "무언가 위대한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이 집안의 장자가 구원자를 발견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모두 들었을 때 그 날 우리 가정은 온통 기쁨이 충만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았는가?

요한의 증언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령님의 증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31-33)

그래서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해 침례(31).

나는 물 침례

그분은 성령 침례(33)

우리는 성령님께로 담겨진 적이 있는가?

요약

1.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자 한 것: 말씀, 하나님, 창조자, 참 빛, 은혜와 진리 충만, 그 은혜의 핵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희생이 되심, 그리고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심
2. 그 결과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동일하게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함
3. 하나님의 해결책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4. 이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이것이 개인과 교회의 목표
5. 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ㅁㅂ 요한복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성경말씀: 요1:35-51

요한복음 강해 오늘 여섯 번째 강해, 1장이 가장 중요하다. AD 90년경에 성경을 총정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29), 그분을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을 끝내고 그 다음 날도 요한은 같은 것 증언(36), 아마도 그의 사역 내내 이것 선포

이제 침례자 요한의 사명이 끝나는 시점, 요3:30이 이루어지는 시점, 나는 물 침례, 이스라엘에게 그분 증언, 그런데 이제 성령 침례를 주는 분이 오셨다(33). 공생애 사역 시작,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은 그분을 메시아(41)라고 함, 이스라엘의 왕(49), 나는 사람의 아들(51)

이런 모든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면 요한복음 이해에 큰 도움, 〈 〉

처음 두 제자(35-42)

1. 눅3장의 요한의 회개의 침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됨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 증언(35), 두 제자는 누구인가?

   1. 한 사람은 안드레(40), 2. 다른 사람 이름 없음, 그러나 이 책의 저자 요한

   안드레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됨, 침례자 요한의 증언 실천(36)

   그 두 사람이 그분을 따름, 아마도 아침 10시경, 예수님(38), 어디에 거하시냐?, 찾아가서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랍비여, 선생님, 율법에 능통한 사람, 지도자, 주님의 말씀(39), 저녁때에 가서 그분과 함께 머뭄.

2.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안드레의 변화(40-42)

   자기 형제를 찾아내서 그분을 소개함(40), 그분은 메시아이다(41)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침례자 요한의 외침, 메시아가 온다. 바로 그분(사9:6-7)

   그리고 베드로를 주님께 안내함, 주님의 말씀: 너는 게바라 불리리라. 이름을 바꾸는 일은 사역을 부여하는 것,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통해 굳건한 반석으로 변함

   안드레의 설교 없다. 그런데 안드레는 꼭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온다: 1장 자기 형제 베드로, 6장에 가서 보면 오병이어 기적, 그것을 가진 소년, 12장의 그리스 사람들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은 야보고의 형제, 자기 형제를 데려옴, 총4명이 됨

   우리는 큰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된다. 우리 교회나 내가 아니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미디어 선교 사역, 어디서든 듣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다음 두 제자(43-51)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남, 나를 따르라(43), 빌립: 벳새다 출신(44)

빌립이 곧바로 한 일,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 예수님 소개(45),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분

나다나엘의 반응(46), 빌립 와서 보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47), 그에 대한 칭찬(47), 간사함이 없다. 속임수, 위선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 야곱은 얍복 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간사함의 대가(아버지, 형, 삼촌, 아내들을 속임), 그러나 창32장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 간사함을 모두 버리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됨, 이것 기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심(32:28), 전체 맥락이 야곱 이야기

나다나엘의 반응(48), 주님의 말씀(48), 이 말씀은 참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분명한 것은 구약 성도인 나다나엘이 이 답답한 시절에 메시아를 고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그 당시 신실한 구약 성도들 메시아 고대(눅2:25, 37-38, 24:18-21)

그래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침례자 요한의 침례 받음,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알고 계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 놀라웠다. 그의 반응(49), 엄청남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특성: 간사함이 없다.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 단순하다.

사도 바울의 표현: 깨끗한 양심, 투명한 양심, 순수한 양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성: 야곱처럼 살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사함을 버리고 투명한 양심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요1;12-13).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마18:3). 회심하여 어린아이들처럼 되어야 한다.
바로 이때에 이 사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큰 약속을 주신다(50).
그 약속은 51절, 그런데 이것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자들: 너에서 너희로 바뀜(51)
51절 말씀 낭독, 자 이것은 명백하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돌 베게를 하고
잠을 자다가 꾼 꿈, 위에서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47), 그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
나다나엘, 나라가 없이 곤고하게 살고 있다. 종교인들의 무관심, 소수의 메시아 대망자들, 소망이 없어
보인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야곱의 사건을 언급하며 야곱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창세기 28장: 약 2000년 전 사건,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 탈취,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죽게 되지 어머니가
자기 고향 밧단아람으로 보냄, 머리를 썼지만 남은 게 없음, 인생이 가장 곤고한 때, 사냥꾼 에서와
달리 그는 집에서 살던 사람, 도망하며 들에서 이슬 맞아가며 자는 것 어려움, 하루는 길을 가다가
저녁에 지쳐서 들에서 돌 베게를 하고 잠을 잠(10-11)
얼마나 지쳤으면 돌 베게를 하고 잠을 잤을까? 피폐하고 곤고하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오심(12), 사다리,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야곱아, 네가 지쳤냐? 이 어려울 때 혼자라고 생각하며 힘들게 지내냐? 그런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봐라. 거기의 천사들을 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야곱이 꾼 꿈 그것이다. 그것의 의미를 알려주신다(51).
예수님이 자신 소개, 내가 그 사다리, 어떻게 아느냐, 나는 사람의 아들(Son of man)이다.
복음서에 84회, 요한복음 12회, 사다리는 하늘과 땅 연결, 사람의 아들, 사람, 아들
2000년 전에 야곱에게 나타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그게 바로 나다.
"네가 치쳐 있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사다리를 보고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라. 그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힘을 내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성도: 간사함이 없는 자들,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
지금 가장 큰 문제: 1. 나라가 어렵다. 사회주의 공산화 일보 직전, 하나님의 섭리 악한 자들의 정체를
드러냄,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살려내고 있다. 힘들어도 이겨내야 한다. 천사들이 함께한다. 이번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다. 자유 민주주의 하나님 세력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귀 세력의 영적 싸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한다(히1:14).
2. 암 등 병으로 투쟁하는 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한다.
3. 재정, 직업, 취업, 무슨 문제든 빌4:6-7,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한다.
야곱의 반응(16),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시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나도 요즘 너무 힘이 들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한 일(18-19), 이름의 변화, 벧엘 하나님의 집,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 내 직장,
내 가정이 하나님의 집
여기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서 있고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빌리 그래함이 지은 〈천사들; 하나님의 비밀 에이전트,1986)의 이야기
남태평양에 호주 오른쪽에 뉴헤브리디스 열도, 제임스 쿡선장이 방문한 후 18세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화하였다. 뉴헤브리디스 열도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존 페이튼(John G. Paton,
1824~1907) 선교사는 천사들의 보호함을 받은 경험을 얘기하였다. 적대적인 원주민들(식인종,
나체족)은 한 밤중에 그의 선교 본부를 포위하고 불을 질러 저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존과 그의 부인은
공포로 휩싸인 그 밤 내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 그
공격자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들을 떠났고 이들은 놀랐다.
일 년 후 그 종족의 추장이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하였다. 선교사는 지난 일을 기억하고 추장에게 무엇
때문에 추장과 그의 부하들이 자신들의 집을 불살라 자신들을 죽이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 추장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밤에 당신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요?" 선교사는 대답하였다. "나와 내 아내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추장은 자기들이 창을 들고 빛나는 갑옷을 입은 수백 명의 키가 큰 장정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 본부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감히 공격을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했다. 그제야 페이튼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신 것을 깨달았다.

결론

1.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왕국을 가져오실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거부, 재림의 땡에 저 땅에 왕국을 세우실 분, 천년왕국
2. 우리 예수님은 만나 구원받으려면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 위선자 No!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사람의 아들
3.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심지어 천사들도 동원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07 요한복음: 가나의 혼인 잔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말씀: 요2:1-11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제자들을 부르심, 요한의 제자 중 두 명(1:35),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 빌립과 나다나엘, 제자의 조건: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47). 투명한 양심,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보호해 주신다(51). 사복음서에는 제자들 이야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그러나 그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 요2장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 1-12절, 〈 〉

가나의 혼인 잔치 기적

침례자 요한, 나사르 사람, 광야 생활, 은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다. 결혼식 같은 사회 모임 초대 수락, 반대자들, 죄인들과 함께 먹으러 다닌다고 비난(눅15:1-2), 보통 사람들의 삶 경험, 대소사 참석하셔서 기쁨을 주심, 사실 그날 결혼식에 주님을 초대한 신랑과 신부는 복이 있고 지혜롭다. 최고의 초청

여기의 기적은 처음 기적(11),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갈릴리, 사마리아 북쪽, 이방인들의 갈릴리,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 이집트 피신, 갈릴리의 나사렛 목수, 갈릴리 사람, 갈릴리 제자들

갈릴리 가나, 나사렛에서 11킬로미터 북쪽에 위치, 갈릴리 바다 서쪽 30킬로미터

배경: 유대인들의 결혼식(1): 당시 대다수 사람들 심히 어렵게 삶, 어쩌면 일생에서 가장 기쁜 날, 1주일 동안 연회, 이때만큼은 모든 수고 다 잊고 왕과 왕비가 된다. 바로 이때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의 제자들도 초대받음(2)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의 마리아, 요한복음에는 공생에 시작에 마리아 처음 등장

문제 발생(3), 포도즙이 떨어짐, 아마도 조그만 결혼식, 가난한 커플, 예수님의 부모도 가난함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 1주일 진행, 그래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함, 음식과 포도즙, 특히 포도즙이 부족하면 심지어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하였을까?(3) 구체적 이유는 모르지만 마리아는 눅1장, 이미 예수님의 출생시 천사의 말, 엘리사벳의 말, 그리고 눅2장, 12살 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등을 알고 있음

마리아는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음, 그냥 보고만 함

예수님의 대답: 다소 거칠게 보인다(4), 그러나 '여자여' 라고 부르는 것은 정중한 말(요19:26, 20:13)

"왜 내가 이 일에 관여하게 하십니까?"라는 말

또한 이제는 어머니의 감독 아래 있지 않음 보임, 아마도 요셉은 죽은 것으로 보임, 공생애 시작 표명, 눅2:40-52 사건, 나는 반드시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눅2:49).

중요한 말이 등장함, "내 때가 오지 않았다"(4). hour, 뜻: 나는 하나님의 일정표에 따라 내 임무를 수행한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말대로 하나하나 움직이고 계심을 본다(요7:30, 8:20, 12:23; 13:1; 17:1).

마리아의 말(5),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책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들의 뜻대로, 아들을 신뢰함, 마리아가 아니라 아들, 우리가 해야 할 말도 동일하다.

천주교의 교리: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냥 직접 나가면 된다.

여섯 개의 돌 항아리(6), 한 항아리 70리터, 예수님의 말씀(7-8)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기적

포도즙의 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10), 이것은 기적들 중의 처음 기적(11),

그 결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남(11), 요1:14, 독생하신 분의 영광, 마17:1-6 변화산에서의 영광

와인 포도즙 포도주(Wine)

팔레스타인 땅에는 포도나무가 많았으므로 자연히 포도즙이 여러 용도의 음료로 쓰였다(에1:7; 5:6; 단5:1-4; 요2:3). 가나안 땅에서 포도가 주산물이었으므로 포도즙은 음료 헌물로도 쓰였고(출29:40; 민15:4-10) 첫 열매에도 포함되었으며(신18:4) 유월절과 주의 만찬에도 쓰였다(마

26:27-29). 그래서 곡식과 기름과 함께 포도즙은 주식으로 이용되었다(시4:7; 호2:8; 욜2:19).

영어 성경에서 wine으로 번역된 말은 10여개의 히브리말과 2개의 그리스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히브리말 '야인'과 이에 해당하는 그리스말 '오이노스'는 모든 종류의 wine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다(느5:18).

히브리어, 그리스어, 영어에서 wine은 동형이의어(homograph)로 '포도즙 틀에서 갓 짜내어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과 '시간이 지나 발효된 포도주'의 의미를 다 포함하므로 용례별로 구분하여 번역하여야 하되 특별히 성경이 분명히 술을 금한다는 사실과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번역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런 인물이 성도에게 그것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술을 준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합당하지 않다(창14:18). 또한 주의 만찬 등에 쓰이는 wine도 마찬가지이다.

특별히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wine은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즉 '누룩이 들지 않은 순수 포도 주스'여야 한다. 포도주는 이미 누룩이 들어가서 포도즙이 발효된 것이므로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낼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무리들이 이런 이유로 오직 포도 주스만을 사용한다. 실로 성경은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음료가 '포도나무 열매'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마26:29; 막14:25; 눅22:18).

옛날에는 포도즙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 포도즙을 끓여 잼같이 만들었으며 필요할 때마다 이를 물에 풀어서 사용하곤 했다.

가나 혼인 잔치의 와인(요2:9-10)

포도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그 당시 풍습은 처음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고 술기운으로 인해 사람들의 감각이 무뎌지면 그때에 덜 좋은 싸구려 포도주를 낸다." "잔칫집 당연히 술"

그런데 가나 혼인 잔치의 와인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나중에 나온 와인을 맛본 사람들은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더 좋았다고 말한다. 이 말은 곧 그들이 이미 와인을 많이 마셨는데도 그들의 혀 감각이 무뎌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아이들도 많음

그러므로 그들이 처음에 마신 것은 단순히 포도즙이었다.

즉 처음에 그들이 먹은 것도 포도즙이었고 나중에 마신 것은 더 좋은 포도즙이었다.

하나님은 술을 미워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요지, 그러므로 사람들이 마시고 취하라고 예수님이 술을 만들어 줄 수 없다. 그것은 그분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

기적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것을 믿으며 사실 창조물이 살아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나님은 정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양식 혹은 법칙을 가지고 우주를 치리하신다. 이러한 양식은 너무도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종종 자연의 법칙이라 불린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특별한 방법으로 움직이시는데 이렇듯 변칙적인 운행 방식을 보통 기적이라고 부른다.

모세와 엘리야 시대와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에만 대다수 기적들이 나타난다. 인류 역사의 일부분

매일 기적을 바라야 하는가? 아니다. 특별히 성경 완성 이후, 표적, 기적들 사라짐, 믿음의 시대

기적을 부인하는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일5:14

기적이 나타나면 다 예수님의 일인가? 아니다(살후2:9-10).

그러나 이후에 계속해서 벌어지는 기적들은 그분의 신성 입증, 메시아 사역 입증

특별히 그분과 함께 다니기 시작하는 제자들에게는 큰 영향

요한복음의 기적들

요한복음 2:11, 기적, 그리스말 파워가 아니라 표적,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영적인 의미

가나 기적의: 교훈: 예수님이 사람의 삶의 필요를 충족해 주신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보다 깊은 내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려고 한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뒤 직접 설명하시곤 한다. 요5장,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마비병 환자 고침, 나는 안식일의 주이다. 6장 오병이어 5000명,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나 하나의 사건이 설교라고 보면 된다. 역사적 사건, 영해하면 안 된다. 동시에 영적 의미가 있다.

가나 혼인 잔치 기적의 영적인 의미

제자들에게 구약과 신약 비교 설명: 모세와 예수님

모세의 첫 번째 기적: 물을 피로 바꾸어 먹지 못하게 하는 것(출7:19), 심판, 저주

예수님의 기적, 물을 포도즙으로, 축복과 기쁨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설명, 요1:16-17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3)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포도즙 기쁨의 상징(시104:15; 사55:1; 삿9:13)

그런데 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가장 큰 기쁨을 누려야 할 때

특별히 나는 이때가 인생을 마감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종류의 와인을 맛보았다. 그런데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

건강, 돈, 명예, 친구들, 먹는 것, 여행, 집, 차, 여인, 남편

그럼에도 우리는 결국 솔로몬같이 고백하고 말 것이다(전2:9-11)

"한번뿐인 인생 마음대로 기쁨을 누리며 살라", 표어는 좋지만 영원한 기쁨은 없다.

기쁘게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쁨이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인생의 해결책(5)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기쁨이 온다.

말씀, 하나님, 빛,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양, 나를 믿으라. 그것이 영생이다.

어떤 기쁨: 가장 좋은 포도즙, 가장 좋은 기쁨(10),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

시간을 초월하는 기적, 사람이 재배하면 1년 걸림, 순식간에 완성된 상태의 포도즙

이것이 영원한 구원

예수님의 말씀(요15:7, 11)

기억하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는다.

그것을 위로 들어 올려서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가장 부요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다.

이런 기쁨은 성령님의 충만으로 나타난다(엡5:18-19). 갈5:22, 성령님의 열매

그 결과(시92:12-14)

결론

오늘 이야기는 결혼식 이야기, 문제: 포도즙이 없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뿐이다. 사라진다. 멈춘다.

예수님이 완전한 기쁨을 주신다.

예수님과 정혼하고 그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갔다가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와서 우리가 휴거받아 하늘로

가면 아버지 집에서 혼인 만찬(계19:6-9), 그리고 결혼, 여기에 인생의 최대 기쁨이 있다.

예수님의 일(기적 등)을 보는 것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마 요한복음: 하나님의 열심이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

성경말씀: 요2:13-22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제자들을 부르심, 그 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
순식간에 물이 포도즙, 완벽한 변화, 시공간을 초월함, 인간의 필요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줌
포도즙은 기쁨, 인생에서 필요한 때에 기쁨이 없어지면 예수님께 알려야 한다. 영원히 채워 주신다.
요한 2장에서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의 열심 〈 〉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13)

유대인들의 유월절 명절(13), 세 절기: 유월절(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신16:16).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 장막절(10월)에 공생에 유월절 세 번(4월 초순)
예수님의 행적: 바리새인 증 종교인들이 속박의 굴레로 만든 인간의 규례들은 고의로 부숨, 그러나 그분은
철저한 유대인, 율법 아래 태어나심(갈4:4), 구약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히 지키심
그분의 삶에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는 속박의 멍에에 매이지 않게 하심(마5:17)
가나 혼인 잔치, 북동쪽 30킬로미터 떨어진 가버나움(12), 며칠을 보내고 예루살렘, 직선거리 100킬로,
수많은 사람들, 드디어 도착, 길거리에 기념품 파는 사람들, 약 200만 명,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
그런데 거기에는 도저히 주님이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음

예루살렘 방문에서 먼저 열심을 보여 주심(14-17)

성전에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모여 들었다. 제사장들은 이것을 탐욕의 기회로 삼았다.
외국인(외국에 사는 유대인): 외국 돈을 유대인들의 돈으로 바꾸는 일(외국돈은 No!), 반 세겔(출30:13; 느10:33-34), 반 세겔 은으로 8그램(2돈), 지금 가치 약 6000원, 그런데 돈을 바꾸면서 2시간 인건비 부과, 15,000원 정도 더함
유대인들은 희생물 바침, 이들을 위해 짐승 판매: 조사관, 18개월 동안 훈련,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감별,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은 문제가 되는 짐승도 감별, 대제사장 안나스의 비호 아래 이루어짐
처음의 목적: 좋은 의도, 멀리서 오는 사람들 편의 제공, 시간이 지나면서 편의가 사업이 되고 맒.
어디서: 이방인들의 뜰,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접촉,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여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함, 진리를 찾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초장부터 길이 막힘
주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짐승들 매매 소리, 동전 오고가는 소리, 종교 서커스, 소동의 장소
이때에 갑자기 주님은 성전 정화 시작(14-15)
우리는 채찍을 든 주님의 분노를 본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사랑의 예수님, 그러나 공의와 분노의 주님, 이유(16),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돈 버는 장소로 만들지 말라.
성전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왕상8:10-11)
제사장들은 말로는 영광, 그러나 실제로는 돈벌이, 극도의 위선
성전의 상태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드러냄
제사장들의 타락: 영적 지도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하며 희생물을 드림
권위를 가진 자들, 그것을 돈 버는 일에 사용하여 부자가 되려고 함
그 결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떠남(에스겔서 영광이 떠남, 열망)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건물 중요하다. 외적인 것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과 영광이
우리의 예배(사적 공적 예배)에서 유지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심히 미워하신다. 극도의 분노와 채찍질
하나님을 작은 거인 취급하지 말라. 어디에서든, 특히 공예배에서
그러면 예배가 난잡해진다.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내가 주인이다". "아니요. 내가 주인입니다" 안 된다.
제자들의 반응(17): 시69:9, 69편은 메시아 시편, 신약성경에 여러 차례 인용됨(69:4(요15:25), 69:8(요7:3-5), 69:9(요2:17; 롬15:3), 69:21(마27:34, 48), 69:22(롬11:9-10)
두 부류의 사람들: 1. 예수님 당시 여전히 경건한 유대인들, 소수의 남은 자들,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물

드림, 예배드림(눅1:5-22의 사가랴; 2:25-38의 시므온과 안나)
2. 그러나 대다수 종교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돈을 빼먹는 일에만 관심
원래 그들은 목자, 그런데 양들에게서 돈을 빼먹음
결국 이들이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전에 그들에게 맹렬한 저주를 선포하심(마23:14-15). 위선자들, 독사의 자식들, 이들과의 전쟁으로 인해 결국 십자가 죽음
말 그대로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을 그분을 삼킴(17).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는 열심(18-22)

그분의 성전 정화, 종교인들의 당연한 질문(18), 무슨 권위로 하느냐? 하나님의 표적을 보이라.
유대인들의 특징: 새로운 대언자가 나타나면 표적 요구, 모세의 귀환
당장에 표적을 요구함,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한다(고전1:22).
그래서 예수님 사역 당시 지도자들은 표적으로 보여 달라고 조름
요나의 표적만 보여 주심(마12:38-39), 죽음, 매장, 부활의 표적
음란한 세대(39절): 말씀이 주어지면 그것을 들어야 하는데 꼭 보여 달라고 함,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은 성전의 이미지를 사용하신다(19)
주님은 지금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이들은 육신적인 의미로 이해함
헤롯 대제는 건축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지음, 당시 스룹바벨 성전(두 번째) 보기에 초라함, 금으로 장식한 성전 건축, 예수님 공생애 시작 AD 27년, BC 20년경 시작(46년 20절)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속되어 AD64년까지 지음,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됨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울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의도(21)
이것은 물론 그분의 죽음, 매장, 부활 사건, 부활 이후에 제자들 깨달음(22)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많다.
어린양(1:29), 대신속죄, 성전 파괴(2:19): 폭력에 의한 죽음
왜 성전인가? 유대인들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의식, 희생 예물 드리는 것은 다 성전에서 이루어졌다.
물리적 건물만 있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함, 유다의 패망 직전 예레미야 시대 동일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들의 귀중한 빌딩이 소멸될 것이라고 하자 종교인들의 반응은 예측 가능함(돈벌이 불가능)
그분 몸이 성전: 그러면 물리적인 성전 불필요: 그래서 더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필요 없음 예언(요4:21). 그들의 율법 시스템 폐기(요1:16-17), 이제 은혜와 진리의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어린양(1:29), 그들의 성전(2:19)
그러면 새로운 예배 방식(요4장), 수가 성 여인

하나님의 열심

왕하19:31, 시69:9, 시119:139, 사9:7, 37:32, 63:15 등 구약에 몇 차례
열심, 열정, 사랑이 고도로 나타나는 것, 열정적인 것
사9:6-7,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신다(7).
시69:9, 악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냥 두지 않는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바울 다 열정의 사람들
가장 열정적인 사람: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이루어진다.
시119:139, 말씀들이 붕괴될 때 내 열심히 나를 소멸시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야 함, 뜨거운 사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열정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후9:2)

ㅁㅁ 요한복음: 기적만 따르지 말고 사람의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말씀: 요2:23-25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제자들을 부르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심,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 이런 자들에 대한 분노, 결국 그 열심으로 십자가까지 가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심

본격적인 공생애 시작 전에 주의 사항: 앞으로 메시아 기적들을 많이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만 의존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제자들에게 경고 〈 〉

예수님의 전지하심(23-25)

그분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심, 많은 이들이 기적들을 보고 그분을 믿음(23)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믿음 고백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증언에 의지하지 않으셨다(24).

기적을 보고 믿겠다고 반응하는 것과 실제로 그분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은 다르다.

즉 그들은 말로만 믿겠다고 하는 자들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많이 기록하였다. 그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려고(요20:30-31), 사실 표적들을 보고 믿는 것은 좋은 일, 제자들도 그렇게 시작함

요3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 기적들을 보고 그분을 믿음

그런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들을 보고도 그분을 죽이려 함, 심지어 그분의 기적들은 마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기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 주는 증언(요5:36)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12:37), 눈이 열리기도 하고 더 멀기도 함(요9:39-41)

주님은 기적들과 말씀의 진리를 묶으려 하심, 그런데 사람들을 기적만 따르려 함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자체가 기적, 기적의 하나님,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 하나님이 세상과 우주를 이끌어 나가는 두 가지 방법: 섭리와 기적, 섭리: 하나님은 정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양식 혹은 법칙을 가지고 우주를 치리하신다. 이러한 양식은 너무도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종종 자연의 법칙이라 불린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특별한 방법으로 움직이시는데 이렇듯 변칙적인 운행 방식을 보통 기적이라고 부른다. 여호수아의 기적: 해와 달이 멈춤(수10:12-14),

엘리사의 기적: 제자들의 도끼머리가 물에 빠짐, 나뭇가지를 베어 던지니 쇠가 물에 뜸(왕하6장), 창조자이시기에 가능함(공장 잠시 멈춤)

기적은 항상 생기는가?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에 특정한 사람들의 특별한 권능에 의해 집중적으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세 개의 시기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1) 첫째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약 100년간, (2) 둘째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초기 대언자들 시대, 약 150년간, (3)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와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 약 70년간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는 약 6000년이므로 기적이 발생한 시기는 그중 5% 정도에 불과하다. 예수님도 자신의 지상 생애 동안 약 3년 즉 자신의 삶의 9% 동안에만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기적의 목적

기적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었다. 기적을 말할 때 쓰인 세 단어가 이 사실을 입증한다. 먼저 기적은 '강력한 일'로 불리는데 이것은 행위 뒤에 숨겨진 권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때로는 기적이 '이적' 즉 '놀라운 일'로 불리며 이때에는 기적을 목격한 자들의 반응을 강조한다. 또 기적은 '표적'으로도 불리는데 이것은 기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보여 주고자 함이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여러 경우에 기적을 표적으로 본다(요20:30-31).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들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 주고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다. 바울은 자기가 행한

기적의 권능을 빌어 사도의 권위를 실제로 입증하려 했다(고후12:11-12).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실성을 확신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목격한 증인들이 기적으로 자신들의 증언이 진실임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히2:3-4).

표적으로서의 기적의 중지

대다수 기적의 취지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사람들이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될 때 기적의 선물(은사)도 그쳤고 그것을 행하는 특정한 사람들도 사라졌으며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적의 선물은 초세기 이후로는 찾아볼 수 없다(죽은 자를 살리는, 손을 대면 병이 낫는 등). 더욱이 예수님은 기적의 선물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며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것들을 원한다고 말한다(마12:39).

마귀도 기적들을 일으킨다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은 모방자이다. 거짓 영은 빛의 천사로 좋은 것들과 함께 온다(고후11:14-15).

마24:24,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대언자들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사용하여 심지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 하지만 참으로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기적들(살후2:9-12; 계13:13-15)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 영 분별(요일4:1)

기적에 대한 결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며 행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시대에 지속되는 현상으로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특정의 개인 즉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 지금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은혜의 왕좌에 직접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며(요일5:14) 그분께서는 자신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기적을 보여 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동기 자체가 불순함(눅16:30-31). 말슴과 기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들 보고 믿는다고 하며 나왔으나 그분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음(23-24)

그들은 기적 자체만 좋아함, 기적의 의미: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 확증 관심 없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음, 믿지 않음, 이유: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24)

사람은 연약한 존재 무익한 존재, 영생을 사람에 의지하다가는 큰일남(사2;22), 창조자를 의지하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아신다(이름, 언행).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신다(대하16:9). 그래서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심, 증언 불필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25)

시몬 베드로(1:42), 나다나엘(요1;46), 수가성 여인의 모든 것(4:29), 유대인 지도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5:42), 가룟 유다가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6:64). 간음한 여인의 회개(요8:10-11) 등.

여호수아기 7장의 아간을 보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행5장의 아나니야와 삽비라를 보라. 하나님은 아신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길은 2.4m 혹은 사람의 키, 사람 속은 천 길 물속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의 마음 예레미야(렘17:9-10). 하나님은 마음을 시험하신다(히4:12-13).

바로 이 마음속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온다(막7:21).

예수님 등장, 기적들 보임, 백성들 환호, 인기가 높음, 쫓아다님

그런데 그분의 말씀들을 듣다 보니 그것들이 가슴을 파고 들어옴,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음

이대로 나가면 지옥 불의 정죄가 확실함. 결단을 내려야 함: 회개 혹은 거부, 중간은 없다.

결국 기적들을 따라 다니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던 자들이 결국 양심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하고 외침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중간은 없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중간은 없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기꾼인가, 거짓말쟁이인가, 미치광이인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인가? 목사는 모른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모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다.

1ㅁ 요한복음: 영생과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성경말씀: 요3:1-15

요한복음 시작,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요1;1), 창조자(1:2), 사람들이 빛을 거부함,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1:14). 구약 철폐 신약 오픈(1:16-17), 제자들 부름(간사함이 없는 자들), 가나 혼인 잔치 영광(2;11), 성전 정화, 열심(2:17), 그리고 죽으심 예언(19), 전지전능(25)

드디어 3장부터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심,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설명, 그것은 구원

어떤 분이 책을 줌, 지옥으로 가는 크리스천들?, 베스트셀러라고 한다. 저자는 이화영 목사님
요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화영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글을 읽기도 한다.

핵심은 이것이다: 교단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 크게 4가지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식 목회자들도 헷갈린다. 그러니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다. 심지어 구원받는 시기도 다르다.
여기에다가 박보영, 유기성, 변승우 목사 등은 행위 구원, 구원을 잃는다고 가르친다. 난해 구절들

이분 주장: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나 대다수 난해 구절들 잘못 해석,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
마르틴 루터, 칼빈 등의 종교 개혁자도 풀지 못한 것을 본인이 풀었다고 한다. 과도한 주장

그러나 좋은 시도를 했다. 진지한 연구, 그러나 이분 자신의 해석도 맞지 않음
기회가 되면 구원을 다시 잘 성명해야겠다는 생각

일단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 설명, 〈 〉

요3은 성경의 위대한 장, 부흥사라면 매주 동일하게 설교해야 할 내용,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수인 교회에서는 매주 설명할 수 없어서 2-3년마다 한다. 가장 중요하므로 더 많이 해야 하지만 교회라 그럴 수 없으니 이번에 다시 주의 깊게 듣기 바란다.

<u>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u>,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난 주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2:25), 그리고는 곧바로 3장의 니고데모라는 사람(3:1)

3장 설명

1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치리자, 한 마디로 바울과 같은 부류의 사람, 600여 개 율법에 통달한 박사, 종교 면에서 최고봉,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2절: 유대인들의 특징: 표적과 기적 요구(요2:18),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메시아 표적을 보임(2:23), 니고데모도 그것들을 봄, 깨달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차마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옴

3절: 그런데 느닷없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5절).
롬3:22-23, 시39:5,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한 평가(요2:25)

4절: 니고데모의 반응,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한 의미를 알고 자기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듯이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다.

5절: 주님의 설명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야 한다. 5절은 4절 이후, 그러므로 물에서 나고 또다시 성령에게서 나야 한다. 물에서 나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의 출생, 다른 의미 없다.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에게서 나는 것,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

6절: 다시 한 번 정리, 그러므로 5절의 물은 세례나 침례가 아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천주교 해석, 말씀이 아니다(어떤 사람들 엡5:26). 아니다! 여기의 물은 어머니 태의 양수, 육에서 나는 것 의미
그러므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것: 첫 번째 출생, 물에서, 육에 속한 생명
그중 일부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출생, 성령에게서, 영에 속한 생명

7절: 주님의 말씀, 네게, 너희가, 네고데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즉 다시 태어남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허사

'태어나다'의 의미

한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어머니 태에서 세상으로)

1.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과 신분이 바뀌는 것

2. 태어난 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날을 기억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아시는 날
죄의 심각성 자각, 내 힘으로는 안 됨(회개), 장래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5분 10분 듣고 결정 거의 불가능, 고민과 사유,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고후5:21), 즉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 확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것이 됨(믿음). 은혜로 믿음으로(엡2:8-10)

바로 그날 그 순간 구원받은 것이다.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다'의 의미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가?

8절: 성령과 바람의 역사, 겔37장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죽은 사람이 살아남
이런 것을 가리켜 성령의 침례(골2:11-12),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9절: 니고데모의 반응

10절: 예수님의 말씀, 율법 박사 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부귀영화, 명예, 학식, 연륜

11절: 유대인들의 문제, 종교인들의 문제(막7:6)

12절: 땅의 것, 물, 바람 이야기 등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 어려운 일이 아니다.
뉴욕 이야기 하면 뉴욕을 다녀온 사람만 안다.
오늘도 이것을 설명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마음이 진리에서 멀다.

그러면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의 의미

13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이다. 나는 너희처럼 땅에서 난 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소속이 하늘이다. 영어 혹은 원어 순으로

나는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자이다.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에녹 창5장, 모세 신34, 엘리야 왕하2).
그러나 이들은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채여 올라갔다.

잠30:4, 즉 나는 스스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존재이다. 즉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야말로 유일하게 하늘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다. 바로 나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시간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개역성경 포함 대다수 역본들 '하늘에 있는' 삭제, 예수님의 무소부재
즉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이다. Perfect한 유니온, 이 본성을 부인하면 이단
현재로 쓰여 있으므로 그분은 언제나 하늘에 계시는 분
그래서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다(요1:18 가능).

14절: 민수기(21:8-9)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불 뱀에 물려 죽음(6), 백성의 회개(7),
불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들어 올림(8), 믿음으로 뱀을 바라보면 구원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위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 구원
두 경우 모두: 다른 방법으로 구원 불가능, 오직 바라보는 것으로 가능, 믿음이다.
둘 다 위로 들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 방법

15절: 여기에 구원의 핵심이 있다. 영원한 생명, 천상의 생명, 멸망하지 않는다.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인간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신분과 소속 변경 불가능

그래서 타시 태어나야 한다. 위에서, 그러려면 위에 계신 그리스도, 위로 들린 그리스도, 무소부재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 구원, 영생이다.

11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

성경말씀: 요3:16-21

예수님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백성들을 만나기 시작함, 니고데모,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들어갈 수 있다. 어머니 배 속에서 물과 함께 나오는 첫째 출생,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 위에서 타시 태어나는 두 번째 출생, 14-15절 설명, 이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 〉

요한복음 3장 위대한 장, 16절: 이 세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 나는 한 번도 설교한 적 없다. 오늘 하려고 한다. 영어로 가 보시면 앞에 For가 붙어 있다. '왜냐하면' 이유,

하나님, 세상, 이처럼, 독생자를 주심, 누구든지, 그를 믿든 자는, 멸망, 영존하는 생명, 모두가 중요

하나님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생명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생명은 생명에서만 난다.

그러면 첫 사람 아담도 누군가에게서 생명을 받아야만 존재 가능, 창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창조물(창조 세상)을 만든 분,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출3:14)

지금 가지고 있는 육적 생명의 근원: 하나님, 다시 태어나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 이것의 출처 하나님

인간의 의무 그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롬1:21). 우리의 주인

세상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여러 용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 철학, 시스템, 마귀 체제(요1:10, 7:70; 요일2:15-17)

즉 마귀의 속박 밑에 갇혀 있는 온 세상 창조물 특히 모든 인간과 창조물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함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인간을 만드셨다.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함,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심, 아이들을 낳는다. 속을 썩인다. 내팽개치는 부모가 어디 있는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막2:17).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보여 주는 책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을 뒷받침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말로만 사랑은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 사랑하신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는 유일하게 관계를 맺은 아들이 단 하나(요1;14), 아버지와 성령님과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해서 인간들 죄에서 구속하려 함. 아버지가 동의하고 그 아들을 보내심, 베들레헴 마구간, 나사렛의 목수, 공생애 시작, 십자가 처형, 죽음, 부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죄를 지었다. 그냥 지옥 형벌에 버려두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어느 정도인가? 고후5:21, 공의의 하나님, 그냥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죄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음, 구약 시대 죄없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함, 무한한 희생 예물,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몸에 다 받았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 인간의 모든 죄 제거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 주셨다.

17절을 보라. '주셨다'의 의미, 보내셧다.

누구든지

가장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 whosoever, 남녀노소, 빈부귀천, 피부 색 전혀 상관 없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요1:9)

그를 믿는 자는

이것 역시 기독교에서만 존재하는 교리,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다시 태어나서 믿게 되는 것 아니다. 믿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어느 면에서 너무 쉽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언제가 믿을 것이다. 하나님이 믿도록 해 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믿는다'(believe)는 내가 동의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요1:11-12), 환영하며 받아들임

무엇을 믿는가? 1. 내가 죄인임을 믿는다. 2. 형벌을 받아야만 함을 믿는다. 세상을 보라. 좋은 세상 공의로운 세상의 특징: 죄의 형벌이 있다. 하나님이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심, 3.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믿든다. 4. 나를 지은 분이 있음을 믿고 그분만이 나를 고쳐 줄 수 있음을 믿는다, 5. 그래서 나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한다. 6, 그분의 말씀: 내 아들이 네 죄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내 아들을 믿으라. 내 아들만 신뢰해라.

히11:6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 설계대로 되지 않으면 모두 폐기 처분, 인간도 설계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것, 여기서 벗어나면 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들을 폐기처분하는 날이 온다. 이 장소를 지옥, 불 호수, 여기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곳(마25:). 영원히 불타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산다.

18-21절 설명, 정죄

영존하는 생명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특징: 이 땅의 생명이 하니라 하늘의 생명, eternal life(15)

이 땅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구하다. everlasting life(16)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레이건 대통령 펴지

아직도 머뭇거리는 분들 위해 레이건 대통령의 편지 소개, 2018년 9월 14일 워싱턴포스트지에 공개됨

자기 장인인 로얄 데이비스에게 보낸 전도 편지, 이 편지는 레이건 대통령이 임기 2년 차인 1982년 8월 7일 자기 장인 로얄이 숨을 거두기 12일 전 백악관 사무 노트지 네 쪽에 쓰인 것으로 레이건의 솔직함과 간절한 정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손 글씨 편지다.

친애하는 장인어른께, 장인은 의사, 믿으려 하지 않음

무례하다면 용서를 구합니다만, 사실 지난 번 전화 통화 이후로 계속 이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지금 많은 고뇌를 겪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비밀로 했던 한 가지 개인적 경험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있었던 첫 해의 상황은 지금 워싱턴에서 대통령으로 겪고 있는 상황만큼이나 어려웠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산적한 문제들은 끝이 없었고 해결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위궤양이 생겼습니다. 배우 시절 워너브라더스에서 고생했던 때도 위궤양을 앓지는 않았는데, 주지사가 되고 위궤양을 앓게 되니 저는 이것이 저의 연약함으로 보일까 부끄러웠습니다.

주치의인 존 샤프가 말록스를 처방해 줬지만 저는 항상 속이 불편하거나 아주 날카로운 위경련을 겪는 등 언제나 고통을 안고 살았었습니다. 이 고통은 몇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록스 약병을 제 책상과 가방, 그리고 집에 항상 챙겨 둬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서 여느 때처럼 약병을 찾았는데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병이 필요 없어진 (고통이 없어진) 것입니다. 전날 밤에도 분명히 통상적인 고통 속에 잠이 들었는데 그 날 아침 궤양이 말끔히 고쳐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말록스를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날 아침 제가 집무실에 도착하자 비서인 헬렌이 저에게 온 편지들을 가져다 줬습니다. 처음으로 연 편지는 남부지역의 어떤 낯선 여성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저를 위해 기도하러 매일

모이는 어떤 모임에 속해 있다고 알려 줬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놀랍게도 또 다른 모르는 남성이 보낸 것이었는데, 이 분은 캘리포니아 주의 반대쪽 지역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매주 모임을 갖는 분이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한 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법무 팀의 직원이 무슨 일상적인 업무 때문에 집무실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나가는 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지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몇 명이 매일 아침 좀 일찍 출근해서 모여 주지사님을 위해 기도한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주 뒤에 낸시와 저는 LA로 가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주치의 존 샤프는 약간 혼란스러워 하며 저에게 "위궤양이 더 이상 없을 뿐만 아니라 위궤양이 있었던 흔적조차 없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맹세컨대 저는 그에게 제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마18:20) (중략) 참으로 기도의 힘은 위대합니다.

이 일은 아마 의사이신 장인어른께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저는 그 사건보다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더 큰 기적 같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 증언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분은 역사상 최고의 날조자이자 사기꾼이겠지요. 하지만 그분이 정말로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면 그런 고통스런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그냥 거짓말을 시인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진짜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학자로서나 성직자로서 아무런 신임도 없는 30세 청년이 거리 모퉁이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몸에 걸친 옷자락 외에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그가 이동한 거리는 지름 160킬로미터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과 3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일반 범죄자와 다를 바 없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그분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선생들과 과학자들과 황제들과 장군들과 제독들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받은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뒤 우리의 힘과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 무한히 선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 어르신과 장모님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애의 끝으로 그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이 오직 삶의 일부분일 뿐이고 앞으로 더 큰 생명과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어르신은 단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스스로를 맡기신다고 하나님께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사위 로니 드림.

유튜브 동영상: 레이건 대통령과 킹제임스 성경

20세기 가장 훌륭한 레이건 대통령의 말: 믿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맡깁니다를 뜻한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라. 우리는 했는가? 오늘 구원받기 바란다.

12 요한복음: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한다

성경말씀: 요3:18-36

지난 두 주, 니고데모 이야기, 지난 주 요3:16, 가장 위대한 메시지,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의 창조자 주인임을 믿으면 된다. 니고데모 이야기 종결: 주님이 오신 이유(17), 그분을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가 예비되어 있다(18). 빛과 어둠 이야기(요한복음의 상징 1:4-13),

그분께 오지 않는 이유: 어둠을 더 사랑한다(19). 계속해서 악 가운데 머무르려 한다. 자기의 선한 행위로 무언가 해 보려고 한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악한 행위가 더 드러남, 지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도덕적 문제이다. 핵심: 교만, 나는 괜찮다. 대개 선한 사람들, 그래서 빛을 미워한다.

니고데모는 혼돈 가운데 있었으나 드디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온다(요19:38-42).
십자가에 달려 위로 올려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임을 알게 됨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일: 자기 위치 파악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한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22-30)

침례자 요한, 결국 헤롯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힘, 그전까지는 주님의 사역과 겹침
요한이 한 일: 결코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어린양을 가리킴(1:29)

그런데 두 사람이 비슷한 일을 하자 두 사람의 제자들끼리 경쟁의식이 생겨서 다툼

22절 예수님 유대 땅에서 침례, 23절: 침례자 요한도

25절: 요한의 제자들이 문제를 일으킴, 내용 정결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문제 대단히 중요(막7:1-23), 구약 성경,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려면 의식적 차원에서 정결해야 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규정을 더했다.

요한의 제자들 불만(26)
당시 풍습: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 사람들 생각, 요한이 더 크다. 침례를 받았으면 예의상 멀리 떨어져서 가르치며 지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의상 요한의 사역지인 유대에서 침례를 주면 안 된다.

지도자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
모세와 여호수아(민11:26-30)
침례자 요한, 예수님(눅9:49-50), 바울(빌1:15-18)
지도자가 알아야 할 것: 반대자가 아니라 잘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침례자 요한의 해결 방법

1. 사역과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27). 그러므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
바울의 예(고전3:1-9), 우리의 사역, 은사, 축복 모두 주님에게서 나온다.
다른 사람을 잘 세워주는 것 필요

2. 아름다운 비유: 예수님은 신랑, 자기는 신랑의 들러리(29)
즉 자기는 구약 시대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부도 아니고 그 신부를 얻지도 못하며 그저 예수님의 들러리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 결혼하면 들러리의 역할 끝, 그것이 들러리의 기쁨
들러리가 신랑 행세를 하려 하면 월권,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방문: 배 속의 요한이 기뻐서 뛰놂(눅1;44)
자기 존재 인식: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1:23)
예수님은 빛, 요한은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요1:6-8)

3.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 사람들로부터 과찬을 듣는 것, 목사 소개, 과장된 말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작은 종입니다. 지금 침례자 요한이 그리하고 있다.

4. 침례자 요한의 신랑 신부 언급은 대단히 중요한 일
구약 시대 이스라엘: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남편과 아내 관계, 그런데 간음하여 결국 잠시 동안 버려진 상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교회를 부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신부이다(고후

11:1-3). 신랑이 와서 정혼을 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고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다시 올 것이다. 그때 누구를 데리러 오는가? 신부, 그 날이 바로 휴거의 날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5. 침례자 요한의 위대한 말(30)

위대한 사역자의 고백: 나는 죽고 주님만 흥한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위인이 되는 것이다.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설립자 호튼 박사 이야기

〈꿈을 이룬 사람들〉 혹은 〈꿈을 이루어 주는 사람들〉, 2016년 7월 29일 9시 37분 5초

안녕하세요?

지난 5월에 한 학생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제게 〈Builders of the dream〉이라는 책을 읽으라고 주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 〈꿈을 이룬 사람들〉 혹은 〈꿈을 이루어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미국 펜사콜라 크리스천 학교, 대학, 신학대학원을 세우고 발전시킨 호튼 박사 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Builders of the dream〉을 읽었습니다.

1953년부터 2012년까지 60년 동안 알린(1928년생)과 베카(1929년 생) 호튼(Arlin and Beka Horton) 부부는 무(無)에서 지금의 크리스천 학교/대학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대학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침례교 종합 대학이며 이 학교가 펴내는 베카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홈스쿨링 교재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원동력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 이 모든 성취의 근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사랑하고 확신을 가진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들의 출생을 살펴보니 이들은 미미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특히 베카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 가장 확고하게 근본주의를 지지하던 밥존스 대학에 들어가 성경에 대한 확신, 소명을 갖고 대학 졸업 후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플로리다 주 펜사콜라 시에서 크리스천 학교를 설립해서 현시대 최고의 크리스천 스쿨과 교재를 만들어 놓고는 60년 교육 사업을 마치고 슈메이커 박사(현재 49세)에게 모든 것을 일임한 뒤 은퇴하고 오레곤 주로 이사가서 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내 아버지가 태어난 우울한 시대에 크리스천 교육으로 어메리칸 드림을 이루어냈습니다. 내가 가진 성경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두려움 역시 부분적으로 이 학교에서 수학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랜드 박사는 맨 마지막 장 마지막에 아주 귀한 글을 기록하였고 그것이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내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번역해서 올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 전체가 공유한 글입니다.

알린과 베카의 청지기직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팀으로 그들의 당대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전통적인 크리스천 교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의 하고자 하는 마음(willingness)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확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염원(desire for God to enlarge the vision) 이 모든 성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긍정적인 자세 그리고 "섬김의 흥분"(thrill of service)이라는 기쁨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 - 수고와 도전들 그리고 실망들 - 을 [피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뚫고 나갔습니다.

내게도 꿈이 있습니다.

내 꿈은 우리말로 우리말답게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을 책으로 그리고 좋은 목소리의 성우를 써서 음성으로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궁극적으로 이 꿈을 이룬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을 연장해 주실지 모르지만 나도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뒤에는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날이 오면 나도 은퇴해서 보스턴 테리어 같이 얼굴이 뭉뚝한 개를 키우며 손자/손녀들 주님께로 인도하다가 주님께 갈 것입니다.

1.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2. 성경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 패스터

예수님은 무엇 하시는 분인가?

한 마디로 증인이다. 요한복음에 매우 많이 나온다(약 50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인, 반면에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증인, 증언한다. 왜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1.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다(31). 침례자 요한, 모세, 엘리야 다 땅에서 난 자들
   의미: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늘 이야기를 본 자만 말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셨다.
2. 그분의 증언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이다(32-33).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된다.
3. 아버지가 권위를 부여하신다(34-35):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 이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므로 예수님은 말씀과 영으로 충만하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다(35). 모든 것을 그에 손에 맡기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것을 공유한다. 공동 상속자
4. 3년 반 사역, 예루살렘의 거부, 주님의 눈물(마23:37-39), 결국 40년 뒤 AD 70년에 성전 파괴 온 세상으로 유랑생활
5. 마지막 결론: 아들을 믿어야 한다(36),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임한다(18).
   예수님의 증언에 관한 한 회색 지대가 없다: 믿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wrath),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하나님 곁을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에서 사는 것(마25:41).

요한복음 3장의 결론

사도 요한의 강조점: 새로운 출생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1. 새로운 출생(하늘에서 나는 것, 성령님으로 나는 것)과 함께 시작되는 살아 있는 관계
2. 그분은 신랑, 우리는 신부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 우리는 쇠하고 그분은 흥한다.
3. 그분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진리 증언, 우리는 그 증언의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적용한다. 배우는 관계
4. 이런 아름다운 일을 위해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감당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분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들려 올라가면 멸시와 조롱을 당함으로써 우리는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
5. 그래서 우리는 침례자 요한처럼 외쳐야 한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13 요한복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성경말씀: 요4:1-30

3장부터 드디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함, 3장 니고데모 이야기,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자기 제자들, 사마리아 사람들, 귀인과 그의 가족: 요한의 기록 AD 90년경, 사도바울의 서신서 모두 완성

이 시점에서 요한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1:16), 그 은혜의 복음의 관점에서 여러 사람들의 사건 기록,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다른 세 복음서는 주로 역사적인 사건 기록, 대비

요한복음 기사들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음이 시작되고 성장하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

또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 사람마다 다 다르다. 천편일률적으로 외우는 방식 No!

사람들과의 대화, 그 사람의 필요 파악, 딱 핵심만 말한다. 니고데모: 다시 태어나야 한다.

수가성 여인: 서로 피가 다른 사람, 유대인들과 원수, 예배 문제로 시작해서 자신이 메시아 증언

주님의 사역(1-5)

바리새인들의 방해, 특별히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 경쟁하게 만듦, 그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

위로 가는 길 세 가지: 왼쪽 지중해 해안, 오른쪽 요르단 동쪽 페레아, 사마리아 통과

정통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통과를 꺼렸다. 오랫동안의 반목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북쪽에는 갈릴리가, 남쪽에는 유대가 있었고 동쪽과 서쪽에는 요르단과 지중해가 있었다. 이곳은 처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에게 배정된 영토의 일부였다(눅17:11; 요4:4). 이곳은 유대에 비해 낮은 산들이 덜 황폐하고 더 많이 경작되었다. 복음의 초기에 많은 교회가 여기에 세워졌다(행8:1, 25; 9:31; 15:3).

사마리아 사람: 원래 이 말은 사마리아의 거주민을 뜻하였으나 신약 성경에서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열 지파와 이방인들의 결합으로 생긴 혼혈 민족을 가리킨다. BC 721sus 아시리아의 살만에셀(혹은 사르곤)은 사마리아와 그 주변 지역의 거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간 뒤 그들 대신 바빌로니아, 구다, 아바, 하맛 등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기 살게 하였고 그들은 거기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피를 섞어 궁극적으로 한 민족이 되고 말았다(왕하17:24-41).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혼혈 민족이 가증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탄생된 혼혈족은 아시리아에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들이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으며 어느 정도는 참된 종교의 일부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자신들 고유의 이교주의를 벗어나지 않았다(마10:5; 눅17:16-18).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유대인이므로 그 일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스4:1-24) 그것이 거부되자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유대인들을 고소하였고(스4:4; 느4:1-23) 또 신27:11-13의 모세의 명령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백성의 반은 그리심 산에 서서 레위 사람들이 낭독하는 언약에 아멘으로 응답하라는 명령을 이용하여 그 산에 성전을 짓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희생 예물을 바치기 시작하였다.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원래의 제단은 거기가 아니라 에발 산에 있었다(신27:4; 수8:30-35). 또한 그들은 모세오경을 제외한 유대인들의 다른 정경들을 버렸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민족적 감정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눅9:52-53).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란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으며(요8:48) 그들과의 모든 관계는 철저히 금지되었다(요4:9). 그리심 산의 신전은 주전 129년에 히르카누스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그리스도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귀하게 여기고 민족의 경배 장소로 생각하였다(요4:20-21).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고대하였으며(요4:25)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행8:1; 9:31; 15:3).

4절: 하나님의 시간표(반드시), 수가 성 여인, 많은 사람들 구원

5절: 수가(아마도 세겜 혹은 세겜 근처),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까움, 우물, 6시쯤(아마 12시), 여인들이 물 길으러 오는 시간이 아님,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 온 것이 아닌가?

6절: 예수님의 인성 표현

여인과의 대화(7-10)

당시 유대인 남성 특히 랍비가 알지 못하는 여인과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4:27).

그러나 주님은 이런 관습 부시하고 여인과 대화를 나눔

마실 물을 내게 달라(7), 여자는 다른 뜻이 있는지 알고자 함(9)

주님은 다른 의도가 없고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열고자 함, 영원한 생수를 설명하고자 함

지금 여인의 가장 큰 필요: 물, 여기서 대화를 이끌고 나감

야곱보다 더 크냐(11-15)

여인은 마시는 물(10), 예수님은 영적인 물(영생), 니고데모와 동일하다. 다시 태어나는 것, 모태

여자의 말: 야곱보다 더 크냐?(12) 이 우물 굉장하다, 2000년 전, 지금도 물을 낸다.

주님의 말씀(13-14), 영존하는 생명 언급, 생명은 요한복음에만 적어도 35회 이상

여자의 반응(15), 반응은 있지만 아직 진리에 도달하지 못함,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당신은 대언자(16-18)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죄인이라는 고백,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하심(16-17), 나는 남편이 없다. 지금 살고 있는 자도 아니다(18). 구약 시대 사람들의 이혼 사유: 가장 큰 것, 간음, 나는 남편이 없다. 진실 고백, 여자의 말 중에 가장 짧은 말, 이미 죄 인정, 이 여인의 말 중에 가장 귀중한 말

죄 문제 회피(19-24)

죄 문제는 더 말하지 않고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 문제

당신은 대언자(19), 주님이 자기를 다 아니까(요2:24), 이제부터 주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설명

예배: 섬길만한 분을 섬기는 것

여자의 관심: 예배 장소(4:20)

예수님의 대답: 예배 방법(4:21-24), 영과 진리로(in spirit and in truth, 23-24절)

21절: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즉 건물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2:19-21).

22절: 그들의 문제,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한다.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는 데서 나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롬10;17)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지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구약성경에서 모세오경만을 받아들여 영적인 지식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들의 예배는 진리가 없는 열광주의 예배였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부를 경전으로 삼고 있었다.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였지만 거기에는 마음이 깃들어 있지 않았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통해, 구원자가 유대인, 제자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 한국의 구원자는 다 가짜다.

요한복음의 핵심: 모든 것이 바뀌는 새 시대, 새로운 희생물(1;29), 새로운 성전: 우리가 성전(2;19-21), 새로운 출생(3;1-17), 새로운 물(4:11), 새로운 예배(23-24), 새로운 창조물(고후 5:17)

23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주일성수, 십일조, 헌금 등 중요하지만 영과 진리로 에배하지 않으면 허사이다.

영 안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다(24). 그래서 성령 하나님님과 교감하는 예배, 형식만 강조하는 구약식 에배 No!

예배는 한 사건을 기대하며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위이다.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대하7:1-2; 11-12; 행2:47; 4:29-31).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새롭게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정결케 하고 화목케 하는 임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고 성별된 시간과 공간을 상실하였다.

예배: 하나님의 속죄 행위를 통해 정결케 된 자신의 백성을 다시금 거룩한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성령님은 죄와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해 증언한다. 죄인의 마음에 일하심으로 변화가 생기게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 세상을 향해 주신 사명을 생각나게 하신다.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과 관계 있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신다.

죄를 회개하게 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불신자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시고 냉담한 사람의 마음에 영적 열심의 불을 지핀다.

무수한 예배 속에서 도무지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하고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감격하며 찬송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 목적으로 교회를 해야 한다.

진리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경 말씀이 강해되어야 한다.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한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한다.

복음 선포의 최종 결과: 예수님을 아는 것

여자의 말(25),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구원의 열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갈망

주님의 말씀(26). 내가 바로 그다.

그리고는 곧바로 사람들에게 예수님 선포(29)

여자가 곧바로 주님께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지식, 연결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기다리시며 설명, 5분 10분 설명하고 영접하라고 보채면 안 된다.

이해가 되어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샬롬

결론

1. 새 시대가 온 것을 아는가?(21)
2. 경배의 대상을 아는가?(22)
3.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가?
4.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인가?

14 요한복음: 하나님의 뜻과 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

성경말씀: 요4:31-42

요한복은 강해 13번을 했다. 나나 성도님들 모두에게 요한복음을 상세히 종합적으로 보는 계기(마지막)
준비하는 내게도 큰 부담과 더불어 기쁨이 있다. 우리는 여러 책을 읽는다. 무언가 결론을 얻으려고.
책의 구조를 잘 파악해야 한다.

예수님의 대화 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는 현상

제자들의 사이클과 예수님의 사이클은 다르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동문서답, 사람들의 영적 어둠
1. 요2:19-20, 이 성전을 헐라, 46년이 걸렸다.
2. 요3:3-4,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3. 요4:10-11, 살아 있는 물,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긷느냐?
4. 요4:31-33, 음식 문제, 누가 가져다 드렸는가? 예수님의 음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이 보여 주시는 영광스러운 주제에 대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가를 자세히 반복적으로 기록했을까?
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함을 강조하려고(요1:14, 16)
2.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요3:8; 고전2:12-14).
3. 우리의 기도: 아버지 우리의 영적 어둠이 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요4, 수가성 여인 기사는 두 부분: 1-30절 여인과의 대화, 39-42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
중간에 묘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31-38절), 오늘은 34절에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
27-30: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김(27), 28-30, 여인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시로 가서 증언함
증언 내용(29):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모든 과거를 아신다.
그 결과(39-42):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도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안다(42).
여자의 믿음 증언(39), 예수님의 증언(41), 두 증언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 결과가 42절 사마리아 사람들의 증언: 우리도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을 기록된 말씀 즉 성경으로 이끌어야 한다.

사마리아 여행 정리: 대다수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하신다.
구원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한 여자를 통해 구원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심
구원은 핏줄, 인종의 문제가 아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방법이 대상에 따라 다르다.
중요한 것: 관계 전도, 상대방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 끝에 예수님만이 구원자 결론에 다라라야 한다.

예수님의 음식(31-34)

지난 주 설교 뒤 내 아내에게 말함: 다음 주 설교에 기가 막힌 구절(34), 굉장한 말씀이 될 것 같음
제자들의 말(31), 예수님의 말씀(32)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거리가 있다. 제자들의 말(33)
예수님의 대답(34), 위대한 말씀, 이번 강해를 통해 처음 확실히 알게 된 진리

양식: 먹을거리, 음식, 사람의 몸에 꼭 필요하다. 배고플 때 보기만 해도 즐겁다. 참을 수가 없다. 매일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일을 완수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꼭 필요하다. 즐거운 일이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맛있게 먹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셨다(요5:30; 6:38).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1. 인간의 본성을 입는 것(성육신), 기쁨으로 하셨다.
2. 율법을 완성하는 것(마5;17),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것, 그리고 신약을 여심, 역시 기쁨
3, 죄인들을 위해 죽고 묻히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는 것, 역시 기쁨으로
4. 인간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것들, 그분은 이것들을 기쁨으로 하셨다(히12:2).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것,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1. 복음을 선포하는 것: 왕국의 복음 선포, 하나님의 통치

2,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것 즉 인간의 구속과 구원(12:49-50)

3.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완전하게 기쁨으로 이루셨다. 그것이 그분의 음식이다.

4. 목표 설정, 열심, 최선, 주저함이 없다. 5.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요17:4; 19:30).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일

다시 말한다. 심히 중대한 메시지가 31-38절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은 1분 1초도 헛되이 쓰지 않고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신다.

인간의 구원(눅19:10), 빛이 왔으나 반응이 없다.

그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12:49-50)

너희 생각에는 씨 뿌리고 거두려면 넉 달(35)

그런데 나는 씨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35).

즉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암9:13,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에 이를 자들을 수확하고 있다: 니고데모,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36). 아모스가 본 대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나는 뿌리는 자요 동시에 거두는 자이다.

창세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의 오케스트라 전체를 지휘하고 있다. 시작부터 끝까지.

37-38절: 제자들은 수확하는 일에 참여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심었다: 예수님, 구약 시대 대언자들, 침례자 요한 사마리아 여인 등

예수님과 여인 모두 자기들의 증언 즉 말의 씨를 뿌렸다. 그리고 우리는 수확에 참여한다.

그들의 수고에 참여한다. 뿌리는 일을 하든지, 거두는 일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다.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핵심: 제자들에게 너희도 부지런히 너희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심.

우리의 양식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

우리 모두의 수고가 필요하다. 우리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1. 하나님의 은혜 경험, 구원

2. 진리의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3. 반드시 변화가 생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야 일을 끝낼 수 있다.

4.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된다: 그래야 일을 끝낼 수 있다.

5. 우리 교회에 오면서 어영부영 살면 안 된다.

6. 학생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인사를 잘 해야 한다.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경청, 말하기, 분별력, 선함, 사랑, 정제, 온유, 배려, 칭찬, 시간약속). 김재욱 1318 성품 스쿨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경이로움을 느껴라. 스티로폼 컵에 든 작은 씨앗을 기억하라.. -중략- 우리는 모두 그 씨앗과 같다.

금붕어와 햄스터와 흰쥐와 스티로폼 컵 속의 작은 씨앗마저 모두 죽는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7. 이렇게 노력해야 하나님이 주신 일을 끝마치지 않겠는가?

8. 세상이 심히 더럽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아 경건한 씨를 남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2019년을 잘 지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평생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이루의 기쁨이요. 양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한다.

지금은 복음의 시대: 특징 수확하는 시대, 우리의 일은 수확하는 것, 바쁜 시기, 모드가 해야 한다.

수확의 때는 정해져 있다(영구히 지속되지 않음). 기회의 시간이다. 이때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1. 이것은 필요한 일, 심히 긴박하게 해야 할 일(35)
   너희의 주장: 네 달 남았다. 주님의 말씀: 이미 밭이 희다.
2. 유익하고 좋은 시간(36), 거두는 자는 삯을 받는다. 보상이 있다. 그들의 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 수확
3. 이것은 쉬운 일: 이미 반이 이루어짐, 씨가 뿌려짐(37-38), 모두가 협력하여 하는 것이다.
   우리 이전에 있던 주님의 사람들이 이미 씨를 뿌렸다. 우리는 거둔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 보기

15 요한복음: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성경말씀: 요5:1-15

요한복은 4장,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심,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 구원
46-54절에는 갈릴리 가나에서 정부 관리의 아들을 고침으로써 갈릴리에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심,
영광을 받음, 오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 〉

배경

예루살렘의 양 시장 곁의 베데스다 연못, 뜻 '긍휼의 집', 구 시가지의 동북쪽에 위치, 성전 뒤쪽
양 시장이라는 말,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양(1:29),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다.
1절 명절 이름은 모른다. 양 언급, 유월절, 중요한 점: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목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 이 사건은 5장 24절을 보여 주는 것
ESV, NIV 같은 현대 역본들은 3절 후반부와 4절을 삭제함, 어떤 사본들은 괄호 내 구절이 없음
그러나 7절의 증언을 보면 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함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어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왜 그 장소에
앉아 있겠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갈 것이다. 더욱이 거기에는 주랑이 5개나
있어서 수많은 병자들이 기적을 바라고 있다. 그들은 무언가 특이한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성경들이 삭제한 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삭제함
어떤 사람들이 거기 있는가? 3절, 우리는 죄가 이루어낸 황폐한 결과들을 보고 있다.
이사야서 35장 3-6절은 메시아가 하시는 일 기록,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
3년 반 공생애를 통해 우리 주님은 메시아 기적들을 수도 없이 일으키지만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멀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성경 기록을 알아도 눈에 가려짐, 오늘부터 종교와의 갈등

구원과 성화

어떤 식으로 이 기사를 해석해도 결론은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직 이 사람만 고쳐 주셨다.
이 사람은 아무 감사도 없이 떠났지만 14-15절을 보면 다시 그를 만나서 병을 고쳐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는 믿고 순종하였다(9).
예수님은 사람을 다 아신다(6; 2:23-24). 이미 그 사람을 아신다. 우리를 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분을 만나는 것이다(시139:2-4).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사람을 찾아서 오신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듯
우리가 구원받는 것: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정조준 하셔서 구원받는 것이다.
요4:46-54의 정부 관리와 그의 아들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예수님은 대단히 이상한 질문을 하신다(6).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차가 고장 나서 고치는 사람, "차가 고장 났나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라 "낫고 싶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이상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신다. 인간에게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려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구원받은 분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그의 대답 또한 이상하다: "당연합니다. 고침을 받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이상한 변명(7)
너무나 오래 병을 앓다 보니 몸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병이 들어 의지가 약화됨
우리 주님의 질문과 40절을 연결해 보라. 깊은 뜻이 있다. 즉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 한다.
그의 대답과 상관없이 그를 고쳐 주신다. 그의 비참한 상태를 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고치시는가? 말씀을 통해(8), 그런데 그보고 하라는 것은 그가 할 수 없는 일, 믿기지 않는 일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요7:37-38). 그는 순종하고 걸어갔다(9).
그런데 그분의 명령에는 성취의 권능이 들어 있다(히4:12).
그러자 즉시 기적이 일어나고 그 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됨(9)
오늘 우리 가운데 악한 병을 앓는 사람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실 때 믿습니다 하고

걷기를 바란다.

특히 암으로 고생하는 세 자매님들,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시험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발을 내디뎌야 한다.

예수님의 병 고침은 즉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곧 우리의 죄 병 치료 예표, 구원이다.

그 날은 안식일(9), 소동을 피하기 위해 주님은 자리를 뜨심(13)

주님은 다른 날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 안식일에 하심, 9장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종교인들과 싸우는 일이 시작됨

사람이 만든 율법의 전통: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 39개, 그중 하나 짐을 나르는 것(10)

38년 된 병자가 나았으면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병 고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오히려 전통을 들어가며 그 사람을 꾸짖는다(10). 바로 이것이 완악한 사람들의 문제, 우리는 어떤가?

이 사건을 보면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는 심지어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른다(11, 13).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갔을 것이다(14).

예수님을 만난 뒤 가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고함(15).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대적 시작함

요한이 이 기적을 기록한 이유: 예수님의 완벽한 지식, 불쌍히 여기는 긍휼, 주권적인 권능, 영광 병자의 병 고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동일함을 보여 주려함.

지금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주님과 대화한다. 우리의 사정을 알린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을 얻는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분만 믿는다.

주님의 권고

13절을 보자. 수많은 사람들, 거기 머무셨으면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주목적이 아니었다.

14절은 그 사람을 고친 이유를 보여 준다. 병의 치료만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네 병과 함께 동시에 네 혼을 고쳐 주었다. 거저 선물을 주었다. 네가 돈 내고 얻는 것이 아니다. 착해서 아니다. 내 은혜와 긍휼은 너의 구원과 성화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라.

고전6:12, 19-20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더 악한 것, 심한 것이 생긴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아버지 아내를 범하는 일, 마귀에게 내어 줌(5:5)

구원받아도 죽을 수 있고 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고전 10장 4-11

결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 소망이 있어야 구원받고 성화될 수 있다.

병에서 어려움에서 나을 수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병 고침의 파워 이것이 곧 부활의 파워이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아픔, 신2:14, 가데스바네아에서 거역 후 38년 동안 유랑 생활
반역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려는 의도, 즉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불구자, 이제 무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다.

이 사람의 상태는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인다.

부활 파워를 맛보게 하셨다.

수많은 병자들, 딱 한 사람, 그것도 그가 그분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는 지를 짓지 말라.
예수님의 초림: 일부만 치료를 받았다.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맛보게 하셨다.
모든 사람이 병과 연약함에서 완전히 구출되는 것은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도 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 확실한 것: 주님의 재림 전에는 어떤 이유로든 죽는다.
일부는 병 고침을 받는다. 그러나 온 세상 창조물이 신음하는 이 기간에는 병 고침이 예외적인 것이다.
반드시 100%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이 죽을 몸에서 벗어난다. 그것을 맛보라고 이 기사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16 요한복음: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성경말씀: 요5:16-18

오늘 2020년 첫 주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다.

2019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특히 국가적으로 사회주의 재앙이 닥쳤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으로 나라 유지, 큰 감사

하나님께서 2020년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실 줄로 믿는다. 간절히 기도하자.

또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모든 문제 합당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는다. 간절히 기도하자.

새해 첫 예배, 여러분도 기대하고 나옴, 나도 고민, 육신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복을 받으며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 일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는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모두 해야 한다. 그것이 나, 가정, 국가를 살리는 길, 〈 〉

안식일 문제

4장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가 5장 다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심

이번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한 병자, 38년 동안 병을 앓는 병자를 고치심, 8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육신의 병을 고친 것, 또한 죄 병의 고침, 구원

예수님은 성화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심(14)

말씀드린 대로 5장부터 예수님은 드디어 유대인들의 종교 시스템과 싸우기 시작함

종교는 사람을 죽인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의 길이다.

1500년 전에 율법이 수여됨, 사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됨

<u>마15:2-3, 7-9</u>, 유대교 자체가 사람들에게 헛되이 경배하는 것을 가르침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침, 아마도 병자는 너무 기뻐서 주랑에서 뛰어다니며 하나님 찬양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보라(10), 이것은 마귀의 자식들의 반응, 같이 감사해야 하지 않나?(롬12:15)

율법 자구에 매여서 자기들의 전통에 매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u>막2:27-28</u>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u>마9:12-13</u>

오늘 우리는 이 원리를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의식과 제도, 규칙보다 먼저 주님의 마음

이것이 없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게 된다(16).

유대인들의 치리 기관 산헤드린 공회는 새로운 랍비의 새로운 가르침에 신경을 쓴다. 침례자 요한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안식일을 범함(눅4:31-37; 마12:1-8; 12:9-14; 요5).

이들의 문제: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법과 제도의 감옥으로 만듦

예수님의 응답(17-18), <u>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u>.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모든 것이 보기 좋음, 하나님이 안식하심(창2:1-3), 창조의 안식

그런데 창3장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함,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로 쉬지 않고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심, 당연히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심

예수님의 말씀: 내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끝마치는 것(요4:34), 구원 사역

더 큰 문제: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18),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하는 것

유대인들의 아들 용례;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다. 하나님의 아들(신성), 사람의 아들(인성), 위로의 아들(행4:36), 멸망의 아들(요17:12)

그러므로 이것은 한 마디로 신성모독, 그것도 극심한 신성모독 사형 받을 죄

이때부터 종교인들의 핍박 시작, 이유 없이 그분을 미워함, 결국 십자가

그러면 그분은 왜 동등함을 주장했을까? 아버지와 동등하시므로

그분은 하나님(요1:1-3),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요20:30-31; 요일5:20)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함을 어떻게 아는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죽음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

아버지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한다(17)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17). 그러므로 우리도 일해야 한다.

사람은 일하는 존재로 태어났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므로 일해야 한다.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사람이 일하는 것을 기록함(창2:15, 3:19).

유대인들의 특징: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음, 자기 직업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 교육

조선시대의 패망: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기고 쓸데없는 탁상공론, 사농공상, 상공농사가 되어야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히11장을 보라.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모두 부지런히 일함

잠언은 유대인들의 생활 지침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교훈 중 하나: 일해야 한다. 잠6:6-11, 전9:10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처럼 열성으로 부지런하게 완벽하게 해야 한다.

1. 인간으로 기본이 되는 의식주 해결을 위한 일, 특히 가장은 땀 흘리고 수고하여 가정 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내 인생과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2. 학생들(잠22:29), 꼭 고관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일든지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게 해야 한다. 이것이 성공하는 길,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휴대폰 등 집어치우고 concentration 몰입해서 일하는 것 배워야 한다.
3. 우리는 이것 이상을 해야 한다, 주님이 맡겨 주신 일이 있다. 온 세상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우리 주님의 대위임의 말씀, 먼저 공부하고 알아야 전하지 않겠는가? 알고 전하자.
4.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점검하며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쉬지 않고 성화의 길을 걷는 것, 어쩌면 가장 힘든 일, 핵심 온전한 가정생활,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한다.

2020년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신실하게 일할 때에 삼위일체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한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끝마치는 것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야 한다(요4:34).

17 요한복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성경말씀: 요5:19-30

2020년 셋째 주가 되었다. 첫째 주,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 우리도 열심히 바른 일 해야 한다. 지난 주 기도하는 한 해가 되자. 국가의 병, 개인의 병 어려움 간구하며 나가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가장 큰 일 구원, 영원한 구원,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 〉

예수님의 주장(19-23):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여 동일한 일을 한다.

1.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본 것 그것만 그대로 한다(19). 아버지의 마음, 안식일에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 눅13:11-17, 안식일에 십팔 년 동안 병든 여인을 고침, 지도자들 화를 냄(14), 15-16, 병자를 고치는 것은 선한 일이며 아버지의 일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10:30). 그래서 나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는 병자를 고쳤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 100% 하나님의 일, 이것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2. 이제 나는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20). 이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므로
   침례 받을 때 아버지의 말: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종교 지도자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므로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놀랄 뿐이다
3. 어떤 일들인가?
   a. 아버지처럼 아들도 죽은 자들을 일으킨다(21). 자기기 기뻐하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 신성모독
   유대인들의 생각: 1.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눈과 비, 2. 태를 여셔서 아이들을 출산, 3. 무덤을 여셔서 죽은 자들 일으킴,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주장, (*) 아직 사람들을 일으키지 않음
   21절의 일으키는 것은 1차적으로 죽은 몸을 일으키는 것(과거의 엘리야 등)
   그러나 2차적으로 영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것(24-29절이 이를 설명함),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으면 예수님께 간구하라. 그분이 살린다.
   b.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게 존귀하다(23). 아버지가 심판자라면 당연히 공경해야 함. 그런데 아들도 심판자이므로 너희는 아들도 동일하게 공경해야 한다. <u>우리는 아들을 공경하는가?</u>

사람 편에서 그 일 중에 가장 큰 일(24-26):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살린다

오늘의 핵심 절 24절

1. 성경을 읽으며, '진실로 진실로'가 나오면 매우 중요한 말, 25회 모두 요한복음에만(1:51-21:18)
2.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3. 내 말을 듣는 자: 누구나 말을 듣는다. 그러나 여기는 주의 깊게 살펴서 듣는 사람(사6:9-10)
   무슨 말: '진실로 진실로' 중에서 몇 가지만
   a.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8:34). 죄와 함께 멸망한다.
   b. 다시 태어나야 한다(요3:3, 5)
   c.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6:47)
   d.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한다(5:25)
   e.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롬10:17).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4.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따로 믿으라는 말이 아니다.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히11:6)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 창조자, 구원자, 역사의 주관자, 재림자, 심판자
   연약한 우리, 죄 많은 우리가 이분을 신뢰하면 구원을 받는다.
5.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다. 이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면 산다.
6.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죄 처리와 상관이 있다. a. 죄의 형벌(과거)에서 구원받는 것, b. 죄의 권능(현재)에서 구원받는 것, c, 죄의 존래(미래)로부터 구원받는 것
7.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여기의 정죄는 둘째 사망의 정죄, 지옥불의 정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다. 죄의 형벌에서 완전히(롬8:1)
8. 그 결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다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is passed."라는

말은 이미 완료가 된 것 표현,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 악을 범하는 면허, 안 된다."
반대 주장하는 사람들,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구원받았어도 유지하지 못하면 지옥
성경 번역, "...옮겨지고 있다로 해 달라."
빌2:12,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벧전2: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
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겔18:24, 아니다
죄의 정죄로부터의 구원은 완전히 끝났다. 봉인되었다(엡4:30).
이제 남은 것은 죄의 파워로부터 구원받는 것, 성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4:13)

9. 나는 지금 그 말을 전하고 있다(25). 여러분도 나도 듣고 깨닫고 구원받아야 한다.

나는 심판하는 존재이다(27-30)

1. 나는 아버지가 심판하듯이 심판할 수 있다(22). 유대인들 경악: 심판자는 아버지 하나님
2. 심판이란 무엇인가? 재판이란 말이다. 재판은 옳고 그른 것을 가르는 일
3. 신자 불신자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는지 창조자가 판단할 때가 있다.
4. 이것은 영원한 심판, 언제 일어나는가? 부활하는 때
5. 신자 불신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 불멸한다. 신자도 부활(첫째 부활), 불신자도 부활(둘째 부활)
그러나 한 번에 부활하는 것 아니다.
6.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에, 7년 대환난기 전에,
살전416-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휴거
됨, 그리스도의 심판석, 행위에 대한 심판
7. 둘째 부활은 정죄의 부활,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1000년 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계20:11-15), 두 부활 사이에는 적어도 1000년의 기간이 있다.
8. 예수님은 이 모든 심판의 주관자(행17:30-31)

내일 초청 기도

1.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2. 그분의 복음을 들었는가? 3. 믿었는가? 4. 믿었으면 5:24를 확신하는가?
5. 모른다.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구원받기 원하면 마음속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바란다.

1日 요한복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말씀: 요5:31-47

요한복음 강해,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 여러분도 같은 은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환자 고침,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난 주 예수님이 하시는 일: 1. 아버지가 하시는 일만 그대로 한다(19). 2. 나는 병자 고치는 엇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20).

a. 아버지처럼 아들도 죽은 자들을 일으킨다(21).

b. 나는 심판한다. 아버지께서 심판할 권위를 주셨다(22, 30).

c. 나는 구원을 준다. 영원한 구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24).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들을 입증할 증인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여러 증인 〈 〉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따르는 사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아는가? 확실히 아는가? 그분을 정확히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의 증인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말: 증인 혹은 증거 위트니스 21회

예수님 자신이 증인(31), 그러나 다른 증인이 필요하다. 다른 세 증인을 말함(신17:6; 고후13:1)

1. 침례자 요한(30-35)

그는 진리에 대해 증언함(33), 그들이 잠시 기뻐함(35), 그리고는 배척함

예수님이 주님임을 증언함(1:23), 하나님의 어린양(1:19, 36), 하나님의 아들(1:34)

그래서 자기는 쇠하고 그분은 흥하셔야 한다(3:30).

2.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 기적과 표적들(36), 심지어 니고데모도 기적들 때문에 주님 앞에 옴(3:2)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 7개를 기술함. 목적(요20:30-31)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원천이 아버지 하나님(5:17-20)

예수님 말고도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바울 등 기적을 행함

많은 경우 이런 기적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증언함(히2:3-4).

그러나 아무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음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한다고 말함(36)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땅에서 끝마쳤다(요17:4).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마침

3.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37-47)

아버지가 나에 대해 증언한다(37). 구체적으로는 아버지의 기록된 말씀이(38)

유대인들 기록된 말씀 존중히 여김, 특히 모세오경,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봄

구약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수도 없이 말한다.

One for Israel: 이사야서 53장을 보고 돌아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존하고 후대로 넘겨주는 일을 한 당사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함

이유; 말씀이 마음속에서 믿음을 생성하게 하지 못함(5:38), 말씀이 믿음과 섞이지 않음(히4:2)

예를 들어 서기관들, 말씀을 손으로 필사함, 수십 차례, 그 안의 글자 수 등을 셈

그러나 그 본문이 말하는 의미에는 관심이 없음

지금까지 1500회 이상 설교, 강해, 그런데도 이메일 보내거나 덧글 쓰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너무 한심함. 듣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음. 자기들의 기존 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함

유대인 지도자들, 제사장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 박사들

무수히 성경을 봄, 침례자 요한의 증언을 들음,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고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음

사실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을 믿어야 하는데 믿을 의지가 없음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42),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랑하지 않음

예수님의 말씀(5:23) 5:44,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의 말로: 참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으므로 그들의 후손들은 나중에 거짓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43). 성경은 그를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단9:27, 7년 환난기, 유대인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임, 후반부 3년 반, 자기를 드러냄(살후2:2). 1948년 이스라엘 회복, 지금의 영적 상태, 최악의 상태, 결국 적그리스도를 환영한다.

교훈: 사람이 명백한 진리를 거부하면 결국 거짓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14:6), 진

예수님의 최종 증언(45-47)

최종 심판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소한다(45).

즉 그들이 그토록 중히 여기던 모세의 글 즉 모세오경이 그들을 고소한다(46-47).

즉 모세는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이다.

유대인들: 모세가 기록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지고 잇는 것과 마음속으로 믿고 확신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1;14). 기록된 말씀은 성육신 하신 말씀을 증언하다(눅24:27).

침례자 요한, 예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말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언한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다. 잘못된 전통들을 부수려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대다수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고집하다가 그분을 죽임

우리는 어떤가? 혹시 우리의 철옹성은 없지 않은가?

왜 성경을 읽는가(39)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야 한다.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

목적: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세상 지식 교훈, 지혜 Yes, 그러나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

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책

우리에게는 기적과 표적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다

베드로의 말(벧후1:16-19),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

이 세상의 창조자, 이 세상의 구원자, 이 세상의 심판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

죽으신 뒤 사흘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 정죄의 부활을 주시는 분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분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셔서 천년왕국에서 온 세상을 철장 권세로 치리하실 분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해 주신 분

지난 72년 동안 가난을 이기고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게 인도해 주신 분

지금 이 시간 국가 때문에 고통 받으며 간절히 호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

지금 이 땅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땅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 주실 분

북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북한의 2500만 동도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분

성경과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

이분을 아십니까? 믿습니까? 5:24

19 요한복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성경말씀: 요14:1-3

금요일, 존 파이퍼,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거의 끝날 때가 되었다. 많은 것을 배운다. 지난 금요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기가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자기 목숨도 희생하였다. 나도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요한복음 강해 순서를 바꾸었다. 원래 6장, 그러나 14장으로

이유: 지난 5개월 이상 코로나 19로 영육이 피폐함, 설상가상으로 좌파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틀을 깨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를 파멸 상태로 이끔. 정말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기쁨이 없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 시장이 자살을 했다. 법에 따라 변사체는 반드시 시체 부검을 하고 원인 등을 가려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노무현, 노회찬 등 좌익 인사들은 국면 전환을 위해 자살이라는 무리수를 택한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자살이 미화될 수 있고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자살로 끝내면 된다는 나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여하튼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좌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있고 위선과 속임수의 선전 선동으로 무지한 국민들을 낭떠러지로 이끄는 데 있다.

이것은 사회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계의 목사들에게도 해당된다. 성경의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야 한다. 진화론,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 등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 되었다. 이러다 보니 국가 정책 입안자들도 교회를 대놓고 무시한다. 7월 8일 정부 공지: 교회의 공예배 제외하고는 모든 소모임을 갖지 말고 교회 안에서 식사하지 말며 QR 코드를 사용해서 예배 참석자 명단을 제시하라.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어느 분, 정세균 총리실 전화, 공무원들은 소모임 안 갖느냐? 구내식당에서 식사 안 하느냐? QR 코드 사용해서 출퇴근 명부 작성하느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가? 좌익들은 기독교 무시하고 밀어붙인다.

이런 괴이한 일들이 지난 3년 이상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땅에서 계속 생기다 보니 정말로 마음이 무겁고 스트레스가 쌓인다. 기쁨이 없다.

나 개인의 경우, 지난 5년간 성경 교정, 끝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계속해서 일이 생긴다. 손을 놓지 못한다. 한 글자라도 틀리지 않게 하려다 보니 큰 스트레스, 건강 문제, 가정 돌보는 문제, 교회를 돌보는 문제 등이 생긴다. 요즘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버거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요14장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쁨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배경 설명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시리라 믿고 열심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함, 그런데 3년쯤 지나면서 자기들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마16장,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16:18). 그리고는 21절,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을 예비하기 시작함, 제자들의 눈에도 이것이 확연하게 보임

그러다가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 행사,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심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 요13:36

베드로의 대답 13:37

아마 당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이다.

삶의 소망, 목표가 사라졌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모든 기쁨이 다 사라졌다.

지금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이 제자들과 비교하면 아직은 견딜 만하다.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 요13:38

베드로 등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다 사라지고 근심만 남았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신다. 이 소식은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소식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1)

이 고통의 때에 우리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하신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파이퍼의 정의: 믿음의 대상을 기뻐하며 끌어안는 것
고통과 핍박과 환난의 때에 해야 할 일: 믿음을 점검하는 것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는가?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깨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음식을 먹는다. 믿음의 문제, 엘리베이터, 자동차 혹은 전철, 일자리, 책상
사물에 대한 이런 믿음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 믿음의 대상이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있다. 자기의 주변 환경, 지위, 학식, 재산 등을 믿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것은 다 없어지는 것
서울 시장, 부산 시장, 충남 지사, 미투 사건 보지 않느냐, 이런 것, 지위 명예 믿으면 안 된다. 너희 눈으로 보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어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1. 창조자 하나님, 우주와 땅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 분, 파워의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시는 분
2.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느부갓네살, 네로,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시진핑, 이승만, 박정희, 조지 워싱턴, 윈스턴 처칠, 레이건, 트럼프 등 모두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악한 통치자들이 수두룩하다. 심지어 나라를 잃고 다른 땅으로 포로생활 가기도 한다.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기도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세우신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이승만 박정희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유 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흥왕, 분명히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본분을 잃고 번영신학 같은 바알 숭배에 빠지니 좌익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 파되, 법치 파괴, 교회 핍박이 생긴다.

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절규: 힘듭니다. 살기가 어렵습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자꾸 땅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 잠시 후면 다 없어진다. 이런 환난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이 환난의 때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라.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아라. 이 땅은 잠시 후에 없어짐을 깨닫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어라.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 최선을 다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되 여기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 기억하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믿음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다른 데로 간다고 하니까 너희가 크게 실망하고 기쁨을 다 잃고 근심하고 있는데(13:36) 실은 이것이 너희 모두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겠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결혼식 풍습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설명해 주신다.
21세기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혼 풍습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들어서 자신의 약속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유대인들의 결혼에서 첫 단계는 보통 정혼이라 불리며 정혼은 결혼 계약을 확립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결혼 계약은 신랑 될 사람이 주도해서 시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랑이 될 사람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가 될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신부의 아버지와 협상을 벌여 얼마의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돈을 내고 신부를 사야만 했습니다. 신랑이 동의하고 지참금을 지불하면 결혼 계약이 확립되고 이제 처녀와 총각은 아내와 남편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그 순간부터 처녀는 자기의 남편만을 위해 구분된 존재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혼 계약이 확립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신랑과 신부는 잔에 담긴 포도즙을 함께 마십니다.

이와 같이 결혼 계약이 확립되면 신랑은 신부의 집을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신부와 떨어져서 약 1년 정도를 지냅니다. 이 기간에 신부는 결혼 생활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며 신랑은 신부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기 위해 아버지 집에 붙여서 자기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거할 곳'으로 번역된 맨션이 바로 이런 처소입니다.

신부와 떨어져서 약 1년 정도를 보낸 뒤 신랑은 자기와 함께 살기 위해 신부를 데려와야 합니다. 대개 신부를 데려오는 일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와 또 다른 동행자들은 신랑의 집을 떠나 횃불을 들고 행진하며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이들은 가면서 "보라, 신랑이 온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이 소식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거리에서 거리로 신부에게 곧 전달됩니다.

신부는 자기 남편이 온다는 것을 늘 기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언제 정확히 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신부는 곧바로 자기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자기 친구들에게도 같이 가기 위해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신랑과 그의 동행자들이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을 만난 이후에 이들은 다 같이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거기에는 결혼식에 참석할 하객들이 이미 모여서 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도착하자마자 결혼식 준비 위원들은 혼인 방이라 불리는 방으로 이들을 데려갑니다. 이 방에 들어가기까지 신부는 베일로 얼굴을 가려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신랑의 친구들과 신부의 친구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신랑과 신부는 단 둘이 그 방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들은 처음으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면서 약 1년 전에 결혼 계약으로 확립한 결혼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결혼이 완성된 후에 신랑은 혼인 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결혼식 준비 위원들에게 자기들의 결혼이 완성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러면 이들은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한 몸이 되었다는 소식을 하객들에게 알리고 이 소식을 접한 하객들은 7일 동안 연회를 베풀며 기뻐합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연회가 열릴 때에 신부는 혼인 방에 머무르며 결코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7일이 다 끝나면 드디어 신랑이 혼인 방에서 신부를 데리고 나와 그녀의 얼굴에서 베일을 벗겨 모든 사람이 신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설명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풍습을 잘 이해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시려 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베소서 5장에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의 신부라 부릅니다(엡5:22-33).

유대인 신랑이 결혼을 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신부의 집까지 여행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주도적으로 약 2000년 전에 하늘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 있는 이 땅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초림이다.

유대인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결혼 계약을 확립함으로 신부를 얻은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계약 즉 언약을 확립함으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얻고자 했습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온다."는 약속을 하던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바꾸어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마26:27-28을 보면 그분께서는 포도즙이 담긴 잔을 집고 감사를 드리신 뒤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곧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의 신부인 교회와

새로운 결혼 언약을 세우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상속 언약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분은 신약시대를 여셨습니다.

유대인 신랑은 자기의 신부를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분께서 지불하신 결혼 지참금은 자신의 생명이 담긴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에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殿)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 얻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결혼 언약이 확립되면 유대인 신부가 오직 자기의 신랑만을 위해 구별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었듯이 주님의 신부인 교회 역시 새 언약을 통해 구분되어 오직 주님만을 위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엡5:25-27; 고전1:2; 6:11; 히10:10; 13:12).

유대인 신랑이 결혼 계약을 맺은 뒤 계약이 확립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잔을 취해 신부와 함께 포도즙을 마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확립하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주의 만찬의 잔을 취해 포도즙을 마십니다.

유대인 신랑이 결혼 계약을 확립한 뒤 신부의 집을 떠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확립하시고 부활하신 뒤 신부가 사는 땅을 뒤로하고 자기의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되돌아가셨습니다(요6:62; 20:17). [초림과 재림 강조]

유대인 신랑과 신부 사이에 결혼 계약이 확립된 이후에 서로 일정 기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도 지난 2000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신랑과 떨어져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동안 유대인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데려다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기 처소를 마련해야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신부인 교회와 떨어져 있는 동안 하늘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신부와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요14:2).

이렇게 떨어져 사는 기간이 다 지난 뒤 유대인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고 자기 집을 떠나 다시 신부에게 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신부인 교회와 따로 거하는 기간이 다 차게 되면 교회에게로 다시 와서 자기가 마련한 하늘의 처소로 교회를 데려갈 것입니다(요14:3).

유대인 신부가 자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역시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지 모릅니다. 유대인 신부에게 언제라도 신랑이 임할 수 있었듯이 우리 예수님도 언제든지 교회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 신부가 신랑을 만난 뒤 자기 집을 떠나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간 것처럼 교회 역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 휴거를 받은 뒤 그분과 함께 그분의 아버지 집으로 갈 것입니다(살전 4:17; 요14:2-3).

유대인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어 이미 오래 전에 확립했던 결혼 계약을 완성한 것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도 신랑의 아버지 집이 있는 하늘에 도착해서 영적으로 한 몸이 되어 이미 오래 전에 그리스도께서 확립하신 새 언약에 근거한 특별 관계를 완성할 것입니다.

유대인 신부가 신랑의 아버지 집에 도착한 뒤 7일 동안 혼인 방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고 다른 이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역시 신랑의 아버지 집에 도착한 뒤 7년 동안 자기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7년 동안 땅에서는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에 교회는 하늘에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인 신랑이 7일이 지난 뒤 신부를 혼인 방에서 데리고 나와 그녀의 얼굴에서 베일을 벗기고 모두에게 그녀를 공개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7년 환난기가 지나면 자신의 신부를 하늘에서 데리고 나와 함께 땅에 강림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부를 공개할 것입니다(골3:4).

배울 점

그 밤은 12제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밤이었다. 기쁨이 다 사라졌다. 근심만 남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 계획을 말해 주겠다.

너희 모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정혼 뒤 신랑이 집으로 갔다가 다시 와야 결혼이 마무리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랑인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처소를 만들고 다시 오는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 너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다시 말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뒤 승천했다가 처소를 만들고 다시 와야 신부인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신랑이 떠나 있는 동안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며 여기서 하루하루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말해 주마. 이 땅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기뻐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16:33).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았다. 믿음 생활 했다. 배가 고파서 육적인 고통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였다. 그런데 육의 문제가 해결되니 이제 영의 문제가 오고 있다. 왜? 주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듣도 보도 못한 좌익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며 심지어 신앙 영역까지 간섭하면서 우리의 영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래서 기쁨이 없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영적 스트레스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추세를 바꾸기가 힘들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오는 확고한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

빌4:4-7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

구원받은 분들, 이렇게 다가오는 환난이 우리의 몫임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싸우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기쁨의 생활을 누려야 한다. 이곳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 성령님을 주셨다. 그분이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부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언제라도 나타나실 신랑 예수님을 고대하며 신실하게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하늘에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ᵈ 요한복음: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 어떤 하님을 믿는가?

성경말씀: 요6:1-14

오늘 요한복음 20번째 강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달리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시간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적은 것이다. 특별히 모든 성경 기록이 기록된 이후에 신약성경을 마감하면서 그분의 생애를 요약한 것이다. 요20:30-31, 21:25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 극심한 고난, 메시아 기대, 침례자 요한의 등장, 메시아 소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들을 행하심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특히 종교인들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아야 한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함

니모데모 같은 바리새인 랍비도 그분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와서 진리를 확인하려 함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 1500년 동안 내려온 율법과 전통은 그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하늘을 향해 눈이 열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통곡의 벽 앞에서 2000년 전 자기 조상들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

천주교 정교회 등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곳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안식일 준수이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안식일 준수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 함,

그들은 듣지 않음. 요5장에는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 있는 병자를 고치는 기적

1.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함을 보임(5:17-18).
2. 아들이 하는 일을 알림(24-25).
3. 구약성경은 무엇인가? 나에 대한 증인이다(39).
4. 모세의 책들을 믿는 사람만 나를 믿을 수 있다(46). 우리는 성경의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함

그런데 요6장에는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의 다수가 그분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기록됨

1-14: 오병이어 기적, 15-29, 그분을 붙잡아 왕을 삼으려 함,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함

30-71: 기적과 표적의 의미, 나는 하늘에서 온 빵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므로 그분을 떠남, 제자들이 분리됨

오늘은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 정말 가능한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사람들이 몰려든 원인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떠난 원인이기도 하다. 그들이 떠난 이유: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가? 생각해 볼 것;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

오병이어 사건 개요

오병이어 기적은 너무나 중요해서 4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마14, 막6, 눅9).

스필전: 왜 4복음서에 기록?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것이 됨을 보여 주기 위해

이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을 거둔 결과로 생긴 문제를 푼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함

심지어 제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함(막6:30-31), 미어터지는 문제

그래서 쉬려고 배를 타고 갈릴릴 바다 건너편의 벳새다 언덕으로 감(요6:1; 눅9:10)

벳새다는 요르단 강이 갈릴리 호수로 물을 대는 곳,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요1:44)

그런데 문제가 발생함

그쪽으로 배가 가는 것을 보고 여러 도시에서 나온 사람들이 걸어서 거기로 몰려옴(막6:33; 요6:2)

주님의 말씀(막6:34),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짐, 5000명 대중(2만 명)

주님은 그날 온종일 말씀 선포,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 많은 사람들 감화 감동

정말로 그날은 대단한 날이었다.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군중 모두 피곤하였다.

3절: 제자들을 데리고 조금 높은 곳으로 가셔서 앉으심

문제 발생: 어떻게 이들을 먹일 것인가?(5)

주님은 문제의 해결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6) 제자들의 영적인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려고 질문을 하심(6)

제자들의 반응에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

1-14절 요약

1. 사람들의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육적 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필요
2. 주님의 사람들이라 해도 자기들 힘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
3.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
4.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이 가져온 부족한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신다.

해결책

어떻게 오천 명의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포함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가? 네 가지 방법 제시됨.

1. 이들을 굶겨서 그들의 집으로 보낸다(막6:35-36). "나 몰라라 하는 것"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대답, 본능적인 대답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기진해서 쓰러질 것을 아셨다.

또한 때는 저녁이라 다른 데로 갈 수 없었다(마14:15).

교회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 쉽게 보이지만 무성의함

이유: 불신, 자기의 존재 이유를 몰라서,

교회/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성의 있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함

2. 주님은 이들을 시험하심(5), 이에 빌립이 즉각 대답함

돈을 모아서 빵을 사자. 계산해 보니 적어도 200 데나리온(7)

데나리온 남자의 하루 일당, 10만원, 2,000만원, 1000원짜리 빵 하나씩

그런데 이것으로도 무리들의 필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마14:21).

돈은 많은 문제를 풀지만 모든 문제를 풀지는 못한다.

이 경우 돈이 있다 해도 어떻게 그 많은 빵을 구하는가?

주님의 요점: 빌립의 믿음 시험

빌립은 계산기에 의존하는 사람, 많은 경우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경우 주님의 일은 계산에 의해서 되지만은 않는다.

서창 예배당 건축,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

특히 빌립은 외적인 증거들을 요청한다(요14:7-8).

삼상 17장의 다윗의 경우를 보라. 골리앗의 키는 2.5-3미터, 자기는 1.5미터

다윗은 계산에 의해서는 도무지 그를 이길 수가 없었다.

인생에서 이런 때가 있다. 이런 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

3. 안드레의 방법(9): 그는 빌립보다 나았다.

방법을 찾기 위해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소년을 발견함

안드레의 특징: 누군가를 주님께 데려오는 사람, 요1:40-42, 베드로, 12:20-22, 그리스 사람들,

그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람, 결국 그의 제안을 통해 주님이 일하셨다.

그는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확신을 갖지는 못하였다(9). 이것 또한 우리의 모습

4. 주님의 방법, 완벽한 방법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하신 뒤 축복 기도 하시고 빵과 고기 배급(10-11)

<u>그분의 손에서 빵과 고기가 불어남.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u>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봄, 가장 위대한 기적, 그래서 4복음서에 기록됨

아마 처음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이런 기적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조각들을 나누어 주는 기쁨을 소유하였다.

그 소년의 도시락은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향유만큼이나 값진 것이었다. 300데나리온

제자들의 문제, 우리의 문제

보내라. 계산해 보자. 있는데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생각 요약: 오병이어, 어떻게 이것들로 그들을 먹이는가? 불가능

그런 것도 모르냐? 그것은 상식 수준의 일이다.

그런데 주님의 일에는 사람의 상식이 무식과 무지가 될 수 있다.

우리 혹은 기독교는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말씀으로 6일 동안 온 우주를 창조해?

이제 6000년밖에 안 되었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해?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고?

제자들의 판단 착오: 오병어어만 보았다.

자기들과 함께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였다.

2장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즙 기적

5장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환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파워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짐: 바로 이것이 문제, 우리는 어떤가?

어떤 사람의 말: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위대함에 따라 그대로 행동한다.

부처를 섬기면 부처의 능력, 마리아를 섬기면 마리아

자기를 섬기면 자기의 능력만 믿는다.

골리앗을 본 뒤 다윗의 말(삼상17:45-47)

우리는 어떤 신을 섬기는가?

특별히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크기가 드러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창조의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 기적의 목적

오병이어로 충분히 먹고 조각들을 12바구니에 모으자 사람들의 반응(14)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신18:15), 메시아 표적,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분의 파워를 그대로 믿어야 한다(요5:24-24).

인본주의자들의 반응: 그럴 리가 없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배가 불렀다. 혹은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온 숨겨놓은 도시락을 먹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불신 반응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15절을 보라, 억지로 그분을 데려다가 왕을 삼으려 함

주님의 손에서 빵과 물고기가 불어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함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왕으로 삼자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 기적의 의미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가?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를 드리심(6:11; 23)

의미: 배고픈 자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할 일: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대로 하신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재평가해야 한다. 어떤 하나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다.

또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우리의 자존심, 교만 다 내버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주님께 알리라.
주님의 약속(히13:5-6).

이것이 지금까지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다.

결론

1. 아직 주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아야 한다.
   기독교의 최우선 핵심은 인간의 육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빵만 먹은 사람들은 다 떠나갔다.
2.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이들: 우리를 드려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한다.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큰일을 할 수 있다. 나의 재능, 시간, 열정 등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3. 사역의 성공 이후에도 문제가 온다. 사람들을 먹이는 문제
   지금 식으로는 사람의 영적인 기근을 채워 주는 문제, 암8:11-13

21 요한복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성경말씀: 요6:15-29

지난 주, 예수님의 기적 중 가장 위대한 기적, 오병이어 기적, 2만 여명이 직접 목격하고 체험함

창조 과학회 회장 김영길 박사님, 믿기 전에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믿기가 참으로 힘들었다.

물질 보존의 법칙, 어떻게 빵과 물고기가 계속 늘어나는가? 대단히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

이분이 박사 졸업 후 미국 나사에 취직함, 1000며 명의 직원, 200여 명이 신우회

다 박사들, 과학자들, 아니 이 사람들 정말 이것을 믿나?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서 종지부를 찍는다,

그런데 머리를 들고 이 땅과 우주 위에 계신 분을 보아야 한다.

불신자들: 빅뱅에 의해 생겨났다. 콩알 안에 우주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묻는다: 그 콩알은 어디서 왔는가? 물질 보존의 법칙이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우주 밖에 계신 분을 믿는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무한한 분,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이렇게 물질이 생성되면 그 이후에는 물질과 에너지가 보존된다. 오병이어 역시 창조의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불어나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모았다.

오병이어로 충분히 먹고 조각들을 12바구니에 모으자 사람들의 반응(14)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신18:15), 메시아 표적, 우리는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분의 파워를 그대로 믿어야 한다(요5:24-24).

인본주의자들의 반응: 그럴 리가 없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배가 불렀다. 혹은 사람들이 집에서 가져온 숨겨놓은 도시락을 먹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불신 반응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15절을 보라, 억지로 그분을 데려다가 왕을 삼으려 함

주님의 손에서 빵과 물고기가 불어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함

일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왕으로 삼자.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 무한대로 크신 분

오늘은 15-29절 말씀, 15-21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함, 22-29, 무리들이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를 배우려고 주님께 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보여 주심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의 특성, 혹시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이 부분을 잘 살펴보려 한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심(15-21)

예수님은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심(15).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은 재림 시에 이루어진다.

마귀는 주님의 공생애 시작부터 사람들을 동원하여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한다.

인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시험한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시며 자기를 숨기신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때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일이 잘될 때 때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16절) 벳새다를 떠나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감.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음(17). 큰 바람으로 바다가 출렁임(18).

그들이 25-30 스타디온을 노저어감. 1스타디온은 200미터, 5-6킬로미터를 감.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나타나심(19)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은 마14, 막6장에도 기록된 중요한 일, 왜?

제자들은 요 며칠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왕국의 신비들 설명을 들음, 오병이어 기적, 무리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봄, 마음이 들떴다.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더욱 더 마음이 들떴을 것이다.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도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은? 더욱이 어머니까지 나서서 주님께 간구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이들 앞에 폭풍우가 닥치는가?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의 목적이 있다. 마14:22, 주님께서는 강권해서 그들을 먼저 보냈다.
그대로 두면 기쁨에 빠져 길을 잃을까 봐, 어쩌면 그것이 폭풍우보다 더 큰 위험이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를 만남. 목적: 주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오병이어 기적은 큰 교훈, 그러나 그 기적 이후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폭풍우가 닥침
인생의 폭풍우: 많은 경우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닥친다. 요나의 경우처럼
그런데 어떤 때는 순종하며 큰 성공을 이룬 뒤에도 폭풍우가 온다. 지금처럼
여기의 이 사건 요지:
1. 자만하지 말라. 2.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우시며 구출하심을 보여 준다.
이 사건에는 몇 가지 기적들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다. 중력의 법칙 위배, 잠시이기는 해도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마14:28-32). 예수님은 말씀으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막6:51, 바람이 그치고 뭍에 도달하니 제자들도 놀람, 이유: 빵의 기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물질 보존의 법칙, 바다 위를 걸음, 중력의 법칙 위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가?
바로 이런 분이시기에 믿는다. 우리는 바로 이런 구원자를 믿는다.
이런 분이라야 우리의 죽은 몸을 무덤에서 일으킬 수 있다. 휴거도 가능하다.
우리는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과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그 결과 제자들의 반응: 마13:33,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런 기적을 두 번이나 기록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분을 믿는다.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22-29)

사복음서를 읽으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마음속도 아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님은 연거푸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다음 날: 벳새다에 있던 무리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함(22)
거기에는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갈 때 타고 갔던 배 외에 다른 배는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다. 제자들만 탔다(22).
그런데 가버나움 밑에 있는 디베랴에서 다른 배들이 사람들을 태우고 옴(23)
아마도 이 배들에는 어제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이 타고 있었음
집에 갔다가 궁금해서 다시 그 기적의 장소로 옴.
그들이 와서 보니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으므로 물어서 그분을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감(24)
그들은 그분을 만나서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25)
예수님의 말씀(26-27)
그들의 질문(28)
주님의 말씀(29)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살피려 한다. 혹시 내 일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도.
제자들은 주님을 찾기 위해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고 놀랐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
주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신다(요2:25).
원래 그 무리들이 그분을 따른 이유: 기적 때문임(6:2)
지금 또 몰려온 이유: 빵을 먹고 배부르려고(26).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 인간의 마음

기적들을 보고 끌려서 주님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러나 이 무리들의 관심은 이제 빵을 배불리 먹는 것으로 전락하였다.
기적들은 보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기적, 번영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요6장의 오병이어 기적, 만나와 하늘의 양식 이야기의 핵심(27)
27: 양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몸의 양식), 영존하는 양식(영의 양식)
몸의 양식: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양식: 그것은 다시 태어난 영이다. 이것은 영원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은 먹는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그 생명은 선물이다.
빵은 생명을 유지하지만 이 육신의 생명은 끝이 난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것을 얻어야 한다. 사55:12
내 말을 믿어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신 자다(27).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확인 도장을 찍은 자다.
28: 무리들은 27절의 수고하라는 말을 듣고 잘못 해석하여 그 양식을 받아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줄로 생각함, 그들은 예수님이 그 양식을 주신다. give라는 말을 놓쳤다. give는 gift 즉 선물이다.
유대인들의 왜곡된 교리: 율법주의, 전통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함
그래서 묻는다(28).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느냐? 복수, 그들의 전통들 600개
그러자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이다.
그것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는 것이다(29).
요즘 코로나 19 사태,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 필수적인 모임만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수의 성도들이 거의 매일 교회에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때문에 필수적인 모임에만 갈 수 밖에 없는 실정
그러다 보니 생각하게 된다. 지금까지 내가 하 오던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인가? 내 일인가? 교회나 목사의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맞는다. 그러면 교회도 예배도 불필요하지 않은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한 가지가 필요하다(눅10:41-42).
이 말의 의미: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것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엡2:8-10
선한 행위로 입증되는 믿음: 성경 읽기, 기도, 전도, 헌금, 교제, 애국
그런데 이것들을 과도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 혹은 목사의 일이 된다.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결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물질과 물리적 법칙에 한정된 신을 믿는가?
이런 신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이다.
장치 우리의 모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이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탐구해야 한다.
그러게 탐구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22 요한복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성경말씀: 요6:30-51

요한복음의 핵심: 1.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지난 두 주, 예수님의 기적 중 가장 위대한 오병이어 기적, 물질 보존의 법칙 위배, 바다 위를 걷는 기적, 중력의 법치 위배, 우리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는다.

2.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처음에 사람들은 기적들을 따라서 그분께 왔다. 배불리 먹은 뒤에는 빵을 따라서 그분께 왔다.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오늘도 관심이 또 바뀐다. 특히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자리에서는 대면하는 것을 피하려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댄다.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

빵을 먹으러 왔다가 예수님이 27절 말씀을 하시자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이냐?"고 물음. 우리가 알면 그것들을 하리라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29):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분의 일을 하게 된다. 일을 통해 구원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그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

오늘은 〈 〉를 통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먹여 주신 참된 이유를 설명하려 한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대중의 방향 전환

29절, 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자 무리들은 다른 방향으로 화제를 돌린다.

선생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무슨 표적을 보이려 하십니까?(30)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적어도 모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늘에서 빵을 주어 군중을 먹였습니다(31).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 메시아가 오면 만나의 기적(출16)을 다시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면(29)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야 한다.

유대인들의 고질병: 표적 구하기(고전1:22), 마12:38-39

또 다시 '보면 믿겠다'는 주장, 그러나 보는 것들에 기초한 믿음은 반드시 패망으로 이끈다.
심지어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의 종들도 엄청난 기적들을 행한다(특별히 재림 때 살후2, 계13).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 믿어야 한다.

요6:31은 시78:24,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기록(31절), 아무데서나 인용함

주님의 말씀: 바르게 알아야 한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빵을 주셨다(32, 시78:24).
그러므로 모세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빵을 주신다(32).
과거의 만나는 육적 생명을 위한 물리적 기적, 그러나 그것은 끝났다.
지금 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적인 빵을 주려고 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빵이 무엇인지 말해 준다(33).
세상에 생명을 주는 <u>자니라. 사람이다</u>. 다른 역본들, 주는 것이니라.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의 것은 예표이고 지금 실체가 왔다.

백성의 반응: 그 빵을 주소서(34).
요4장의 수가성 여인, 영원히 솟아나는 물을 부소서, 그러면 내가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군중도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빵을 얻어서 고생하지 않고 사는 것만 추구

주님의 말씀(35), 내가 바로 그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것들(빵, 물질 명예 등)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 일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1. 와야 한다(35), 2. 믿어야 한다(35).
그분을 알고 그분께 오는 것이 곧 믿는 것이요, 믿는 것은 곧 그분께 오는 것이다.
나에게 오면 주리지 않고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다(35).

그러므로 와서 믿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육신의 생명도 빵과 물을 몸속으로 받아들여야 유지된다.

같은 원리이다. 나를 너희 안에 받아들여야 연존하는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의 특징: 일곱 번의 I am. 1. 나는 생명의 빵이다(6:35). 2, 나는 세상의 빛이다(8:12). 3. 나는 양들의 문이다(10:7-9). 4. 나는 선한 목자다(10:11-14); 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26); 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14:6), 7.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15:1,5)

I am.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 하나님의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출3:13-14). I AM THAT I AM.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I AM 즉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하였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요1:1; 20:28의 도마의 대답)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37-40)

37절: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그분께 주신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분께 간다. 그러면 그분은 그를 내쫓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미리 아심), 사람의 책임(그분께 가야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영원한 안전 보장,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분께 주는가(44-45)? 무조건적 예정 아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39), 부활 아버지의 뜻(40), 이보다 명백할 수는 없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구원을 잃을 수 없다(39).

군중의 수군거림(41-42)

예수님의 말씀(41), 군중의 수군거림(41), 육에 속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

41절: 나는 하늘로부터 온 빵: 이것은 그분의 신성을 말한다.

그들의 마음에는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 그분의 형제들, 자매들,

그들이 알지 못한 것: 요셉은 양아버지,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처녀 탄생을 통해 이 땅에 나신 분, 예수, 죄들에서 구원하는 분(마1:21), 임마누엘 하나님(마1:23)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다시 설명하심(43-45)

43: 수군거리지 말라. 다시 설명하겠다.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올 수 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예정, 선택 아니다.

45절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방법 기술, 이것은 사54:13 (혹은 렘31:33-34) 인용

즉 말씀을 들어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을 통해 그분께로 이끄신다.

그러면 죄인은 듣고 배우고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딤후3;16-17).

사람이 할 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와야 한다.

요5장,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동안 아픈 병자 고치는 일

구원의 방법: 예수님을 아는 것, 어떻게 5:38-40

군중은 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듣고 배우고 믿고 오려 하지는 않았다(롬10;17).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46). 본다는 의미 역시 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 몇 사람만 이끄시냐? 무조건적으로 예정된 사람만 이끄시지 않느냐? 아니다.

요12:32,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모두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다. 차별이 없다. 요3:16

만나와 예수님 비교(47-50)

예수님은 실제 빵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 빵이 하는 일보다 더 큰 것을 보여 주신다.

47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과거의 만나는 유대인들에게만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

그것을 먹은 자들 결국은 다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빵이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빵이다(51).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셨다.

만나를 매일 보내는 데는 하나님의 희생이 없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보내는 데는 하나님 편에서 가장 하기 힘든 희생이 있었다.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한다. 그래야 육신 생명 유지, 그러고도 죽는다(49).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 받아들이면 영원한 삶을 산다(50). 영원한 안전 보장

만나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 신비한 빵, 이름: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이다.

만나는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님도 마차가지이다. 죄인들에게, 전적인 은혜

유대인들: 가서 그것을 거두어들여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발에 밟힘

예수님도 마찬가지, 가서 믿음으로 받아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에 밟힘

결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마16:13-17,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영원이 여기에 달려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한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영존하는 생명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와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신다. 부활, 그분은 결코 하나도 잃지 않는다. 영원한 안전 보장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23 요한복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둘로 갈라진다

성경말씀: 요6:52-71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발견하는 것: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 보이는 것, 빵에만 관심이 있다(기복, 번영 복음 추구).

하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세상의 경험, 학식, 전통이 소용없다.

심지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동일하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나 영적 무지와 어둠 속에 있다.

지난 주, 군중들이 몰려와 빵을 달라고 한다.

예수님: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것에 이르는 양식(27)

내가 그것을 준다,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29)

군중들: 당신이 참 대언자라면 하늘에서 왔음을 보여 주는 표적을 보여 주소서(30).

1500년 전에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31).

예수님의 대답: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32).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빵을 주는 자이다(33).

과거에 모세가 준 것은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다. 그것은 메시아가 행할 위대한 일의 예표로 주어졌다.

그것을 먹어도 다 죽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왔다(요1:16).

나는 하늘에서 온 살아 있는 빵이다. 나를 믿고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35). 믿는 자를 일으킨다(39)

군중들의 반응: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하느냐?(42)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은 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진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다수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분을 버리고 떠난다. 오늘 〈 〉,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의 폭탄선언: 그 빵은 곧 내 살이다(51).

내가 주려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려고 하는 내 살이다(51).

6장에는 살이라는 말이 총 7번 더 나온다(51-56까지).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주실 것을 뜻함

요한복음의 주제 중 하나: 대신 속죄, 기독교의 핵심 교리, 엡2:1, 모두가 죽어 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 불가능, 누군가가 대신 해 주어야 한다. 죄 값을 치르고 형벌을 받고 특히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 구약 시대 수많은 짐승들의 죽음, 그러나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들 제거 불가능(히10:4)

완전한 희생 예물 필요: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의 죽음 필요(고후5:17)

그분이 바로 예수님, 대신 속죄,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3:16; 6:51), 자신의 양들을 위해(10:11, 15), 자신의 민족을 위해 (11:50-52), 자기 친구들을 위해(15;12) 대신 죽으신다.

군중들의 논쟁(52-59)

군중들의 반응(52), 어떻게 자기 살을 주느냐? 율법에 따라 불가능함, 피도 먹으면 안 됨

군중들의 실수: 영적인 말씀을 물리적인 것으로 오해함

53절 예수님의 설명: 너희가 빵과 물을 마시면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 몸의 일부가 되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너희가 너희 속으로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53절은 주의 만찬 이야기가 아니다. 주의 만찬은 십자가 처형 전에 있던 일,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63절에서 명확하게 하심, 지금 나는 진짜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진짜 문 아니다. 나는 빛이다. 진짜 빛 아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진짜 나무 아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상징들이 들어 있고 또 주님은 필요한 경우 스스로 해석해 주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54),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이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부활된다,.

그 효과(55-56),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엡2:8-10).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가

나온다. 선한 생명이 들어가서 선한 일을 한다.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가버나움 회당에서(59)

군중들의 반응(60)

백성의 반응(60): 어렵다. 들을 수가 없다 깨닫지 못하겠다. 고전2:14
주님의 말씀의 특징: 사실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해한 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분의 가르침은 두 측면에서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었다.
1.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나는 신성의 존재이다(요셉의 아들...).
2.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그분을 받아들어야 한다).
그들은 이 두 가지에 결려 넘어졌다. 이유: 전통, 영적 무지, 자기 의(롬10:2-3).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 너희가 이 두 가지로 인해 걸려 넘어졌다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62),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40일이 지나자 올리브 산에서 승천하심
주님의 설명(63): 너희더러 진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이 영이다. 말씀이 살린다. 내 말이 살린다.
육은 아무 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과거의 만나가 그런 것이다, 다 먹고 죽었다.
그것은 예표에 불과하다. 예표를 따르지 말라. 실체인 내가 왔다.
과거의 모세, 엘리야 다 훌륭하다. 그러나 그들은 육에 속한 자들, 나에 대해 증언하였을 뿐이다.
그들 자신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 실체인 내가 왔다.
아무리 진짜 살을 먹고 피를 마셔도 구원받지 못한다. 천주교는 여기서 화체설을 차용한다.
천주교의 미사: 사제의 기도로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바뀐다. 불가능, 이런 빵
마우리 먹어도 구원과 무관함
그래서 그것들을 먹음으로써 다시 희생 제사를 드린다. 예수님의 단번 속죄 무시
성경의 판단: 살 즉 육신 안에는 선한 것, 좋은 것이 전혀 없다(롬7:18).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빌3:3).

그러면 어떻게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을까?(63)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63).
어떻게: 말씀이신 분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요1:1, 1:14,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갖는다(요5:24).
이것은 이미 렘31:31-34에 예언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진리의 선포 이후 군중들이 떠난다(64)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64). 너희는 누구인가? 그분의 제자들(66)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며 몸으로 체득하는 사람
12제자 외에 이미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표면적으로).
그중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음(66).
다시 옛 생활로, 육신의 길로, 옛 종교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65절),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신 자들, 예정이 아니다.
45절 , 말씀이 주어지고 강해될 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에 달려 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하신다.
1. 말씀이 육신이 되신다. 2. 아버지가 말씀을 보내신다.
3. 성령님이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신다(요14:26).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야 한다(마4:4).
반드시 말씀들이 보존되어야 한다(시12:6, 마24:35).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 있다.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모든 말씀들을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보존해 주신 성경이라고 믿는다. 믿는다 주관적이다.
동시에 개관적인 데이터가 차고 넘친다.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 있다.

진리의 배타성

예수님만 길이시다(요14:6). 그 길로 다녀야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진리가 선포되자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 길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기독교의 배타성: 예수님만이 진리, 진리는 배타적이다. 그분만이 진리면 다른 것은 비진리다. 이것이 진리의 특성: 이것저것 다 진리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 가능,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양, 완전한 희생 예물
이들이 이렇게 떠나도 주님은 전혀 놀라지 않는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진리에 서는 사람들,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질문(67)
12제자들의 반응(68-69)
베드로와 11제자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말씀,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다,
결론: 그분의 말씀들이 있는데 어디를 가느냐?(68)
참된 성도들의 고백(69), 마16:16 등 요10:36, 19:7, 20:31 등)
이런 고백자들 가운데는 심지어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고백이 참되지 않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70-71).
사람의 속 중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보게 된다.

결론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병이어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그분을 받아들여야 구원 가능
많은 경우 대중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다. 대개 주님의 병 고침, 사람을 살리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
로마 제국, 바빌론 제국 등 고대 제국들의 특징: 빵과 서커스를 국민에게 제공함
그러면 백성은 기뻐하고 순응함, 현 시대도 이와 비슷하다. 특별히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다녔다. 인기가 많았다. 그런데 그분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많이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 이름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살펴보라. 혹시 그들은 병 고침, 번영, 인생의 자랑 등을 위해 모인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특징: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사는 것
지금 이 시대: 적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국민들의 무지로 국가의 대혼란
국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한 분에게 문자, 국가가 부여한 책무가 아무리 커도 낙심하지 말고 영육이 강건한 가운데 잘 이끌고 나가시라.
그분의 문자: 감사합니다. 제가 옳은 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말씀대로 옳은 길, 좁은 길을 가기 위해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는다.

24 요한복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성경말씀: 요7:37-39

지난 4주에 걸쳐서 요6장 강해, 오병이어 기적,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운다.

그런데 대중은 육신의 빵만 원하지 영존하는 생명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다수가 그분을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6:66).

소수의 남은 자들과 그들의 믿음의 고백(68-69)

오늘 7장은 6장의 연속이다. 6장은 빵 이야기, 7장은 물 이야기,

핵심: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 하신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신다.

오늘 〈 〉 왜 생수 이야기,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것의 의미

먼저 문맥을 설명하려 한다.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공적인 테러가 시작됨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함(1).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오심

오늘 이야기의 시작: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다가오고 있다(2). 여기서 힌트가 주어진다.

장막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세 차례 큰 명절을 지키고 남자들은 다 거기 참석해야만 했는데 장막절은 그중 하나였다(신16:16). 장막절은 티쉬리 월 15일(대략적으로 10월 15일)부터 8일간 지켰으며 특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히 구분해서 지켰다(레23:34-43; 느8:14-18). 이 명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레23:42-43).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집의 지붕이나 뜰이나 거리에 나뭇가지 등으로 초막을 만든 데서 유래된 명절. 느헤미야는 그들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올리브 산에서 올리브, 종려나무 등의 가지를 모은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때는 사실 수확물을 거두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때였다. 한편 천년 왕국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모든 민족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 장막절을 지킬 것이며 그리하지 않는 민족들은 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슥14:16-19).

장막절은 작물 수확 후 맞는 즐거움의 절기, 많은 사람이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천년왕국에서도 이방인들도 이 명절을 지킨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장막절의 핵심 행사를 알아야 한다.

랍비들의 증언: 매일 아침 군중들은 헤롯의 성전에 온다.

(*) 두 가지 물품이 필요하다. 하나는 감귤, 하나는 나뭇가지

(*) 왼손에 감귤 같은 것을 가지고(ethlog). 이 과일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상징함

오른손에는 종려나무, 버드나무, 머틀나무 가지들 장식(lulab): 조상들이 광야 생활 할 때의 세 단계

매일 백성이 성전으로 오는데 거기에는 제사장이 금으로 된 물통을 들고 있다. 그리고 제사장은 예루살렘 남동쪽의 실로암 연못으로 간다. 백성은 뒤따르면 시편을 낭송하면서. (*) 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통에 물을 담는다. 백성은 사12:2-3를 암송한다. 그 뒤 제사장과 백성은 예루살렘 동쪽의 물문을 통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다. 이때 제사장들의 나팔소리, (*) 제사장은 동행하는 제사장들과 함께 제단을 한 바퀴 돈 뒤 연단으로 올라가서 물을 붓는다. 매일 이 일을 한다.

(*)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

장막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과 동생들의 이야기(3-5), 그들의 불평하는 톤의 이유(5)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함, 그의 동생들도 그분을 믿지 않음,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라고 함

우리 주님의 말씀(6). 아직 좋은 때가 아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형제들을 속인 것이 아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는 공적으로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기다리다가 드디어 때가 되자 올라가셨다(10).

예루살렘의 상황: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분을 찾고 있다(11).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죽이려고

사람들 사이의 여론(12-13), 좋은 사람, 속이는 자 등
다만 두려워서 공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였다(13).
14-36절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하실 때가 되었다. 클라이맥스에 다다랐다.
드디어 명절의 마지막 날(37). 이 날도 제사장과 백성은 아침에 동일한 일을 하였다. 실로암 연못, 시편 낭송, 물 문 통과, 나팔 소리가 요란함, 이사야서 암송, 드디어 제사장이 연단에 올라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물 통을 높이 들고 물을 부음, 제사장이 물을 붓는 것을 보는 것은 장막절에 온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 중의 하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37).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이때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다. 바로 이때 주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셨다. 모든 것이 완벽히 구비된 시청각 설교였다.
이런 것을 이해해야 요7:37을 바르게 알 수 잇다.
이러한 배경을 안 뒤에도 요7:37을 감동 없이 읽는다면 큰 비극일 것이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위대한 말씀들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한다.

목마른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37) 여러분은 어떤가? 목마른가? 목마른 적이 있는가?
요즘 얼마나 더운가? 목이 마르다. 손자가 와서 저녁에 앞에 있는 공원에 데리고 나간다. 거기에 수도가 몇 개 있다. 가서 물을 틀어 줬더니 떠나려 하지를 않는다. 물이 튀니 조금만 틀어 주면 아니라고 한다. 완전히 다 틀라고 한다. 왜 더워서 목이 마르기에, 시원해지려고, 참 물은 좋은 것이다.
지금 주님은 중동 지방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다. 이른 아침부터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다. 너무 덥다. 시원한 물이 생각난다. 이들은 지금 더운 상태에서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실감하고 있다.
바로 이때 주님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론 우리 주님은 여기서도 육신의 갈증을 말하지 않는다. 물리적인 물을 말하지도 않는다,
우리 주님은 요6장 말씀 그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한다.
그런 의미의 영적인 물을 말한다. 요4:14 영원히 솟아나는 우물을 말한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갈망이 있으면 누구나 와서 무료로 마시라고 주님은 초청하신다. 사55:1-3, 계22:17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 갈망을 느낀 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적이 있는가? 그 초청에 응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기독교의 핵심: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 이곳이 끝이 아니다. 천국이 있다.
이 갈증이 없이 그냥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타는 불로 인해 영원한 갈증을 느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말한다. 그런데 와서 마시라고 하니 돈, 명예, 권세 주세요. 갈증을 채우라고 하니 록 음악 등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으로 대신하려 한다.
예레미야 대언자의 부르짖음(렘2:13)
인간의 인간다움은 무엇인가?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 어느 정도 맞는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생수의 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37-38)
누구나 와서 마실 수 있다. 영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다.
6장에서 오병이어, 하늘에서 내려온 빵, 지금은 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내게 와서 마시라

주님의 초청: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원히 솟구치는 물을 주리라.
그 물은 공짜이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물을 주시는 분이 세운 조건: 믿음으로 와야 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가야 한다.

히11:6, 내 업적이나 행위가 아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7:38, 단순히 생수가 아니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친다.

우리 안에 있던 영적 갈증, 영적인 배고픔이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다.

우리를 채울 뿐만 아니라 넘쳐흘러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된다.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30)

즉 성령님의 파워가 넘쳐흐를 것이다: 이것이 목마름을 해결한 성도들의 특징이다.

정부 차관, 너무 감사합니다. 정교분리가 아니라 국교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천주교 다니고 있는데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목사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도 육신을 입은 사람, 육신적으로 고통이 많다. 특히 요즘 국가,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것 생각하면 애가 타고 화가 난다.

성경 최종 교정하면서 너무 힘이 들다. 중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생각하며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결국 끝날 것이다. 내 배에서 영원한 생수의 강들이 솟아오를 것이다. 나와 함께 수고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을 통해 말씀 사역의 생수가 강들처럼 솟아올를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쁨은 생수가 넘쳐흘러 다른 이들에게 전달될 대야 비로소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서 만족을 찾거나 우리만 만족하기를 원하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결론

우리 주님을 보라. 장막절의 마지막 날,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분의 입에서는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해야 할 말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무엇을 뜻하는가?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

지금 국가 위해 염려하고 기도한다. 대한민국은 주님의 손안에 들어 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주님께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각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원하는 소원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제때에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장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유랑하는 것을 보여 주는 절기

광야 40년 동안 뙤약볕에서 나뭇가지 몇 개로 초막을 만들고 쉬고 있다.

물이 마시고 싶다. 너무 힘듭니다.

그때에 모세가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어 솟구쳐 나왔다(출17:3-7). 강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게 되었다. 이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고전10:4).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다(39).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39). 그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오는데 아직 반석을 치지 않았다.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이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반석을 치면 드디어 거기에서 물이 솟아오를 것이다.

그 생수의 강물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십자가 사건, 부활, 50일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부어졌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성령 침례를 받는다. 푹 잠긴다.

그 이후에도 순종하며 살아가면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다.

결론

영혼의 갈증을 느낀 적이 있는가? 주님께 나와 성령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났는가? 성령 충만을 받고 살고 있는가? 없으면 37을 기억하기 바란다. 질병, 고통, 주님께 나오라.

모세의 경험, 바위를 두 번 치는 일이 생겼다.
첫 번째 사건, 바위를 치라고 해서 쳤더니 물이 나옴
두 번째 사건, 바위를 치라고 하지 않음, 바위에게 말하라고 함. 그러나 그는 화가 나서 바위를 침.
물은 나왔지만 그는 불순종의 대가를 치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한 번 쳐야 한다,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그 뒤에는 그분에게 말해야 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님의 단 번 속죄, 성령 침례 구원
그 뒤에는 그분과 말하며 교제해야 한다. 성령 충만,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

25 요한복음: 예수님과 진리의 성경 말씀은 받아들이기에 너무 쓰고 아프다

성경말씀: 요7:40-53

어제 토요일 아침 출근, 의정부의 한정재 어르신 전화, "목사님, 지난 주 설교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로 못 모여도 제 배에서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교회 미디어 사역 덕분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에 오지 못해도 교회 설교 듣고 찬송 듣고 교회에서 보낸 주는 성경 읽기 과제 하고 성경 퀴즈 풀고 답 맞추고 합니다. 매우 기쁩니다. 제 나이가 89세인데 지난 5년 동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더욱이 세대주의가 무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dispensation 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말씀 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미디어 선교가 저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감사합니다!"

요즘 저의 상황: 지난 5년 동안 매일 전 시간을 성경 교정하는 데 쓰고 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니 더욱 더 그렇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재미없는 무미건조한 삶, 스트레스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매주 3편의 설교, 강해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큰 즐거움

특별히 요한복음, 에스라 맥잡기, 공산주의 바이러스 공부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피상적으로 읽던 성경을 배경을 알고 문맥 안에서 읽고 강해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더욱이 위어스비 목사님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남기고 간 영적 유산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 부족한 사람이 공부해서 선포하는 말씀에 감화를 받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고 불신자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면 더욱 기쁘다.

지난주에는 암으로 고생하는 세 분께 전화해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 더욱 기뻤다.

성경 출간이 이루어진 뒤에는 더욱 더 성도들과 함께하는 목회를 하려고 생각한다. 아마 내 아내와 가족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은 〈예수님과...너무 쓰고 아프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이 확연히 분리되는 것을 살펴보려 한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전조를 보며 기뻐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대비하기도 해야 한다.

지난주 설교 요약

7장부터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적인 시도가 이루어짐, 그래서 갈릴리에 머무심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장막절, 가장 정확힌 시점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심, 명절의 맨 마지막, 가장 큰 날 제사장과 백성은 가장 큰 행사 진행,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금 물통에 물을 담아다가 제단 위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물을 부음. 사람들의 갈증,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음성(37-38).

우리 주님의 3년 반 공생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다. 그런데 37-38을 말씀하시는 순간은 정말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순간, 수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 마디로 구약 시대는 가고 이제 신약 시대가 왔다는 선언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바치고 정결례 의식을 행하고 물을 뿌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예표

그러나 이제 참 제사장, 참 희생예물이신 주님이 실체로 오셨음을 선포함

히9:9-10

히10:1-4

이런 의식으로는 너희의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없다. 이제 예표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배에서 영원히 솟아오르는 생수의 강들을 줄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다. 구약과 신약의 분리를 말한다.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님(39)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는 받아들이기에 너무 쓰고 아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흘러넘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적시게 하신다.

이럼 엄청난 진리를 들은 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쳤을까?

예수님의 선포 이후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겼다(40-44).

1. 그분은 그 대언자다(40), 2. 그분은 그리스도이다(41), 3.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41),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42). 분열이 생김(43).

1. 그분은 그 대언자(신18:15-18), 가나안 입성 직전, 모압 평야, 자기와 같은 대언자를 주신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베드로의 설교(행3:20-22)가 말하듯이 모세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은 멸망당한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분을 그 대언자로 여기지 않았다. 요1:11-12

2. 그분은 그리스도이다. 정확한 판단

3. 다른 사람, 그분은 좋은 사람인데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그러나 그는 갈릴리 그들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생, 다만 그 이후 갈릴리 거주

예수님과 그분의 선포를 두고 심각한 분열이 생김(43)

이미 예수님은 예고하셨다(마10:34-35). 눅12:51-52

예수님은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 평화의 통치자

그런데 우리의 죄악, 이기심, 편견, 무지로 인해 그분이 들어가면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 분열이 생긴다.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자연히 그런 일이 생긴다.

미국 캐나다에는 록키산맥이 있다. 이 산맥 위에 비나 눈이 내리면 반드시 서쪽으로 가든지 동쪽으로 간다. 중간에 남을 수가 없다. 그리고 결코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가 이와 같다. 반드시 분리가 생긴다. 우리는 빛나는 새벽별 예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분리는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

정치, 경제, 도덕과 윤리, 교육, 교회 선택, 심지어 음식 섭취, 집 직장 선택의 문제

옳은 것을 택해야 한다.

"요즘 예수님 때문에 제 삶에 변화가 생겼어요." "기침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병원 약속, 개밥 주어야 한다 등등), 경멸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무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OK

그러나 열정적으로 확실하게 말하면 분열이 생긴다.

분열이 생기는 이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수용하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세상관의 변화

현시대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가르친다.

6000년 전 창조, 6일 창조, 죄,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의 말씀 보존, 부활,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교회의 영원성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심지어 그분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44).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감히 손을 대지는 못한다. 왜 아직 때가 오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처한 현실이 이렇다.

1880년 조선은 개화기를 맞는다. 그때부터 일제 36년, 대한민국 건국, 6.25 승리, 대한민국 발전 이 모든 것은 교회와 함께 이루어졌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과 교계 지도자들의 대화, 대통령도 인정하였다. 교회 혹은 기독교가 이룬 가장 중요한 것: 대한민국 헌법,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헌법, 국민의 7-80퍼센트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 성도인 이승만을 사용해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 확립, 이것으로 인해 지금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

헌법, 교육, 의료, 국방, 안보, 경제 등 모든 것이 기독교의 가치와 문화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 땅의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완전하지 않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몇 몇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에 6만 개 교회. 소수에 불과하다. 소수 교회의 문제를 모든 교회의 문제로 확대해석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지적하듯이 전체주의 발상이다. 여러 사람들이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과학은 무엇인가?

1.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 사람들 제때 차단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 이것이 과학이다.
2. 버스, 지하철, 노래방, 목욕탕, 해수욕장, 비행기, 에버랜드, 오페라 공연 등, 집단 휴가, 공짜 영화 관람권 등 정부 배포,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 창궐의 원인, 이것이 과학이다.
3. 팩트: (*) 8월 28일 동아일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 기사,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코로나19 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깜깜이 감염, 8월초 휴가, 집단 이동, 말 그대로 방역 실패로 이제는 누구든지 어디서나 언제라도 코로나 19에 감염될 수 있다.

한 사람의 하루 동선, 집, 엘리베이터, 버스, 지하철, 영화관, 직장, 커피숍, 교회, 어디서 감염되는지 어떻게 아는가? 심지어 아파트에 있는데도 공공 환기구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함

그러므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된다. 비과학적이다.

엄청난 핍박, OO제일교회 심OO 목사님, 8월 26일 금요일,

저희 교회 주변과 마을에 드디어 물리적 공격이 시작 되었습니다. 휴~~~

(*) 그런데 전 근심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흥미롭네요.

승리 했습니다. 저희 교회 훼방 현수막 20개 모두 구청에서 철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19 방역과 퇴치를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민, 여야, 좌우, 기독교, 비기독교

남 탓하는 것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교회들은 더욱더 방역에 신경 쓰고 거리 두기 등을 유지할 것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므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28/102684358/1

예수님의 말씀,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어떤 핍박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역사의 증언, 하나님의 기관이므로. 유한한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싸우지 않기를 바란다. 속히 다음 주부터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간구한다.

예수님을 배척함(45-53)

예수님은 장막절에 행사가 열리는 뜰에 나타남, 그러자 아마도 제사장들은 그분을 붙잡으라고 성전 경비

부대원들을 보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위대한 말씀을 하심. 그들은 그분을 붙잡지 못함

이들이 돌아가니 바리새인들/수제사장들이 물음(45)

그들의 대답(46), 말 그대로 정직한 대답

"군중들이 돌을 던질까 봐 무서웠습니다." 등의 변명 가능

그러나 그들 역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압도되었다.

그분을 붙잡으러 갔다가 그분께 붙잡히고 말았다.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 군사들의 차이: 전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듣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는 편견이 없이 명령을 수행하러 갔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 결과 그분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바리새인들의 응답(47). 그가 너희도 속였느냐? 예수님과 교회는 속이는 단체가 아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그를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48) 자기들이 판단의 기준

우리는 이런 것 믿지 않는다. 유명한 목사의 말이라 해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쓰레기통으로 보낸다.

그리고는 저주를 퍼붓는다(49).

그들의 주장: 영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결코 그를 믿지 않는다. 무식한 자들만 그를 믿는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아니다!
이때에 니고데모가 나선다(50-51). 가장 뛰어난 학자, 정치 지도자, 얼마나 좋은 질문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보고 그분의 행적을 본 뒤에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24절.
종교 지도자들 흥분함. 그리고 반박함(52)
너무 화가 나서 역사를 잊어버림. 갈릴리에서 나온 대언자가 있다. 요나
군중을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다가 자기들의 무식이 드러나고 맒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목사, 나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읽은 뒤 예수님과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기독교를 알지도 못하면서 거부한다.
경비 부대원들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46).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니고데모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대답을 기독교에서 들을 수 없어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대답: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보았는가? 아무 것도 모르는 군사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 46절처럼 말하지 않는가?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 교회가 말하는 것을 들어 보라.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만 말한다.

결론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세상 대비, 예수님과 성경 그리고 교회에 혹독한 비판, 핍박이 가해지고 있다.
쓰나미 같은 핍박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동조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은 교회 때문이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앞으로 예수님과 기독교와 교회로 인해 더 큰 분열이 이 땅에 생길 것이다.
가장 큰 이유: 들어보지 않아서, 그분을 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둘로 확연히 구분된다. 왜? 진리는 수용하기에 쓰다(요3:18-20).
자기들의 무지와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37-38절 말씀
어떤 핍박이 와도 생수의 강들이 배에서 솟아오른다.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진다.
이런 생명의 강물, 진리의 강물이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과 과학과 진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하고 세워 주신 하나님께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예배의 지유, 집회 결사의 자유, 소유권의 자유 지켜 주실 줄로 믿는다.
코로나 19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질병 퇴치 위해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의 은혜

26 요한복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성경말씀: 요8:1-11

요한복음 7장, 대단히 중요하다. 구약의 의식, 예식은 예표. 나는 실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면 내게로 와야 한다(7:37-38). 유대교의 핵심: 영원한 생명, 이것이 타락하면 종교 생활, 이것은 의를 주지 못한다. 구약 폐지, 신약 선포

이 선포로 인해 군중은 확연히 둘로 나뉜다.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기적과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헤매는 다수의 군중,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자들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함(안식일 문제, 장막절 의식).

그러자 이번에 그들은 함정을 파서 그분을 체포하려 한다.

그러나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아 실패한다.

요한복음 시작: 빛과 어둠, 은혜와 율법, 예수님과 모세

요한복음 8장에도 계속해서 상반되는 두 개가 비교되면 나온다.

은혜와 율법(1-11), 빛과 어두움(12-20), 생명과 죽음(21-30), 자유와 속박(31-47), 아들 공경, 아들 무시(48-59)

오늘은 〈나도 너를 정죄하니 아니하니...〉: 은혜와 율법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배경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장막절이 지나갔다. 여전히 순례자들이 남아 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 선포(1)

장막절 기간의 소문: 예수님은 장막절에 모습을 드러내고 심지어 성전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다.

요8:20, 성전 보고, 이곳은 여인들의 뜰 입구에 있다.

유대인 성전, 세 개의 뜰, 남자들의 뜰, 여자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들의 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이 계신 곳을 알고 음모를 꾸몄다(3-6).

모세의 율법(레20:10; 신22:22), 간음한 남녀 모두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런데 여자만 등장함, 아마도 남자는 자유롭게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남자들에게 유리한 법 집행

이들은 아주 야만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는 데(2) 그 여인을 거기로 몰아넣음(3)

이들은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 하였다(6). 고소해서 산헤드린 공회로 데려가 처형하려고

모세의 말 인용(5; 출20:14, 제7명령), 돌을 던질까요? 던지지 말까요?

던지라: 그분의 명성에 흠이 생김, 세리와 창녀들, 가난한 자들의 친구, 대다수 보통 사람들을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던지지 말라: 공개적으로 율법 무시, 체포될 수 있는 상황

예수님의 묘책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고 무언가를 적으심(6)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적었는지 모른다(6).

십계명,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출31:18). 나도 손가락으로 쓴다. 나는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심판하지 않고 그 여인을 심판하려는 자들을 심판함

분명히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에 분개하셨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문제: 그들은 위선자. 자기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7).

율법의 규정: 고소하는 자(증인)가 먼저 돌을 던져야 한다(신17:7).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7):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 죄가 없다.

그분께서 더 크게 의미하신 것: 그 여인의 죄=간음죄

그것은 마음으로도 짓고 몸으로도 짓는 죄이다(마5:27-28).

너희는 간음죄를 짓지 않느냐? 구약의 문구만 생각하지 말라. 그 의미를 생각하라.

외적 의식, 이런 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내적 변화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종교 생활로 몰아가지 말라.
그러자 그들은 양심에 찔려서 하나씩 하나씩 나이 순서대로 물러갔다(9).
예수님과 여인만 남음(9).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그녀를 보냄.
〈나도 너를 정죄하니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베데스다 연못 38년 환자(요5:14)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착각하면 안 된다: 어떤 죄든 마음대로 짓고 무조건 용서를 빌면 예수님은 쉽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은 율법을 무시하는 분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하신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그분께서 그녀의 죄들로 인해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다.
용서는 공짜지만 값이 싼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죽으셔야만 한다.
그 여인을 위해 대신 속죄, 그래서 용서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거나 범하지 않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마5:17).
그러므로 그분이 율법을 범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자기들이 떠받드는 율법을 자기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또 그 남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그 여인에게만 적용한 것,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글자와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안식일 사건과 비슷하다. 이유: 율법 시대는 가고 은혜 시대가 왔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어졌다(롬3:20).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갈3:24)
그 자체로는 구원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결코 율법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한다. 살인, 간음, 동성애, 낙태
다만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받으려는 시도는 불가능함을 믿는다.
그런데 은혜와 율법은 대조적이며 또 서로를 보완한다.
아무도 율법에 의해(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은혜가 베풀어지기 전에 먼저 율법에 의해 정죄받는 일이 생겨야 한다.
즉 하나님의 법을 범했다는 슬픔, 이대로 죽으면 지옥 불 정죄, 회개, 그래야 은혜가 가능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여인에게서 이것을 보시고 용서하심.
하나님의 용서는 죄 짓게 하는 면허가 아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니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롬8:1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른다. 눈물이 난다.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시130:4)
거저 용서받으면 그것에 감사하며 더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정상이다. 롬6:1-2
죄에 대한 예민도가 증가해야 구원받은 증거이다.

성경 문제

우리는 오늘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를 살펴보았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
그런데 이 말씀이 원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역본들이 있다.
1. 공동 번역: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없는 사본도 있다.
2.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관주 해설, 대한성서공회
어떤 사본에는 7:53부터 8:11까지 없음
주석: 이 단락은 요한복음의 아주 오래된 사본들에는 들어 있지 않다, 이 단락은 후대에 와서야 비로소 이것에 삽입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에 관한 오랜 전승에 속한다(즉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
3. NIV 등 현대 역본들 모두 괄호를 치고 동일한 각주를 붙임

사본학: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기사(요7:53-8:11)

장로교 성경 본문 학자, 2세기 최고의 사본 학자 에드워드 힐즈, 〈킹제임스 성경 변호〉

예일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석사, 컬럼비아 신학대학원 석사
하버드 대학교 성경 본문 비평 신학 박사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는 과거에 문제 거리였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문으로 인해 곤란을 겪었다. 그리스도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은 간음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해야 한다는 그들의 신념과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어거스틴(c. 400), "이 같은 용서의 행위는 어떤 나약한 신자들이나 불신자들과 기독교 신앙의 적들의 마음에 충격을 준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죄를 지으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10세기의 니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해롭다는 이유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 기사를 빼버렸다."

심지어 제롬(415년 경):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된 많은 사본들의 요한복음에는 고소당해 주님 앞에 끌려온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자신의 라틴 벌게이트에 그것을 포함시켰다.

결론: 역사 기록들의 증언: 일반적으로 초기 기독교의 몇 세기 동안 모든 교회는 간음을 심각한 죄로 여겼다. 이것은 설사 용서받는다 해도 혹독한 고행 후에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죄

그러므로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그리스도께로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는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 여인이 너무 쉽게 용서를 받은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열성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초기 기독교회의 금욕적인 견해와 크게 충돌을 일으키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삭제했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 그러나 이 이야기는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한다.

가장 유명한 학자 중 한 사람 F. F. 브루스(1910-1990): 이 기사는 여기에 있어야만 한다.

1.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는다(요8:21, 24).
2. 참된 판단과 그릇된 판단(8:15-16)
3. 8장 끝에 가면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한다(59).
4. 요7:53-8:11을 삭제하고 8:12로 가 보라. 말이 되는가? 급격한 변화

그러면 천주교 사본들, 현대 신학자들 인정하지 않는데 왜 그대로 두었는가?

(*) NIV, 기존 성경에는 적어도 13구절이 빠져 있다. 없음 표시. 1구절이니 OK

개역 성경, 한국 사람들의 대표 성경, 나, 부모, 대다수 우리 교인들 이것으로 구원받음

개역 성경, 역사적 성경, 좋은 성경

그러나 이런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음

그런데 여기 12구절을 따 빼고 없음 표시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 괄호 각주 처리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2구절(9-20)

동일하게 각주 처리(오래된 사본에는 없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오래된 사본, 시내 사본을 보라. 지운 흔적이 그대로 있다.

여기서 끝나면 말이 안 된다.

어째 그 당시 유대인들, 남자들에게 편파적으로 호의를 보이는 것 같다.

이 점에서 천주교 사본에 가반을 둔 현대 역본들도 비슷하다.

약4:4,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NIV 등 거의 모든 현대 역본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런 모든 말씀들이 들어 있는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안 믿어도 OK, 그분들의 자유

왜 우리는 그렇게 믿는가? 하나님의 일의 보편성, 영어 킹제임스, 제네바, 독일 루터, 프랑스 올리베땅,

스페인 레이나 발레아, 이탈리아 디오다티, 전 세계에 모든 말로 보급된 성경들 모두 없음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믿지 않는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다.
물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
오늘 요8장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기사를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신약 시대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한다.

27 요한복음: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예수님과 마귀 중 하나를 선택하라

성경말씀: 요8:12-30

요한복음의 총 주제: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요20:30-31)

주제 파악을 못하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

요3장,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요4장: 수가성의 여인. 영존하는 생명수

요5장: 베데스다 연못의 아픈 사람(39)

요6장: 나는 영존하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한다.

요한복음 7장, 장막절 의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면 내게로 와야 한다(7:37-38).

장막절 이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한다.

요한복음 8장에는 상반되는 두 개가 비교되면 나온다.

은혜와 율법(1-11), 빛과 어두움(12-20), 생명과 죽음(21-30), 자유와 속박(31-47) 등

지난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회개하는 여인을 용서하심, 간음 면허 준 것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된다.

"나도 저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11)

오늘은 〈 〉,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인생과 죽음 이야기

많은 사람이 영원히 살 줄로 알고 살고 있다.

사실 태어나는 날부터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다.

며칠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

나도 내 아내도, 같이 간 내 딸과 손자 손녀도 다 무덤에 갈 것이다. 이게 현실이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는 분열이 생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생기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생긴다.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둘째 사망: 하나님, 선, 빛이 거하는 데서 완전히 분리되어 마귀와 그의 악한 천사들, 악한 자들과 영원히 거하는 것, 악, 어둠만 존재하는 데가 있다. 이곳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한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설계자, 설계대로 나오지 않으면 폐기한다. 대개는 불태운다.

하나님도 인간의 설계자, 설계대로 나오지 않은 폐기하신다.

사탄 마귀, 그의 졸개 마귀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폐기 된다. 그 장소가 지옥이다.

지옥ㅇ은 본이니 선택하는 곳이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다. 천국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마10:28).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말 예화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토마스 페인(1737-1809): 오늘날 우리에게 상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진정한 상식이 되기까지는 선각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명제는 당연히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 진리를 이른바 '상식(Common Sense)'으로 선포한 대표적인 선각자가 바로 토마스 페인이다.

죽음 앞에서 한 말: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계시거든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계신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십시오. 제발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소서. 아이라도 하나 내게 보내 주소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만일 사탄 마귀에게 첩자가 하나 있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유명한 정치인, 부귀영화 명예, 그러나 그는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갔다.

아이작 왓츠(1674-1748), 수많은 찬송가 작사

오늘 부른 2곡, 기쁘다 구주 오셨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죽음의 순간에 내가 전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이 머리를 뒤로 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는 평안하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빛과 어둠

주님의 선포: 나는 세상의 빛이다(12).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빛에 거하고 아닌 자는 어둠에 거한다.

어둠에 속하는 자들의 운명(21)

"나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임을 입증하였다.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장막절에 나타나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선포하였다. '나를 믿어야 한다. 영원한 생명수를 얻어야 한다. 그 사건 이후 간음하는 여인 사건, 나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이 있는 자다.' 선포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빵에만 관심이 있고 나에 대해 수군수군 대며 나를 믿지는 않는다. 결국 나와 내 말을 거부한다. 이제 너희가 나를 찾으러 다닐 때가 온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때이다. 이미 나와 너희는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

처음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

그러나 대다수 백성들이 이런 상태, 결국 그들 모두에게 이런 말씀

우리 주님은 매우 명확하게 이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22절의 엉뚱한 질문

유대인들의 전통: 자살하면 지옥에서도 가장 어두운 데로 간다.

그런데 이들의 확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분명히 100% 천국, 그는 가장 어두운 천국, 그러니 당연이 그는 우리를 못 본다.

이런 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한다. 위대한 착각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로 들어간다. 영원무궁토록(계14;10-11).

천국과 지옥의 분리가 생기는 근본 이유(23)

23절: 출생지가 다르다. 한 부류는 위에서 나고 다른 부류는 아래에서 난다.

그런데 이 두 부류는 절대 합쳐질 수가 없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다. 나는 아니다.

세상, 성경에는 여러 의미, 동물 세상, 식물 세상 등 좋은 세상

그러나 사도 요한의 복음서와 요한일서 등에 나오는 세상은 악한 세상 체제를 뜻한다.

거기에 속한 세상 사람들을 뜻한다.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좋은 세상 아니다.

요일2:15-17

즉 너희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에 속하고 나는 아니다.

즉 나와 너희는 서로 합쳐질 수 없는 다른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너희가 나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이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는 명백한 현실

물과 기름, 빛과 어둠, 진리와 오류, 섞으려야 섞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위에서 난 것과 아래에서 난 것을 합칠 수 없다.

어느 정도 떨어졌냐? 영원무궁토록

그러면 어떻게 분리되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는 하늘에서부터(3:7)

그러므로 그분의 영역으로 다시, 왕국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요17:16).

구원받으면 두 세상에 살게 된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다.

세상 법, 경제 정치 문화 등, 어려움도 겪는다. 좋은 것도 누린다. 그럼에도 여기에 속하지는 않는다.

사실 구원받으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있다(엡2:6).

사도 바울의 고백(빌3:20), 우리의 생활권은 천국이다.

구체적인 이유(24)

구체적인 이유(24),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저 간음한 여인을 보라. 구원받지 못한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러나 그녀가 회개하였기에 나는 그녀를 은혜로 용서해 주었다.

내가 그인 줄 알아야 한다. I am he. he는 이탤릭, 내가 I am임을 알아야 한다.

그는 누구인가? I AM.

요한복음의 특징: 일곱 번의 I am. 1. 나는 생명의 빵이다(6:35). 2, 나는 세상의 빛이다(8:12). 3. 나는 양들의 문이다(10:7-9). 4. 나는 선한 목자다(10:11-14); 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26); 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14:6), 7.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15:1,5)

I am.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 하나님의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출3:13-14). I AM THAT I AM.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I AM 즉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하였다.

즉 예수님의 말씀: 내가 바로 영원무궁토록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면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이게 구체적인 이유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징: 죄가 없다. 어둠이 없다, 악이 없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파묻힌 인생, 사탄, 마귀들은 들어올 수 없다.

이 죄를 치워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렘13:23)

하나님의 방법: 의의 전가,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입혀 주신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후5:17).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영원을 결정한다.

사대성인, 좋은 사람, 죄 없는 분, 깨끗한 사람, 이런 것들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 만물을 만드신 분, 죽은 자를 살리는 분

재림하는 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분, 해방의 자유를 주는 분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접 제정, 무상복지, 공산주의/사회주의 사상을 저주하는 분

병과 치료제

병과 치료제: 미국의 유명한 화학자 고든 앨리스(Gordon Alles),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슐린 개발

그런데 그는 62세에 당뇨병으로 죽었다. 참으로 아이러니

그가 자기 병을 앓았는지는 잘 모른다. (위키 백과 병을 몰랐다).

어쨌든지 그는 인슐린이 당뇨병을 치료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본인은 그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음

예수님은 바로 죄의 치료제, 그 치료제를 알고 내게 적용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대화: 예수님이 정곡을 찌르는데도 그들은 다시 묻는다(25).

예수님의 동일한 대답: 나는 I Am이다.

그리고 26절: 나는 할 말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나는 처음부터 바로 그 존재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너희는 알아듣지 못한다.

내가 말하는 그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27).

그러나 너희는 알지 못한다. 아래에서 났기 때문이다(고전2;14).

어떻게 치료제를 얻는가?(28)

28절: 십자가에서 나를 죽인 뒤에야 내가 I Am임 것을 알 것이다. 또 내 말은 100% 하나님의 말임을 알 것이다.

치료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아는가?

어떻게 아는가? 영역이 바뀐 것을 아는가? 십자가로 가야 알 수 있다.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거기서 결정되었다.

"다 이루었다"(19:30) 하실 때의 그분의 대속 사역이 완성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이 제거되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이를 통해 우리의 주거지가 바뀌게 되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다(30).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신 분, 주님께 나오기 바란다.

예수님의 약속(12)

예수님의 확언(21, 24)

십자가로 나와야 구원을 받는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빛과 천국과 영생과 하나님을 선택하기 바란다.

28B 요한복음: 노예의 길과 자유의 길

성경말씀: 요8:31-36

요한복음의 총 주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요20:30-31)

어떻게 결정되는가? 출생지에 의해(23), 아래 출신이냐, 위 출신이냐?

처음 태어날 때는 다 아래 출생(세상에 속한다), 그래서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24). 죄들에 파묻혀서, 그러므로 천국 불가능

다시 태어나는 사람: 예수님을 그분으로 믿어야 한다(24). I AM.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로 나와야 한다(28). 거기에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30).

그러자 예수님은 31-47절을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을 설명하신다.

오늘 〈자유의 길과 노예의 길〉, 자유와 속박,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화하는가?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는가?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자유인과 노예 설명

삼손 이야기

출애굽, 가나안 정착, 여호수아 죽음, 그 이후 이스라엘에 재판관이라는 지도자들 등장

필요한 때에 나타나 백성을 위기에서 구출함. 가장 유명한 사사 중 하나는 삼손(13-16장)

그의 부모에게 천사가 나타남. 그는 큰 기대와 함께 태어남, 위대한 미래가 보장됨

그는 여러 가지 특권, 나사르 사람(민6), 하나님께로 구분된 사람

삿13:26 주의 영께서 그에게 내려와 그를 감동시킴(큰 권능),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구출자가 됨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몰락하기 시작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을 따르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사귀면서(심지어 창녀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쓰기 시작했다.

결국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 자기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다 빠진 채 노예가 되어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함(삿16:21) (*)

그 이후로 삼손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회자되는 인물

〈절대 자유인에서 노예로 전락하면 안 되겠구나!〉

인간은 원래 자유인으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죄를 짓고 결국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아래에서 태어난다.

그 결과 눈이 멀게 되었다. 어둠 속에 지내게 되었다. 이대로는 죄 가운데서 죽어 영원한 지옥

지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고 있다.

이들과 백성 앞에서 다시 한 번 근본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쐐기를 박는다.

자유인의 길을 갈 것인가? 노예의 길을 갈 것인가? 어떻게 노예의 길에서 벗어날 것인가?

핵심 32: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된다. 왜, 지금 너희는 노예이다. 어떤 노예, 죄의 노예(34)

유일한 방법: 아들에게 돌아와야 한다(36). 오늘 말씀에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성경의 위대한 말씀 중 하나

노예의 길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속박과 노예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또 요점을 놓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33). 누구에게 종살이 한 적이 없다.

이것은 거짓말, 이집트, 사사 시대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종살이, 바빌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지금 로마에도 종살이

너무나 오랫동안 종살이, 그들의 전통 "역사가 말하든, 학자가 말하는 우리는 종살이 한 적 없다."

이 정도로 그들은 종살이를 지겹게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살이를 벗어나야 한다고 하자 부인함

예수님의 설명: 나는 진짜 종살이 말고 죄의 종살이를 말하고 있다(34).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현시대 대다수 사람들도 부인한다. "우리는 종살이 하고 있지 않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 출신, 현대식 교육, 하고 싶은 일 다 한다. 왜 종살이?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종살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들의 상태를 깨닫지 못한다(고후4:3-4).
세상에는 종살이를 끝내고 먼저 눈을 뜬 사람들이 있다. 옆 사람에게 알려준다. 반대가 심하다.
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반대도 심하다. 화를 낸다.
알코올 중독자, 이야기하면 부인한다. 화를 낸다. 진실이 두렵다.
그런데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32).
두려운 진리가, 진실이 사람을 죽음에서 깨어나게 한다.
유대인들이 이런 지경에 온 것, 오랫동안 유대교의 전통에 함몰되어 세뇌되어서
(*) 개구리, 우리는 온도가 일정하다. 그런데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다. 주변 환경에 따라 체온이 변한다.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냄비 근처에 가거나 집어넣으면 뛰어 오른다.
그런데 찬물에 넣고 온도를 조금씩 올린다. 100도 정도가 되면 견디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만다.
죽는 이유는 무엇인가? 뜨거운 물이 아니다.
100도 근처가 되면 개구리는 위기를 깨닫고 뛰어나오려고 한다.
그런데 주변 온도에 맞게 자기 온도를 조절하느라 에너지를 다 썼다.
그래서 뛰어오를 힘이 없다.
삼손의 예가 이를 증명한다. 그는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다. 서서히 욕망의 노예가 되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 임계점에 도달했다. 벗어날
수 있는 능력 상실, 결국 육체의 노예, 가장 비참한 죽음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
가장 큰 죄악: 배은망덕,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사람들이 모른다(사1:2-3).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롬1:18-19, 21). 그리고는 우상 숭배(22-23)
결국 하나님의 심판(24), 온갖 악한 일 행함
큰 아이러니, 여러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드디어 나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런 실상은 정반대, 아담과 이브를 보라, 정반대가 생긴다.
눅15장의 탕자 이야기,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 만끽, 결국 허랑방탕한 생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야
자유 체험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진정한 자유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 동성애 불가
인간이 벗어난다. 그 결과 가정 파괴, 교회, 국가 파괴
목사들이 이런 일을 한다. 좌익 목사, 소돔과 고모라 멸망은 동성애가 원인이 아니다. 집단 성폭행

자유의 길

그러면 어떻게 종살이하다가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들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소수만 믿고 나머지는 그분 거부
어떻게 그분을 믿고 진리를 알며 구원에 다다를 수 있을까?
31-32절이 핵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가능하다.
1. 내 말에 거해야 한다: 읽고 탐구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자유인이 된다.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
진리를 배우는 사람, 더 큰 진리가 펼쳐진다.
2. 진리를 알게 된다. 하나님, 사람, 죄, 구원자 그리스도, 천국과 지옥, 사탄 마귀, 구원, 성화, 교회,
환난 전 휴거, 부활, 천년왕국, 하나님의 모든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확실한 진리가 된다.
지난 주, 어떤 형제님 교제, 11년 전, 그 이후 아버님과 어머님이 신실하게 나오신다.
아버지 말씀: 예수님 믿기 전, 나이가 드니까 무섭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영원을 저기서 보내야 하나? 공동묘지, 귀신 등 무섭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의 권유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함, 가장 큰 변화, 내가 갈 곳이 있음을 알게 됨,

성경을 많이 모르고 구원받은 날짜는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분의 피를 믿고 어디로 갈지를 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죽음의 속박, 무덤의 속박, 샤머니즘의 속박에서 벗어나니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자유의 길로 들어서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3.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진리, 더 많은 자유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어둠에서 무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이 배운다. 더 많은 자유

중세 천주교 암흑시대, 왜? 천주교회가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게 원천봉쇄하였다.

유럽의 산업혁명, 자유 민주주의, 번영의 출발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핵심, 처음으로 대중이 보는 성경 번역 출간

그리고 틴데일 등의 영어 성경 번역, 킹제임스 성경 전 세계 복음 선포

영국에서 산업혁명 대영제국, 미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앵글로 색슨 족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 성경과 유대인 보호

현시대 가장 큰 원수는 공산주의, 대표적인 데, 중국 공산주의, 여기를 틀어막고 마귀 세력을 봉소해는 국가, 바로 미국,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성경 신자들이 가장 많다.

이번에도 우리는 트럼프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유인이 되려면 성경을 읽고 탐구하고 배워야 한다.

4. 현시대의 문제: 성경에 무지하다. 교회에 다니는데도 무지하다.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중세 암흑시대가 온 것이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 시대를 분별해서 읽어야 한다(딤후2:15)

신약 시대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어거스틴의 무천년설, 이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 여전히 구약식 교회를 하게 된다. 구약식 믿음

목사나 교사 선교사만 읽어서는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한다. 배워야 한다.

5.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순종은 구속이 아니다. 순종은 자유를 가져다준다. 순종이 없으면 지식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요즘 코로나 시즌

마4:4를 기억하라.

마지막 해결책(35-36)

종과 아들, 집에서 종은 영구한 위치가 없다, 아들은 있다. 아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은 제약이 있다. 자유가 없다.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가장 큰 아들, 예수님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인이 된다(36).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자유를 가지신 분이 자유를 불어넣으면 우리는 자유인이 된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유인

대한민국의 자유와 속박

이승만을 통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기독교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

박정희 등을 통해 엄청난 성장과 번영, 그 뒤에는 기독교의 성장, 성도들의 기도

그러나 이제 배부르니 하나님을 차버리고 있다.

그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자유의 길을 버리고 노예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무상 복지, 무상 의료. 일 안하고 살 수 있다. 전체주의 사회주의

개구리처럼 되어 가고 있다.(*) 노예의 길, 알아야 벗어난다.

하이에크의 저서 노예의 길(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진실)

민주사회의 지식인이라면 꼭 만나야 할 한 권의 책이 있다. 현대인의 필독서이자 이제는 고전이 된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의『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이다. 부제목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이 말해주듯이 이 책은 사회주의의 위험성을 근본부터 파헤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타락을 막아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하이에크 19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오스트리아 출생, 경제학자, 법학자, 나치 독일 전체주의 경험

저자는 이 책에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설명한다. 사람들은 흔히 '평등한 사회' '삶의 질적 보장'과 같은 사회주의적 구호를 좋아한다. 사회주의로 가는 길은 이처럼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실험은 궁극적으로 현실정치에서 전체주의로 귀결되곤 하였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그 목적이 이상적일수록 결과는 더 처참해질 수도 있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서서히 우리를 데워서 죽이는 무상 정책을 타파해야 한다.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뛰어나와야 살 수 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살 수 있다.

사회주의/공산주의/무상 정책은 필연적으로 전체주의 독재, 자유의 말살, 정부가 개인 정보를 다 파헤치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불행한 일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며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지도자들을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진리는 성경의 자유이다.

갈5:1,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24 요한복음: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사탄인가, 하나님인가?

성경말씀: 요8:37-47

요한복음,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상태, 죄이들을 고치려는 그분의 열정

요한복음의 총 주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요20:30-31)

어떻게 결정되는가? 출생지에 의해(23), 아래 출신이냐, 위 출신이냐?

처음 태어날 때는 다 아래 출생

오늘은 아래에서 출생한 사람들과 위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특징, 특별히 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설명, 아버지와 아들 관계

본성은 출생에 의해 결정된다. 출생은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

내 성격: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 많이 결정되어 있다. 화를 잘 내고 급하고 열정적이고 등등

대개 아들은 아버지를 많이 닮고 딸은 어머니를 많이 닮는다. 보편적인 진리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부모 자식 간에만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일, 영원을 결정하는 일에도 적용된다. 아래 출신이냐, 위 출신이냐? 한 마디로 아버지가 누구냐?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사탄인가, 하나님인가?〉, 내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살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에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

배경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 그런데 공생애 후반부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7:1), 예수님은 자신의 끝을 알고 계신다. 좀 더 명확하게 자신과 자신의 메시지를 드러내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8:12),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다.

나는 위에서, 너희는 아래에서(23)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다. 죄의 종이다(34).

아들이 말씀으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36).

유대인들의 반발(33)

예수님의 최종 직격탄(37-38)

유대인들의 문제: 우리 조상이 훌륭하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산이 있다.

한 마디로 우리 조상은 그 훌륭한 아브라함이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 예수님은 이 문제를 정확히 짚어서 정곡을 찌른다.

37절: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

38절: 너희는 너희 아바 마귀가 하는 일을 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39-40).

유대인들의 반응: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39).

당시 사람들의 생각: 아브라함이 많은 공적을 쌓았으므로 우리는 그의 공덕을 의지해서 의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종교인들의 특성, 천주교를 봐라. 수많은 성인들, 마리아의 공적을 통해서 나가려고 한다. 부처도, 소크라테스도, 무함마드도 다 마찬가지

후대에는 저스틴 마터와 유대인 트리포의 대화: "아브라함의 씨인 유대인들은 죄를 많이 지어도, 제대로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영원한 왕국을 얻을 것이다."라는 주장

예수님의 반박(39-40).

아브라함의 행위를 해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사41:8)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순종함, 이것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진리에 즉각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 무려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주장

신약 시대 준비, 침례자 요한(마3:7-12)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에서 더 나아가 진리를 가져 오신 분,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을 배격하고 죽이려

함

우리 조상들이 훌륭한 성도들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요1:11-1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는가?

그 결과 우리 삶에 아브라함처럼 변화가 생겼는가?

아브라함의 씨가 있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다(갈3:7).

지금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씨, 그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거의 없다.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임을 주장한다. 과거 천주교의 박해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버리며 믿음

생활하였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들의 삶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거룩한 삶, 기도하는 삶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영적 조상이 누구인지 말해 준다.

말이 아니라 행위가 우리의 영적 유산을 말해 준다(마7:15-20).

영적 유산(41-47)

그런데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다른 존재일 수 있다(41).

유대인들의 반응(41),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왜 음행 이야기, 그들은 예수님이 음행을 통해 태어났다고 믿음(마리아의 수태와 출생 의심)

이미 1-11절,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음행, 너는 이런 음행을 통해 난 자다. 그런 네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사상애가 아니고 네가 사생아다.

영적 유산이라는 것이 까딱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다.

어려서부터 경건 훈련, 성경 읽기, 예배 참석 등 다 좋은데 아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강제로 믿게 하고 침례 받게 하고, 외적인 형태에만 집착하게 하면 안 된다.

종교인을 만들 수 있다. 내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나타나는 증거들

1. 그리스도를 사랑한다(42)

히1:1-3, 하나님의 정확한 이미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판단 등 모두 100% 하나님(38)

다른 하나님을 찾으려고 기웃거리면 안 된다.

2.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43)?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는가? 이해가 되는가? 복음이 이해가 되는가? 창조, 부활, 천국과 지옥, 내세가 믿기는가?

3. 쐐기(47)

유대인들은 성경 기록이 있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 소유, 태어나서부터 매일 읽음, 외움, 차고 다님, 기둥에 붙들어 맴(신6:5-8)

그런데 그 말씀들의 실제 의미가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음

그 이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아서, 다시 태어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구인가?(44)

44절, 그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마귀의 자식들이므로

그러므로 그들은 마귀의 피를 받아 마귀의 일을 하려고 한다(44).

대다수 사람들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물론 본인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사실이다.

마귀처럼 흉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대신 다른 뜻을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다.

마귀는 누구인가?(44)

1. 처음부터 살인자

2. 거짓말쟁이

에덴동산 사건을 보라.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알면서도 의심 유도

결국 그들을 죽임,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그리고 곧바로 가인은 아벨을 죽인다(요일3:12). 그리고는 거짓말을 한다(창4).

살인과 거짓말의 대표적인 사례: 사회주의 공산주의

모두가 잘 사는 유토피아 가능하다. 이런 거짓말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임, 적어도 1억명

잠언을 보라. 1:8-14, 6:6-11

이렇게 되는 이유: 진리가 속에 없다.

마귀의 반역(사14:12-14)

마귀는 모방자(고후11:13-15), 거짓된 의를 준다(롬10:1-4).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속임수의 명수: 거짓의 아비(44)

1. 스스로를 속인다. 2. 인생에 대해 속인다. 3. 그리스도에 대해, 4. 마귀에 대해, 5. 하나님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구원에 대해,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속인다. 지금 그 유대인들을 보라!

그리스도의 위대한 말씀(46)

나는 진리이다. 언행에 단 하나도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나는 죄를 용서해 주는 존재이다(8:11).

그런데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결론

우리 주변에 우리는 얽어매는 여러 종류의 속박이 있다.

가장 무섭고 위험한 속박: 속박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착각하는 것

지옥으로 가면서도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

무상 복지 지옥으로 가면서도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

왜? 죄와 육신과 마귀의 속박에 갇히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사람들의 아버지는 사탄 마귀이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 행(26:17-18)

우리가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이런 사람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자격이 있다.

아버지에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3ᄆᆞ 요한복음: 당신은 눈 먼 사람인가, 눈 뜬 사람인가?

성경말씀: 요9:1-41

요한복음, 사람의 상태를 본다. 하나님의 열심을 본다.

지난 몇 주 8장, 특별히 종교에 찌든 사람들. 조심해야 한다.

사람의 심각한 상태, 죄의 종으로 있으면서도 전혀 모른다. 종교적 전통, 혈통, 부귀영화, 명예 자랑

특징: 예수님과의 대화 시 늘 동문서답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43),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는가? 이해가 되는가? 복음이 이해가 되는가? 창조, 부활, 천국과 지옥, 내세가 믿기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의 아버지는 마귀, 마귀는 거짓말의 근원(44), 결국 마귀의 운명에 빠지다.

오늘 요9, 〈당신은 눈 먼 사람인가, 눈 뜬 사람인가?〉 영적으로 눈먼 사람과 눈이 뜬 사람

고후4:3-4, 41절의 긴 장이지만 전체를 살펴보려 한다.

눈 먼 한 장님이 종교인들의 허세를 만천하에 드러낸다.

우리 주님의 기적들: 메시아 표적, 인간의 필요 만족, 자신의 신용장, 영적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시발점

메시아 표적 중 하나; 눈먼 자를 고치는 것(마11:5), 요9장

오늘의 기적: 9장의 영적 소경, 10장의 거짓 목자 진짜 목자 분별 시금석

오늘의 주인공: 태어나면서부터 소경(1), 한 번도 하나님의 창조 세상, 부모 일가친척을 보지 못함

빛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삶, 모든 것이 어둠(8:12)

그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삶에 나타나니 모든 것에 변화가 생김

육신의 눈을 뜨는 것,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주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고 그는 그렇게 하였다.

이 사람의 변화의 과정을 순서대로 보자. 예수님을 믿는 과정 묘사

예수라는 사람의 등장(1-12)

당시 소경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구걸하는 것(8),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가족을 다 안다(8).

이 사람을 고친 날은 또 안식일(14), 종교인들 광분함(5:9)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2): 예수님은 그를 긍휼의 대상, 제자들은 신학의 대상(2)

당시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편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자기 자신 혹은 부모 혹은 조상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주변 형제자매들의 문제, 긍휼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큰 전제; 인간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 사망, 아담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모든 병을 어떤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날 때부터 소경인 이유 하나님만 아신다.

또 하나님만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의 선을 위해 바꿀 수 있다.

분명히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지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병의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 3-4절을 읽으면 된다.

1.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2. 나는 낮일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나는 그 일을 쉬어서는 안 된나.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직 낮일 때 해야 한다.

여러 차례 소경을 고치심: 1. 여기서는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함(6)

2. 두 명의 눈에 손을 대심(마9:27-31), 3. 침을 바르심(막8:22-26)

동일한 치유 능력, 그러나 방법은 다르다. 방법이 아니라 능력과 메시지를 보게 하심

진흙 사용: 1. 흙으로 인간 창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으로 오심, 실로암의 뜻: 보내어졌다(7),

이 소경도, 예수님도

이렇게 눈을 떴는데(7) 더 큰 문제가 발생함:

1.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가?(8-9), 2. 누가 눈을 뜨게 해 주었는가? 이 두 가지가 9장의 쟁점

사람들은 네 번이나 그에게 어떻게 나았느냐고 묻는다(10, 15, 19, 26).

1. 이웃들(15), 2. 바리새인들(15, 26), 3. 유대인들(19)

바리새인들은 증거를 없애 버리고 싶다. 백성은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모두의 문제: 어떻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이다.

우리들의 대부분도 이와 비슷하다. '누구'가 아니라 '어떻게'에 관심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바라보아야 한다(요3:4, 9). 이것이 기독교이다.

기적이 일어난 방법을 안다고 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소경의 대답(11), 예수라 하는 사람이 고쳐 주었다. 나는 하라고 하는 대로 하였다.

그런데 나는 그분이 누구신지, 어디 있는지 모른다(12). 병의 치유, 아직 영혼의 치유는 없음

그는 대언자이다(13-23)

바리새인: 당시 종교의 수호자 그룹 중 하나, 특히 백성의 대변인

바리새인들이 면밀히 조사한 이유: 진짜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것도 큰 기적: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고침을 받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더 큰 문제(14)

진흙을 이겨 바르고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병자를 고쳐 주었으면 할렐루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비방하려 함

또다시 예수님은 분열의 원인이 되심(9:16; 7:12-13)

바리새인: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16). 하나만 본다.

그들이 못 본 것: 그분은 안식일을 만든 분, 안식일의 주인, 안식을 주시는 분(마11:28-30)

소경의 대항,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그의 대답 그는 대언자(17)

모세, 엘리야, 엘리사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음. 증거를 없애려 함,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부모를 심문함, 2가지 질문(19), 1. 너희 아들이냐?, 2. 어떻게 보느냐?

부모의 대답 회피(20-21), 1. 우리 아들, 2. 그러나 모른다. 3. 그에게 물으라.

백성의 두려움을 본다. 출회 걱정(22), 인생의 끝이다. 그러나 진리를 거부하면 영원한 출회가 기다린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 한다. 부모는 함정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러면서 모두가 함정에 빠진다.

하나님의 사람(24-34)

바리새인들 다시 그를 부른다. 맹세하게 한다(24).

그들은 재판관: 그런데 편견을 가지고 시작한다(24). 즉 그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라.

그런데 거지는 용감하게 진실을 말한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신학적 논쟁을 할 수 있는 지혜, 언변도 없다(25).

사실만 말한다(25).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

네 번째 조사(10, 15, 19, 26).

소경은 화가 났다(27). 평생 보지 못하다가 눈이 열렸다. 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회당에 갇혀 있다니.

그리고는 묻는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27)

바리새인들: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5:26). 새로운 진리를 전혀 수용할 주 모른다. 죽은 정통이다. 이것이 종교인의 특성

우리는 모세는 알지만 그는 모른다(29),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심. 니모데모의 판단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들은 이런 사실 사그리 무시함

그들의 판단: 음행을 통해 난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함

소경의 놀람(30-33): 어떻게 그를 모를 수 있느냐?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치려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와야 한다(33). 우리는 이것을 믿는가?

바리새인들의 책망(34), 그는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죄를 벗어날 상태가 되어 있다.

내 눈을 고쳐 주신 분, 그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35-38)

예수님, 이 사람 출회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오신다(35).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최고의 지식,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다. 대언자가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35),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거지의 대답(36-37)

그는 그분을 믿고 경배하였다(38). 바로 여기에 회심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고백: 침례자 요한(1;34), 나다나엘(1:49), 베드로(6:69), 예수님(5:25; 9:3 5), 소경 거지도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 여기에 영생이 달려 있다. 아들은 곧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5:18)

그런데 NIV, 기존 성경,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35)

사람의 아들도 예수님의 타이틀, 아들은 앞에 있는 명사와 같은 것을 의미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성, 사람의 아들, 사람, 인성

논의의 초점: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났느냐(29, 33)

거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즉 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구원자로 믿느냐? 죄를 요서해 줄 수 있는 존재로 믿느냐?

그의 대답: 주여(36)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요20:30-31), 요일5:20

다수 사본들, 하나님의 아들(루터, 제네바, 틴데일 등), 소수의 천주교 사본들 사람의 아들

우리는 다수사본을 통한 하나님의 성경 보존을 믿는다. 특별히 가장 널리 파급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교훈(39-41)

세상에는 보는 자들이 있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나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39).

보지 못하는 자들: 여기 소경 거지처럼 단순히 육신의 질병,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 수용

보는 자들: 바리새인들, 다 안다고 뻐기는데 진리가 들어가면 배척한다.

즉 영이 가난한 사람, 영이 부요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만 주님의 진리를 수용한다(사66:2).

요1:12-13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들의 반문(40), 우리도 눈이 멀었느냐?

예수님의 대답(41), 소경 거지처럼 눈멀었으면 진리를 발견하고 죄들의 용서를 받을 텐데 다 안다고 하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지옥행이다.

우지 주님의 선포: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8:12; 9:5).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이다. 이런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소경 거지: 육적으로 영적으로 소경,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수용하고 순종하고 믿고 경배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는 한 것이 없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고 신뢰하였다.

소경 거지는 올바른 선택, 많은 희생 감수, 그러나 그는 점점 더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잠4:18).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의 연약함, 무능함, 타락, 어둠, 죄를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리에 반응한다. 보수주의자

반면에 나는 완벽하다.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 건설, 좌익(동성애, 낙태, 진화론, 차별금지법), 진보주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31 요한복음: 교인들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자 구분하기

성경말씀: 요10:1-21

요한복음, 사람의 상태를 본다. 하나님의 열심을 본다. 최종 목표: 영원한 생명

지난 시간, 8장 모든 사람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다.

그런데 빛이 비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요9장,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이야기, 육신의 눈이 열림, 영의 눈이 열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께 경배함

보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보게 되고 본다고 뻐기는 사람은 영원히 못 보고 죄 가운데서 죽는다.

연이어서 요한복음 10장, 오늘 〈 〉 양과 목자의 관계, 참 목자와 거짓 목자 구별하기, 참 목자가 하는 일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양과 목자

양, 문, 우리, 목자, 시골 배경,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보여 준다.

성경에는 창조 기사부터 양과 목자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 시23

양(*),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축으로 건조 지대에서 잘 자라는 초식성 짐승. 온몸에 가늘고 곱슬곱슬한 털이 빽빽하며 소화력이 왕성하다. 임신 5개월 만에 한두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1년에 두 차례 출산 가능). 성질이 온순하고 무리를 지어 지낸다. 성경에서 처음 소개된 짐승이자(창 4:4), 무려 500회 이상 언급될 정도로 성경 역사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양은 무엇보다 희생 제물로 사용되어(출 20:24; 29:22; 민 22:40; 요 2:14) 번제 헌물(레 1:10), 속죄 헌물, 화평 헌물 등으로 드려졌다. 그리고 양은 성경 시대에 큰 재산이자 생계 수단으로서, 중요한 물물 교환 수단으로 쓰였고(왕하 3:4; 겔 27:18-19), 젖(사 7:21-22)과 고기(삼상 14:32)를 제공했으며, 의복과 이불에 소용되는 가죽과 양털(레 13:47-48; 욥 31:20; 슥 13:4; 히 11:37)을 공급해 주었고 또 성막의 덮개(출 25:5)까지 제공했다. 그리고 숫양의 뿔은 나팔(수 6:4-5)이나 기름 담는 그릇(삼상 16:1)으로 사용되었다.

양의 특징: 온순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늘 순종적이고(사 53:7), 쉽게 정이 들며(삼하 12:3), 주인이 그 이름을 불러주면 잘 따르고(겔 34:11-12; 요 10:3-5),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며(사 53:7; 렘 11:19; 미 5:8; 마 10:16; 요 10:3-4), 혼자서는 장애물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마 12:11) <u>반드시 돌보아주는 목자의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한다</u>(민 27:17; 겔 34:5; 마 9:36; 26:31). 양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물(창 29:8-10)과 초장(출 3:1; 시 23:2), 보호(욥 30:1)와 휴식(시 23:2) 등이다. 이것을 제공하는 자가 바로 목자이다.(*)

이 같은 양의 속성과 그 양에게 절대적 존재인 목자와의 관계를 놓고 보면, 성경에서 양과 목자가 신학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다양한 의미로써 소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편, 성경에서 양은 목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시 74:1; 겔 34:11-12, 15), '하나님의 자녀'(요 21:15-17; 히 13:20), 늘 고난에 직면해 있는 '성도'를 의미하며(요 10:1-16; 벧전 5:2-3), 또 무죄함(삼하 24:17), 의인(마 25:32-33), 구원(마 26:31-34), 험악한 세상 가운데 보내진 복음 전파자(마 10:16; 눅 10:3), 교회(행20:28), 혹은 부정적으로 악인(시 49:14), 진리에서 떠나간 자(렘 50:6), 각기 악한 본성을 좇는 죄인(사 53:6; 마 9:36; 10:6; 벧전 2:25) 등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공생애 동안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며 사랑하셨다(막6:34).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히 13:20)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u>양의 가장 큰 특징: 스스로 살 수 없다. 반드시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u>

사도 바울의 교회 설명(행20:28), 목사의 필요성

양 우리와 문(1-10)

양 우리(1), 광야 초장으로 가면 바위, 돌 등으로 사방을 막아 놓은 공간, 문이 하나 있다.(*)

목자는 반드시 문을 통해 들어간다(1-2). 그러나 도둑과 강도는 담을 타고 들어간다.
광야에 있으므로 여러 목자들의 여러 양 떼가 섞여서 잠을 잠
아침에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부르면 자기 주인을 따라 밖으로 나선다(3).
낯선 자들의 경우 양들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한다(5).

소경을 고친 뒤 왜 양과 목자 양 우리, 도둑, 강도 등이 나오는가?

요8,9장 빛과 어둠, 수많은 양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 목자
당시 목자를 자처하고 나선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박사,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의 특징: 본다고 주장하는데 영적 진리에 관한 한 소경이다(요9:41).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구원에 대해 무지하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모태에서부터 눈 먼 자의 눈을 열어 줌, 소경도 알아본다(9:30).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오히려 그분이 마귀 들렸다고 한다.
오로지 자기들이 만든 규정들로 사람들 판단, 그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의 현실
예수님의 판단(8)
당시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지 의아하게 여겼다(6). 깨닫지 못하였다.
비유: 어둠에 갇힌 말을 뜻한다. 씨 뿌리는 자, 가라지 비유 등의 비유가 아니라 어둠에 갇힌 말
1절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크리스천 구원은 오직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 문맥에서의 양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말씀(16), 다른 양들도 있다. 교회(유대인, 이방인들의)의 형성, 예언
즉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로 참된 목자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신다. 양들은 그의 말을 듣는다(4).
8:4의 의미,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양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7-10)

추가 설명, 나는 양들의 문이다(7), 8절: 바리새인들의 행태: 자기들을 통해 들어가라(마23:15)
8절 추가 설명: 구약 시대 대언자들 전체를 말하지 않는다. 현재로 쓰임, 그 당시 그들
주님의 판단: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니다.
양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착취하고 남용하고 죽인다.
거지 소경을 보라. 그의 병 고침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를 탄압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다. 결국 추방하고야 만다.
바리새인들: 탐욕(눅16:14), 서기관들 심지어 과부들 강탈(막12:38-40)
하나님의 성전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꿈(마21:13)
결국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내어 줌(요11:49-53).
그런데 양들이 알아본다(8): 그들은 거짓 대언자들이다(겔34:1-6).
양들은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야만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9).
여기의 구원, 병에서, 배고픔,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 물론 최종적인 구원 포함

나는 선한 목자다(11-18)

I am. 나는 생명의 빵(6:35), 세상의 빛(8:12), 나는 문(10:9), 선한 목자(11)
도둑이 오는 목적과 내가 온 목적(10)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사람, 거짓 목자는 양들을 죽이고 착취하는 사람
1. 선한 목자: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람(11), 거짓 목자: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고 헤치는 사람(12)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히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 그분을 문으로 삼고 들어가고 나가야 한다.

구약 시대: 양들이 목자를 위해 죽는다. 신약시대: 목자가 양들을 위해 죽는다(11).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대신 속죄 희생 강조하심(양들을 위해)(10:11; 15; 17-18)
시대가 바뀌었다.

2. 목자와 삯군(13) 목자는 값을 치르고 양들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는다.
그러나 삯군들은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 자기 양이 아니다. 위험이 오면 도망간다.
9장에 나오는 소경 거지를 보라.
누가 참 목자인가? 예수님인가, 바리새인들인가?

3. 목자는 자기 양을 개인적으로 안다(14-15).
양들의 이름을 안다(10;3).
양들의 성품을 안다. 12제자를 보라. 베드로, 도마, 요한 등
양들의 특별 사정을 안다. 그들의 필요를 안다.
그 결과 양들은 더욱더 목자를 잘 알게 된다. 믿음 생활의 진보

4. 선한 목자는 다른 양들도 한 떼로 데려간다(16).
초림의 주 대상: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거부, 오순절 이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 신비(엡2:11-16)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3;16),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유대인들의 반응(19)

또 다시 분열(7:43; 9:16)
그는 마귀 들렸다. 그의 말을 듣지 말라(20).
그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마귀 들린 사람이 눈먼 사람 눈을 열어 줄 수 있느냐(21)

진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반발과 분열이 생긴다.
예수님은 문: 필연적으로 문 안에 있는 사람, 문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은 목자: 양과 염소를 나누는 사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해 중립이 되는 것은 불가능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8:24)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
1.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믿으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 킹제임스 성경
2. 오직 예수님만 문이고 선한 목자이다. 다원주의 등 no!
3.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4.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
5. 세상에서 빛과 소금: 공산주의/사회주의 동성애 낙태, 차별금지법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공의 실현해야 한다.
감사원, 검찰 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 실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주님과 그분의 가치들로 인해 반드시 분열이 생겨야 한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올바른 양, 양들의 모임

이런 분리가 생길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눅12:29-32).

더욱이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이라 소개한다(요1:29; 고전 5:7; 계 5:6-8).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히 13:20)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거하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사 11:6; 65:25).

32.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성경말씀: 요10:22-42

요한복음은 아주 신학적이다. 특히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려고(3:16)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예수님의 경고(8:24), 그가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고백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지금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 등장; 구원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차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가?

지난 2주 영적 무지에 갇혀 있는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본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보지 못한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백성을 죽이는 일을 한다(요10:8-10).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생명을 준다(14). 내 양들을 안다(14).

이 말씀이 들어가자 백성들 가운데 분열이 생김(19)

진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분열이 생긴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기절할 말씀을 하신다. 〈 〉, 하나님의 아들, 하나, 아들이 하는 일(28):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등 설명할 것이다.

배경

지금까지의 일들 장막절 기간(7:2), 공생애 3년 된 시점, 장막절은 지금의 10월 10일경

오늘 일은 성전 봉헌절(22, 수전절), 하누카 명절, 겨울, 12월 25일경, 두 달 반 지난 시점에 다시 한 번 선한 목자와 양들의 관계를 이야기하신다(26-28).

하누카: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동상을 세워 성전을 더럽히자 B.C. 164년경 유다 마카비(Judas Maccabeus)가 군사를 일으켜 시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축제다(외경 마카비상 4:52-59; 마카비하 10:5). '봉헌절' 혹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하누카'라고 한다. 유대 종교력 9월(기슬르 월, 양력 11-12월) 25일부터 8일 간 지켜졌다(요 10:22). 요세푸스(Josephus)는 이 절기를 '빛의 절기'라고 불렀다(Ant. Ⅻ, 5:4). 수전절이 되면 ①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는 가지가 여덟 개인 촛대에 하루에 한 등씩 불을 밝혀 8일째는 촛대의 불을 모두 밝혔다. 이런 점에서 수전절은 '등화제'(Lights)로도 불렸다.

봉헌: dedication, 한 목적으로 구분되어 드려짐, 예수님도 마찬가지(10:36)

예수님은 솔로몬의 주랑(23), 커다란 대리석 기둥, 백향목, 아름다운 건물, 46년 걸림, 동쪽에는 올리브산

그리스도인지 분명하게 밝혀라(24-30)

불신 유대인들이 그분에게 다가와서 물음(24):

<u>그리스도인지 아닌지</u> 분명하게 대답하라. 사람들의 동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그분께로 감

주님의 말씀(25-30)

1. 이미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25). 요5:17-18
2.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요3:2 니고데모, 9장의 소경(32-33)
3. 그런데 너희는 믿지 않는다.
   이유: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9:44), 더욱이 너희는 강도요 도둑이요 삯군이다(10:8, 12).
4. 내 양들의 특성(27): 그 이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8:43)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될 때 알아들어야 한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하나님의 아들 설명, 알아들어야 한다.
5. 내가 그들에게 하는 일(28): 영원한 생명을 준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요3:16; 6:39; 17:12).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

1.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보장된다. 히7:25,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2. 이 생명은 선물로 주어진다. 내 행위에 따른 보상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엡2:8-9).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다(롬11:6).

구원도 은혜로, 구원 유지도 은혜로

3. 아버지보다 더 큰 자는 우주에 없다(29). 롬8:38-39

주님보다 힘이 강한 자는 아무도 없다. 엡4:30,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4. 주님은 자신의 양들에 대해 말씀하신다. 거짓 신자들도 있다. 개나 돼지도 있다(벧전2:20-22).

그러나 양은 반드시 자기 주인을 따른다. 말을 알아듣는다. 영원한 생명 소유

5. 구원 취소를 가르치는 자들: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위협하는 것이다. 두렵게 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이단들의 특징: 우리만 교회다. 우리만 구원 있다. 우리를 떠나면 구원을 잃는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30).

드디어 대포를 쏘신다(30). 그들의 요구대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24).

하나라는 말(one), 아버지와 내가 동일 인물이다. 큰일 나는 말, 이렇게 되면 양태론이 된다.

나는 하나, 아버지, 남편, 교수, 목사

성경의 하나, 창2:24, 포도 한 송이, 여러 포도 한 송이

신6:4, 한 주

삼위일체: 아버지, 아들, 성령님, 뚜렷이 구분되는 세 인격체, 한 하나님(창1:26, 11:7 등의 우리)

마3:16-17

요일5:7(*)

여기의 '한'은 본질상 동일하다는 것이다.

권능, 영광, 지혜, 거룩함, 영원함, 일, 권위 등 하나님의 모든 속성 면에서 동일하다.

유대인들 정확이 이 말을 이해하였다(33).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즉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신성모독,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레24:16 등). 31절

예수님의 응답(32), 유대인들 대답(33)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34-36)

예수님의 설명, 출22:28(*)

신들; 히브리말은 엘로힘, 신들로 번역됨(출22:28), 여기의 신들은 재판관(치리자)들

개역성경 등 재판관(그러나 이렇게 하면 안 됨)

창1장의 하나님은 히브리말로 엘로힘

출22:28의 신들의 의미(35)

신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성경 말씀은 확실하여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35).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며 재판하라고 임명한 자들도 신들이라 불렸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분해서 세상에 보내 자이다(36).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다(요5:25). 그게 무슨 신성모독이냐?

너희가 분명하게 말하라고 해서 이미 분명하게 여러 차례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확언(37-38)

9장의 소경 거지를 보라. 그는 나를 알아보지 않느냐?

예수라 하는 사람, 대언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경배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양심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라.

오병이어 기적을 보라. 소경 거지 기적을 보라.

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만 하신다.

그런데 실제로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 나는 누구냐,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자, 그게 누구냐,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사35장 설명

그런데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왜 분명히 말해 달라고 하느냐?(24)

이쯤 되면 현실을 파악해야 하는데 종교인들은 오히려 그분을 붙잡아 죽이려고 한다(39).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 요르단 간 근처로 피신하심(요1:28), 베다바라

이제 유월절, 십자가 처형까지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시고 마지막 한 주산을 준비하신다.

요10의 예수님

1. 나는 문이다. 믿음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갔는가?
2. 나는 선한 목자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신뢰하였는가? 우리는 그분의 야인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주셨다.
3.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믿는가? 영원한 안전 보장(28-29)

예수님의 경고(8:24)

33 요한복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성경말씀: 요11:1-44

요한복음은 아주 신학적이다. 특히 구원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그런데 죄로 인해 모두가 죽는다. 모두가 무덤에 간다.

이런 것을 겪는 사람이 영원히 살려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영원한 생명은 부활이 있어야 가능하다.

대다수 사람들: 죽으면 끝이다. 대다수 종교들: 다시 태어난다. 윤회

그러나 기독교: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산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정죄의 부활이 있다.

사도 바울의 표현(고전15:19),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

왜 부활이 필요한가? 15:47-53

오늘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이 부활할 것을 보여 주신다.

그것도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심으로써

나사로 부활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일곱 번째 기적(마지막 기적)

지상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기적'

그 이후에 주님 자신의 기적, 〈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의미, 나는 정말로 부활하는가?

또한 1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을 본다.

인간은 땅에 속한다. 땅의 시각, 하나님은 하늘의 시각

사고가 나서 차들이 가지 못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면 어디가 막혔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어디가 막힌지 보인다.

시각의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든다.

예수님과 제자들,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 사람들의 대화, 시각의 차이

또한 오늘 보게 되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소망이 하나도 없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혼, 아이들 속 썩이는 것, 직장을 잃는 것, 정말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모든 일,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과 사울 앞에 골리앗이 나타난다. 40일 동안 나와서 외친다.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다윗이 나타나니 게임이 달라진다.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태를 파악하였다. 결국 무릿매의 돌로 그를 죽여 버렸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다.

배경(10:39-42)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가운데 3년 이상이 흘러갔다. 마지막 장막절, 그리고 성전 봉헌절

줄기차게 백성을 설득하고 영원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또 요9에서 하나의 엄청난 기적,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열어 줌,

이 정도가 되면 그분의 말을 믿어야 하지 않는가? 변화가 없다. 오히려 그분을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의 설명: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들은

믿어야 한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이들이 다시 죽이려고 하므로 요르단 너머로 피신하심((39-40)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41), 그리고 그분을 믿음(42), 말씀 사역의 부흥

이때에 문제가 발생함(11:1-16)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2),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을 보면 심각한 병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눅10:38-42, 베다니 사람들, 마르다는 쾌활하고 일에 분주한 여인

마리아는 조용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 나사로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두 여인의 동생

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정도이면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매우 친밀한 관계

이후의 대화를 보면 제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미스터리가 있다.

1. 나사로가 아픈데 왜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죽게 내버려두실까?

2. 그 소식을 듣고도 즉시 가지 않고 왜 이틀을 더 머무실까?(6)

3. 요4:43-54, 가버나움에 사는 어떤 귀족의 아들, 아버지가 간청하자 멀리 가나에서도 고쳐 주시지 않았는가? 왜 안 고치실까?

우리가 보게 되는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신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픈 사람, 죽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자.

아버지가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십자가 고통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하신다.

제자들과 대다수 우리들의 바람: 빨리 가서 죽기 않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의 관점(4)

1. 하나님의 영광(시50:15),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메시지, 내 때(2:4; 7:6, 8; 8:20; 12:23; 13:1; 17:1)

나사로의 경우: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에 그는 이미 죽었다.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 더 이상 사람들이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려고

요한이 기록한 기적 중 최대의 절정의 기적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부패된 시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 주면 더는 할 말이 없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임

예수님과 마르다(17-29)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17), 전갈이 온 날 바로 죽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킬로미터,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 위로함(19)

마르다가 그분 있는 데로 나감(20)

마르다(21-22),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말, 나쁜 말, 틀린 말이 아니다.

"왜 사고가 나도록 그냥 두셨나요? 그때 도와줄 수 없었나요?"

예수님은 전혀 책망하지 않으신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라. 지금부터 7년 전, 2013년 11월 17일, 같은 본문 〈성도가 울면 예수님도 우신다〉, 당시 교회에 어려 가지 어려움, 차를 타고 가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였다. "힘이 듭니다.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아무 문제가 아니다.

오해하는 분들: 성경대로 믿으면 절대 울부짖으면 안 되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아뢰면 안 된다.

다윗의 시편을 보라. 자기의 어려움, 감정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한다.

성경은 우리의 영과 혼을 주님께 쏟아놓으라고 말한다.

하박국을 보라. 왜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 잘됩니까?

주님의 대답(23)

마르다의 대답(24),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미래의 일입니다.

주님의 대답(25), 네 말이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지금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요한복음의 I am. 다섯 번째, I am. 나는 생명의 빵(6:35), 세상의 빛(8:12), 나는 문(10:9), 선한 목자(11),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구약 성경 단12:2-3, 13 등에 부활, 그러나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신다.

딤후1:10,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사람 몸의 부활을 세 가지로 보여 주심:

1. 가르치는 교리로, 2.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로, 3. 본인 자신의 부활로

교리의 경우

1. 사람은 죽는다, 2. 죽음 뒤에도 생명이 있다: 부자와 나사로(눅16), 3.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요 5:28-29).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 성경에서 교리를 꺼내서 자신에게 적용하심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11:25).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하게 하는 것: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분이 생명이므로

어떻게 우리가 부활: 그분이 부활이므로

몸이 아프다: 의사가 필요하다. 의학 서적이 아니라

고소 사건: 법전이 아니라 변호사가 필요하다

죽음: 부활 교리가 아니라 부활이신 분이 필요하다.

교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교리가 정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리가 아니라 그 교리가 가리키는 분, 그분이 부활을 일으킨다.

마르다의 반응(27), 아주 훌륭한 믿음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구약 성경에 예언된 여자의 씨, 인류의 구속자), 하나님의 아들(당신은 하나님), 이것이 부활 신앙의 핵심이다.

예수님과 마리아(30-37)

마르다가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28).

마리아가 그분이 계신 곳으로 그분을 만나러 나감

역시 동일한 말(32)

예수님의 고통(33)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히4:14-16)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죽는 것, 부모님, 성도들, 최정래 자매 등

이 문제를 직접 체험하시고 해결하시려고 오심(히2:14-18)

드디어 예수님도 우심(35), 왜 우셨느냐? 쓸데없는 이론 들고 나서는 사람들, '럭크맨이 이렇다 저랬다.'

다 헛소리, 성경의 해석은 문맥에 따라 한다. 매튜 헨리, 위어스비, 정상적인 해석

앞뒤 문맥을 보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 특히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심

사람들의 반응을 보라(36): 그를 사랑하셔서 우심

나사로야 나오라(38-44)

드디어 무덤으로 가신다. 무덤(38)

유대인들의 무덤, 돌무덤, 산에다 굴을 파서 시신을 거기에 안치함

평민들의 경우 보통 동굴에 8구의 시신이 들어간다. 나사로 전에 이미 들어간 시신들이 있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39),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의 대답(39)

주님의 대답(40): 나사로가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한다.

주님은 이때에도 마르다를 꾸지지 않는다.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반응

주님의 아버지 찬양(41-42)

드디어 돌이 옮겨졌다. 동굴에 빛이 들어간다. 나사로의 시신, 다른 시신들

주님의 선포(43), 나사로 나오라!

사람들이 쳐다봄, 죽은 자의 몸이 움직이더니 그가 걸어서 나옴(44), 사람들의 기쁨

결론

우리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르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때에 기쁨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계21:4)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

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의 썩을 몸을 변화시킬 수 잇는 분, 창조자, 구원자, 재림자

34 요한복음: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성경말씀: 요12:1-11

요한복음은 총 21장, 공생애 3년 반, 예수님 장막절 탄생, 30년 뒤 장막절부터 공생애 시작, 그 이후 3번의 장막절, 공생애 기간 총 4번의 유월절, 이제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온다.

요1-11장까지 약 3년 반, 12-21장까지 약 1달(마지막 1주의 고난 주간 포함)

7번의 기적을 보이시며 사람들 설득, 11장, 마지막으로 가장 큰 기적,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심, 오늘 읽은 12장은 나사로 부활 사건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유절 엿새 전 사건(1)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 〉,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삶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11:45-57)

앞으로 진행될 십자가 처형 등의 배경을 알려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잠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나사로의 부활, 사람들이 또 둘로 나뉨(11:45-46): 믿은 사람(45),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하는 사람(46)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회(47)

산헤드린 공회: '함께 둘러앉는다'는 뜻.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통치) 기관

1. 기원 -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회(민11:6)에 기원을 둔다. B.C.3세기경 장로 중심의 귀족 회의에서 출발하였다.
2. 직제 - 대제사장이 의장이며 공회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제사장 계급을 독점),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들로 구성되었고, 율법에 따라 70명을 정수로 하였다(의장 포함 71명).
3. 권한 - 로마 통치하에서도 정치 문제(사형권은 로마 당국에만 있었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으며,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주로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주관하며,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문제들을 다루었다.

(*) 자 킹제임스 성경에는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47), 다른 성경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어느 것이 맞는가? 이스라엘에 대제사장은 1명밖에 없다. 49절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1명 있고 그 밑에 장관과 같이 여러 일을 맡은 수제사장들이 있고 일반 제사장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수제사장들이라고 해야 맞는다. 그래야 오류가 안 생긴다.

이들이 공회에서 한 말(47-48)

기적들을 많이 행한다. 사실이다(47).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는다.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간다. 그가 메시아로 왕국을 건설하면 로마 사람들이 그대로 두지 않는다. 터전은 성전 혹은 그들의 밥벌이 장소

가야바의 대언(49)

가야바, '억압'이란 뜻.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사두개인).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에게로 계승되며 종신직이었지만 로마 지배하에서는 일반 관직처럼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 임명도 되고 해임도 되며 심지어는 매관매직되기도 하였다. 가야바는 A.D. 18-36년까지 대제사장 직책을 맡았다.

가야바는 이미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대언을 주심(51-52)

그분의 죽음: 유다 민족 + 널리 흩어진 하나님일 자녀들을 위해 죽어야 한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53), 예수님과 제자들을 시골로 피신함(54), 에브라임, 예루살렘 북쪽 24km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이 옴(55), 사람들이 몰려옴(55), 예수님을 찾음(56), 종교인들의 대비(57)

베다니 잔치(12:1-11)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옴, 3킬로미터 떨어짐

이 사건은 마태26:6-13, 마가14:3-9,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실제로 식사는 어디에서 하였나? 마르다의 집이 아니라 나병환자 시몬의 집(막14:3)

여기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 그런데 눅7:36-50에는 다른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

그 사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시몬은 아주 평범한 이름(철수 영희 등), 갈릴리에서 일어남
이것은 유대에서 일어남, 거기 여인은 아마도 창녀 같은 직업, 여기는 청순한 마리아
마르다와 나사로(2), 눅10:38-42, 마르다는 쾌활하고 일에 분주한 여인, 마리아는 조용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 나사로 역시 조용한 사람
여기서도 보면 여전히 마르다는 섬기느라 바쁘다. 나사로는 조용히 앉아 있다(2)
마리아의 등장(3), 속이 깊은 여인,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복합적으로 보면
나드 향유 한 근(파운드), 그분의 머리(마26:7)와 발(요12:3)에 붓고 머릿털로 발을 닦음
마리아는 주님이 곧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알고 순수한 사랑을 표시함
성경에 이 마리아는 세 번 나온다(눅10:39; 요11:32; 12;3).
그런데 그때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
이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경청의 결과 주님이 죽으셔야 함을 깨달았고 그것도 유월절
어린양으로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함을 깨달았다. 대다수 남자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한 상황
즉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 줌
대다수 사람들 장례식에 꽃을 들고 간다.
그러나 마리아는 미리 그분이 살아 계실 때에 꽃을 들고 감
나드 향유 한 근, 보통 사람 1년의 봉급
유대인들 더운데 살고 물이 귀하므로 향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나드 향유가 베스트
구약 시대, 다윗의 인구 조사(삼하24),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려 함,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짐승들, 아라우나(24;22) 그냥 가져다가 헌물을 드리십시오.
다윗(24;24),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향유를 부으니 집안에 향유 냄새, 주님의 말씀: 이 여인의 선한 행위를 온 세상 모든 곳에 알려라(마26:13;
막14:9)
당시 마리아는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원어로 기록된 그 말씀이 모든 나라 말로 번역되어 지금도 우리는 마리아의 선한 행위를 읽고
감동을 받는다. 즉 성경의 보존, 번역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심
무엇을 보는가?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신다. 맞는다.
그런데 속이 올바르면 반드시 겉도 바르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옷 문제, 섬김, 헌금 등, 하나님 앞에서 회계 보고한다.
자 일이 이렇게 진행되자 가룟 유다가 등장함(5), 다른 제자들도 동조함(마26:8)
다른 제자들은 그가 마귀인 것을 알지 못함(요6:70).
유다의 말에 감탄함
우리도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함
일회용으로 1년치 봉급, 2-3000만원을 써야 하는가?
목사나 개인을 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역사적인 사건, 마리아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일을
하고 있음,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칠 수 있는가?
유다는 돈주머니를 관리하던 자, 그는 거기서 돈을 빼가는 도둑이었다.
실제로 가나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 한 말이다(6).
그는 이미 예수님을 버리겠다고 결심함 돈이 필요해서 이런 말을 함
보통 좌익에 속한 자들이 이런 위선을 보인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누구보다도 더 돈, 명예, 권력을 많이 챙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 기사에서 마리아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면 마르다와 나사로는 무슨 일을 했는가?
예수님께는 마리아만 중요한가? 아니다.

1. 마르다는 여전히 열성적으로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92).

지금 마르다는 시몬의 집에 초청받아 온 손님이다. 그런데 주인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

자기 몸으로

롬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러므로 열심히 직장 다니기, 사업 잘 운영하기, 식사 준비, 설거지, 자전거 고치기, 같이 산책하기, 공부 열심히 하기, 재정 지출 잘 맞추기 등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마르다의 식사 섬김이 있어서 그 모임이 기쁨이 되었다. 먹어야 기쁘다.

마리아처럼 앉아서 말씀 듣고 잘 깨달은 뒤 이렇게 꼭 필요한 때에 향유 옥합을 깨서 바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데서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섬길 일이 매우 많다.

모두 마리아가 되려 하면 교회는 유지되지 않는다. 즉 대다수 성도들이 마르다처럼 자기가 맡은 일을 열정적으로 해야 마리아 같은 사람이 빛을 발하게 된다.

즉 교회는 다수의 마르다로 구성되어야지 마수의 마리아로 구성되면 아무 일도 못한다.

2. 자 그러면 나사로는 무슨 일을 하는가?

2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잇는 것으로 나온다. 나사로가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다.

그런데 9-11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옴, 결국 종교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함

즉 그의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다. 17-18 참조

나사로만 나타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자동으로 증언됨

사도행전 이후의 예수님의 증인,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죽는 순교자를 뜻함

우리들 역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걸어야 한다(롬6:3-4).

결론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즉 마리아는 예배, 마르다는 일, 나사로는 증인

바로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야 함.

사람인지라 100% 균형을 잡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 교회에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함

그러나 종교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도 죽이려고 함(10)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함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요 8:44-45)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

나의 섬김

지난주 기회가 있어서 몇 가정과 함께 식사함

우리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올까? 자기의 기득권, 전통, 생각 다 내려놓고 진리, 오직 진리를 탐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려는 사람들만 온다. 그래야만 한다.

나는 목회라고 하기가 부끄러운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걸하는 목회를 한 적이 없다.

우리 교회의 발전과 부흥: 목사의 성품 등을 보면 불가능하다.

다만 목사는 진리만을 전하려고 애쓴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Total truth를 가르친다. 이것이 나의 섬김이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날이 닷새 남았다.

그분의 사역을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심지어 제자들도 모른다.

그런데 이 중대한 시점에, 외로운 시점에 마르다가 열심히 섬기고 나사로는 부지런히 증언하고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 향유를 부음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목사를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기 바란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시간으로, 재물로, 열정으로

35 요한복음: 예수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한 알의 밀이 되시다

성경말씀: 요12:12-26

이제 드디어 3년 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 이제 십자가까지 닷새 남음(1). 유월절 어린양, 유월절에 죽으셔야 함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인간 구원, 사랑, 기적을 보여 주시려고, 인간의 행복, 다 맞는 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있는 그대로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고 보아야 함

그러나 예수님 초림의 원래 목적은 무엇인가? 눅1:30-33, 눅24:19-20

하늘에서 오는 왕국을 세우시려고(단2:44).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 하늘의 왕국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동방 박사들(마2:2), 요한(마3;2), 예수님(마4:17), 제자들(마10:7))

사도행전의 제자들 왕국의 도래(행1:6)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이 땅에 왕국을 설립하는 것, 왕이 필요하다. 3년 반 사역의 핵심 "내가 왕으로 왔다!" 알리고 표적들로 증명하심

드디어 유월절 닷새 전에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중요 토픽, 4복음서에 기록됨〈 〉, 어떤 왕인가? 그분의 죽음의 의미

배경

요11장에서 나사로를 일으키심, 종교인들의 박해, 멀리 시골에 갔다가 유월절 시즌에 베다니에 오심

요12장 사랑하는 자들과 식사 교제, 부활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수군댐

결국 종교인들 그분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함(10).

종교 지도자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번에 해결해야 한다.

유월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옴,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신다.

왕의 예루살렘 입성(12-19)

군중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들음(12)

종려나무 가지, 환영(13)

예수님은 어린 나귀에 타심(14)

예언 성취(15)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군중들 시118편 인용, 메시아 시편(118:22-23, 26)

약 150년 전에 유다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스 사람들 축출함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돼지 희생, 마카비가 다 내쫓음, 성전 봉헌절, 하누카

이때에도 시118편 낭송, 메시아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의 정치적 염원 표시, 2차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는 동전의 심벌로 사용됨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애국심의 표현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 사람들 축출하는 것 기대

예수님은 500년 전 스가랴 대언자의 예언을 성취하신다. 슥9:9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복음 19장 기사를 보면 나귀를 데려오는 과정도 이미 섭리로 이루어짐

이것을 통해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왕(나다나엘의 말 요1:49)임을 입증하심

또한 자신이 느부갓네살, 고레스, 알렉산더, 시이저 같은 왕이 아님을 보여 주심

왕의 입성, 대단히 화려한 행진,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나귀는 왕가의 짐승, 평화의 짐승, 새로운 모습의 왕, 아무도 이해하지 못함(16)

군중들의 함성, 특히 나사로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언(17)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18)

바리새인들의 결론(19)

입성 후 하시는 일(눅19)

종교인들의 투정(눅19:39), 예수님의 대답(눅19:40)

예수님은 입성 후 그 도시를 보고 우신다(19:41).

이유: 3년 반 동안 기회를 주었으나 깨닫지 못한다.

너를 돌아보는 때, 방문하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다(19:44).

문제의 원인: 지도자들의 타락(19:45-46), 성전 청소, 내 집은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

우리는 어떤가? 주님이 방문하시는 때에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종교인인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인가?

왕을 구하는 그리스 사람들 (20-22)

이 와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등장한다. 요한복음에만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 기묘한 것들에 관심이 많고 찾아다닌다. 그래서 유월절 행사에 참석함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과 달리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였다. 제자들에게 부탁함(빌립, 안드레)

예수님 초림의 1차 목적: 유대인들의 메시아, 왕

그러나 동시에 복음서는 여러 곳에서 신약시대에 이방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구원받는 것을 보여 줌

마태복음 시작: 동방의 이방인 지혜자들(마2), 예수님의 말씀(요10:16),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11:52)

여기서도 예수님은 서방에서 온 그리스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심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23):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드디어 왕으로 로마 사람들 쫓아내고...

그런데 그 뒤로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씀들이 나옴(24-25)

한 알의 밀알(24-26)

영광을 받는데 너희 생각과는 달리 죽는 것을 통해 받는다.

왕이 오시는데 전쟁을 통해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을 통해 하신다.

밀알, 그 안의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지금 밀알과 똑같은 수백만 개의 후손들이 들어 있다. 어떻게 되는가? 밀알을 땅에 던진다. 당은 마치 무덤과 같다. 그 안에 들어가 박힌다. 죽는다. 그리고는 여러 개의 밀알이 부활해서 나온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왕인데 이제 죽은 뒤 부활해서 나와 같이 영원히 살 자들을 만들어 내실 것을 말씀하심

나는 이런 방식으로 통치할 것이다.

왕국의 연기: 교회 시대 예수님 부활 이후 지금까지 적어도 100억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

이런 것은 느부갓세살, 알렉산더 시이저 등이 결코 이루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한 것

물론 최종적으로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확대하심(25),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고 죽으라는 말이 아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죽으라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찾을 수 있다. 세상의 야망, 욕망 등

죄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죽어야 더 큰 생명을 누린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음악가, 학자 등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연주 뒤에 한 사람이 말한다. 당신은 천재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부단히 연습하였습니다. 그의 뛰어남은 죽음을 통해 왔다. 그것은 자기 부인, 부단히 노력하는 것

영적인 생명도 비슷하다. 고후12:9, 벧전5:6

24절을 다시 보자. 우리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 안의 수많은 가능성(우리가 남길 것들)이 죽고 만다.

새롭게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롬12:1-2

살아 있는 희생물, 희생물은 원래 죽어야 함, 우리 몸을 죽일 수 없으니 살아 있지만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것은 곧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많은 문제: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긴다.

주님의 결론(26): 우리가 원하는 왕가의 삶은 위대한 행진과 함께 시작되지 않는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십자가 먼저, 그 뒤 왕관

우리의 의무: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막8:35), 우리의 영광: 그분이 계신 곳에 있는 것

최종적인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다. 고후4:17

고전2:8-9: 세상의 왕들 가운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없다.

결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 그러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

나와 죄에 대해 죽지 않으면 종교인이 된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깨닫지 못한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다.

반면에 2000년 전 종려나무를 흔들고 왕을 맞이하던 사람들

더욱이 그리스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 바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본다.

지금 우리도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을 바로 알고 생명을 얻고 새 생활을 한다.

이 일을 위해 살아 있는 희생물이 되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바로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 혹은 가능성이 우리를 통해 살아서 움직인다.

36 요한복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음과 불신의 3단계)

성경말씀: 요12:27-50

이제 드디어 3년 반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 이제 십자가까지 닷새 남음(1).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유월절에 죽으셔야 함, 드디어 스가랴 대언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 사람들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시118편,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향해 우심(요1:11)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 나는 왕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하심(12:24).

초림 때에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십자가 죽음, 부활, 수많은 사람들 구원

재림 때에 왕으로 이 땅에 온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시간표 아직 이틀이 안 되었다.

우리도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확실히 알려주심(27-36)

한 알의 밀이 죽는 것을 말씀하시고 심히 괴로워하심(27), 참 사람

아버지께 기도를 드림(27-28),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응답(28): 지금까지 네 과거의 생애(말씀과 기적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이 또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버지의 음성: 사역 시작하기 전 침례를 받을 때(마3:17),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변화산 상에서(마17:5), 이제 십자가 바로 전에(요12;28)

이 세 번 모두 아들이 고통의 짐을 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때

우리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사역을 감당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구원받은 사람의 본분이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사람들의 반응(29): 천둥과 천사

주님의 말씀(30), 나는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이다. 이래도 못 믿겠느냐?

그리고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신다.

십자가 사건은 마귀의 승리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마귀와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31).

주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마귀를 멸하려는 것(요일3:8, 히2:14-15).

그 죽음은 어떤 것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다(12:32-33, 3:14; 8:28 등):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 죽음(시22:16, 18), 로마 시대에만 가능함

마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벧전5:8-8

비록 지금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며 악한 일을 해도 그는 이미 심판받은 존재이다(31).

요즘 미국 대선 부정 선거: 빅테크 기업, 언론, 좌익 총 연합하여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가져오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마두로 정권, 완전한 부정 선거, 선거 조작(스마트매틱), 여기서 파생된 도미니언 개표 시스템, 새벽을 틈타 삽시간에(1분) 바이든 14만표(미시간, 위스콘신 등), 63:37(1.25대 0.75) 동일한 비율로 바이든 우세, 이 수치를 우리는 4.15 총선에서도 보았다.

확실한 것: 세상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나간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 짐승의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계13:16-18). 무서운 세상이 온다. 컴퓨터, 초고속 인터넷 시대라야 가능하다.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선거 조작, 영구 집권, 지금 미국이 무너지려 하고 있다. 공병호, 신인균, 이춘근, 에포크타임스, 뉴스맥스, OANN

그러나 소망이 있다.

1. 환난 전 휴거
2.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운명은 이미 끝났다.

3. 기도해야 한다: 나, 가족, 교회, 국가, 미국 등

예수님의 최종 권면(35-36): 유월절에 죽으셔야 하므로 몸을 숨기심

이것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전의 공적 사역은 끝이 난다.

왜 믿지 않을까?(37-43)

3년 반 공생애, 유대인들의 대다수 믿지 않음(37)

이사야의 대언 성취(38): 사53:1

불신의 단계: 1. 믿으려 하지 않음, 2. 믿을 수가 없음, 3. 믿어서는 안 됨

주의 팔이 다양하게 나타남, arm, 팔, 동시에 무기, arms treaty, disarmament

주의 팔: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를 뜻함(사63:5)

1.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장 심오한 진리를 아이들도 알 수 있게 가장 쉽게 설명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게

2. 그분의 다양한 메시아 기적들을 통해, 요한복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하나님은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신다(요1:9).

사람이 고의로 빛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속에서 변화가 생긴다.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진리를 신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린다(39-40).

사6:9-10, 성경의 여러 군데 인용됨(마13:14-15; 막4:12; 눅8:10; 행28:25-27; 롬11:8 등)

하나님의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구원을 놓치는 심각한 잘못이다.

12:41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다.

사6:1,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 주 만군의 주는 여호와 한나님

그런데 요12:41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한다.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믿지만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42-43).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나중에는 시인함

초대 교회: 제사장 무리(행6:7), 바리새인들(행15:5), 유대인들의 회당장(고린도 교회 등)

(*) 하나님의 칭찬과 사람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 사람에게는 버림받음, 결국 추방됨

은밀히 믿으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칭찬을 받으려 함, 요5:44

내 말이 불신자를 정죄한다(44-50)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생각(44-45):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다. 아들은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다. 그분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을 믿든 자는 구원을 받고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50). 이 부분에는 믿는다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옴

이때 즉 마지막 때에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이다.

불신자가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증거가 제시될까?

창조의 증거

양심의 증거

성경 말씀의 증거

이 모든 것은 살아 계신 창조자를 바라보게 한다.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 사람들의 두려움(12:42-43)

성경의 핵심: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마10:28).

마지막 부분에서는 심판하다가 4번 나옴, 이것은 두려운 말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47).

그러나 사람이 구원자를 거부하면 그분은 심판자가 되신다.

사실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분의 공적 생애, 사역, 기적들, 말씀들, 구원하려는 간절한 욕구 등을 보았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요, 구원자시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는가?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였는가?
이런 확신이 없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오늘 하기 바란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판자가 되지 않도록, 초청의 말씀(12:36)

37 요한복음: 예수님의 리더십 본보기 실증: 섬기는 지도자

성경말씀: 요13:1-30

요한복음 총 21장, 1-12장은 그분의 공생애 사역(3년 반), 13-21장은 약 4-50일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제자들 훈련:

십자가 사건, 부활, 제자들 사명, 드디어 성령님, 교회, 천국 등에 대한 설명

지난 10주 동안 금요 강해에서 느헤미야 강해, 총독이지만 백성과 함께 성벽 공사 참여 진두지휘, 동고동락 말 그대로 섬기는 리더, 섬기는 지도자.

오늘 예수님의 교훈 〈 〉: 12제자들에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지 보여 주심, 리더는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다. 당연하다. 그런데 본을 보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하라고만 하고 자기는 안 하면 리딩 불가능

차세대 교회 리더들에게 섬기고 사랑하는 지도자가 될 것을 주문하신다.

특별히 13-17장은 12제자들에게 주는 고별의 말씀(다락방 설교), 17장은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

모세(신31-33), 여호수아(수23-24), 바울(행20), 이들은 말로 남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시청각 행동 교육을 실시하신다.

언제: 십자가 처형을 12-15시간 정도 남겨 놓고, 유언, 잘 새겨들으면 매우 유익하다.

자신의 때가 온 것을 아셨다(1-5).

13;1,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옴

예수님이 아신 몇 가지 사실들

자기 때: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것을 강조한다.

2:4, 7:30, 8:20, 12:23, 13;1, 17:1, 주님은 드디어 자신의 때가 온 것을 아심

즉 예수님은 한 시도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아버지의 때에 맞추어 일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무슨 때: 십자가 처형, 죽음, 매장,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스럽게 되는 때, 사람의 관점: 고통과 고난, 하나님의 관점: 영광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일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왔다(요17;4).

3년 반 동안 그 많은 반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오심

우리의 교훈: 하나님의 종(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사람들도, 마귀도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우리 교회, 사역, 성경 일 등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도 아셨다(2). 가룟 유다, 요한복음에 8번 언급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서(눅22:3) 그에게 여러 생각을 줌(2)

이제는 어떻게 그분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처형시킬지 알려 줌, 유다 이야기는 조금 뒤 자세히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셨다(3).

심지어 십자가 처형 당시에도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의 사명을 아심(3): 왔다가 임무 수행 후 되돌아가는 것, 이 어려운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심

우리 역시 우리의 존재, 사명, 갈 곳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본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 결과 나타난 행동이 바로 4-5절이다(4-5).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심지어 유대인 종들도 주인의 발을 닦아 주지는 않았다. 천한 일, 노예나 하는 일

이렇게 하신 이유: 제자들 사이에 큰 자가 되려는 경쟁심이 있었다.

따라서 이 시점에 그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을 액션을 보여 주는 것 필요함

겸손히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빌2:3, 5-8).

예수님의 상황을 보자: 왜 종이 되셨는가?

가난해서가 아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럼에도 수건을 두르고 발을 닦아 주신다. 고후8:9,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예수님의 겸손 사례: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5:19, 30),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등 6:38; 7:16; 8:50; 14;24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능, 주권이 있었음에도 종의 자리에서 섬기신다.

수건을 두르고, 물을 나르고 발을 닦아 주신다.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사랑하신다(1).

이러한 겸손의 원천: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 신뢰, 종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섬김의 리더십 가능함

현 시대 교회에도 세상의 경쟁심, 이기심,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지식은 자라는데 은혜 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벧후3:18). 가능하면 궂은 일 젊은 분들

은혜를 기르고 베풀려면 겸손의 토양이 있어야 한다.

지도자의 모습: 겸손과 사랑, 13:1을 보자.

끝까지 사랑하셨다(1).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과 베드로(13:6-11): 구원과 성화

베드로의 차례(6),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사복음서 베드로 사례: 알지 못하고 불쑥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십자가 처형 예고(마16:21-23), 안 됩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6-9)

사람의 구원: 전체가 다 씻긴다. 그의 모든 죄가 제거된다. 용서된다(딛3:3-7; 히10:17)

그러나 구원 뒤에도 세상에 살면서 쉽게 더러워진다.

다시 옴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더럽게 된 데만 닦으면 된다. 닦는 방법: 요일1:9

더러워지면 안 되는 이유: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진다(13:8).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됨, 아버지와 아들, 이미 씻긴 자이다(13:10).

그러나 더러워지면 교제가 끊긴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교제가 안 된다.

관계: 그분의 십자가의 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다.

그 뒤: 성령님의 인도하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킨다.

그래도 짓는 죄가 있다.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다(요일2:1-2).

주님과의 교제 확장: 그분께,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 발을 깨끗이 해야 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쁨(12-17)

13:7을 기억하라. 그리고 17을 보라.

겸손과 거룩함(성화) 섬김, 그 뒤에 행복이 온다.

행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 생기는 부산물

겸손히 섬기고 거룩하게 걷고 그분의 명령대로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

주님의 질문(12), 사실 그들은 잘 모른다. 주님의 설명

세상 사람들의 행복: 다른 사람이 우리를 섬기는 것, 그래서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리스도인의 행복: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목사, 집사 등 리더의 기쁨

타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 섬기는 것,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잘함

앞으로도 더욱 더 그리하기 바람, 타고 누르려는 사람 리더십을 부여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모범: 그분의 위치(13), 그럼에도 발을 닦아 줌(14).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14)

나는 본보기를 주었다(15). 과거 3년 반, 겸손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마20:20-28), 세배대의 아이들

어머니, 섬겨야 한다. 어린아이들처럼...

이번에는 쐐기를 박으려고 실증함

주인과 종의 관계(16), 그분은 종이 되심으로써 종을 주인의 자리로 올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행해야 한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 성화, 섬긴다. 그러면 행복하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18-30)

그 자리에 배신자 유다가 있었다.

유다는 불신자(요6:64-71),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 즉 옴 몸을 닦은 적이 없는 자(13:10)

그럼에도 함께 다닌다. 참으로 아이러니

거의 구원받을 자리에 있었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심지어 돈 가방 관리, 교회의 중직을 맡음

당시 주님의 두 가지 사명

1. 구약 성경 예언 성취, 2. 아버지께 영광

구약 시41:9; 다윗의 시편, 아마도 압살롬 사건, 그의 조언자 아히도벨(삼하15-17)

신기하게도 유다와 아히도벨, 둘 다 스스로 목매어 죽음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 그들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19)

사실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고통(21), 십자가 처형 바로 전까지 그에게 애정을 보임, 그의 혼에 대한

애정, 그의 발도 닦아 주심, 끝까지 사랑하심

제자들의 반응(22), 3년 반 동안 누가 그인지 모름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가 마귀임을 아심(6:70), 아시면서도 지금까지 그를 보호하심

여러 이유: 자기 때가 오지 않음, 예언 성취, 마귀에게 허용

가룟 유다: 많은 은혜와 혜택, 그는 변화되지 않음

얼음을 녹이는 햇빛, 진흙은 더 딱딱하게 만든다.

돈과 탐욕 등에 대해 주님은 그렇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도 그는 계속 도둑질을 함

불신이 위험과 정죄에 대해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을 더 딱딱하게 함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아이들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

베드로가 고갯짓을 하여 요한에게 물어 보게 함(23-24)

주님께서 빵 조각을 주심(26-27, 룻기 2:14), 사실 극진한 사랑의 표시, 회개 촉구(끝까지 사랑함)

유다에게는 영혼의 어둠의 밤(30). 그러나 그는 반대 방향을 택하고 스스로 자기 처소로 감(행1:25)

제자들은 전혀 모름(28), 달리 생각함(29). 사실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 아님. 신사, 교육받은 사람,

회계 업무 담당, 제자들의 신뢰, 전혀 의심하지 않음

아직 주님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 물건을 사러 간 줄로 생각함, 아직 큰 관심이 없다.

그 뒤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논쟁함(눅22:24-30).

불신자도 끝까지 사랑하심, 가룟 유다까지

결론

예수님, 항상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

그리고 신약 교회 시대를 여시면서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 주심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심,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본보기,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섬기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 구원, 성화의 삶, 은혜와 지식 면에서 성장한다. 그러면 섬기게 되어 있다(13;17).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끝까지 사랑하심(1)을 기억하자.

38 요한복음: 예수님의 위로: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성경말씀: 요13:31-14:14

요한복음 총 21장, 1-12장은 그분의 공생애 사역(3년 반), 13-21장은 약 4-50일
13-17장은 십자가 처형 12-15시간 전의 일을 기록함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야 함: 경쟁심, 교만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 주심, 내가 주와 선생인데도 이렇게 본보기를 보인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섬김이다(막10:44-45).

예수님의 새 명령(31-35)

만찬 뒤에 가룟 유다가 나가자 주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급진적인 말씀을 하신다.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난다(33). 십자가 처형, 죽음, 매장,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31-32).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들을 마치는 것(요17:4).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완수하는 것,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러면 이번에는 아버지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33): 이미 두 차례 말씀하심(7:33-36; 8:21-24).
어디로 가시는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14:2)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34): 이제 내가 없으므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
심지어 베드로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
13-21장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40회 이상
새 명령의 '새':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다. 구약 시대에도 사랑해야 함
경험적으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가능하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구현되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믿는 자들끼리 사랑해야 우리가 그분의 제자들이 된다.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된다. 신사답게 행동해야 한다.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 구원, 성화의 삶, 우리의 본보기 예수님처럼 섬긴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베드로가 다시 나섬(36-38)

베드로의 질문, 주님의 대답(36):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꾸짖지 않으신다.
무언가 복선이 깔려 있다.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온다.
베드로: 십자가 처형, 천국으로 감
베드로의 질문, 결의(37)
예수님의 확언(38)
제자들의 반응: 베드로는 망연자실(멍하니 정신을 잃음).
다른 제자들: 가장 용감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우리를 어떨까?

제자들의 근심

왕국의 도래를 위해 3년 반을 따라 다님, 수많은 기적을 봄, 왕국의 신비에 대한 말씀들을 들음
이렇게 하면서 3년 반이 지남, 그런데 3년쯤 지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함(마16:21). 곳곳에서 그분을 죽이려는 시도가 본격화 됨
이번 유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드는데 이번에는 왕으로 나서실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그런데 이 왕은 한 알의 밀알로 죽어야 한다.
그리고는 주의 만찬, 섬기는 모습, 본보기를 주고 간다. 혼동
제자들의 근심: 1. 너희 중 하나가 그분을 배반한다. 2. 베드로에게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 내가 너희를 떠난다(13:33).
우리가 이들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몇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의 특권이다.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1-6)

제자들의 근심, 주님의 말씀(1).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천국은 실제 장소이다(2). 왕국(벧후1:11), 상속 유업(벧전1;4), 나라(히11:16), 도시(11;16)
아버지(Father) 요한복음 114회, 13-17장 약 50회
천국은 내 아버지 집(14:2), 무슨 의미: 우리가 가면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 환영받는 곳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다. mansion, 아버지 집에 딸려 있는 방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일 것이다(2-3).
유대인 결혼 풍습: 먼저 정혼을 하고 결혼 언약을 맺고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마련한 뒤 신부를 데리러 온다. 내가 바로 그렇게 할 것이다. 교회는 나의 신부이다. 반드시 2번 오신다.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다(14:3).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고서 천국에 가며 어떤 사람들은 맛보지 않고 간다(요11:25-26).
순식간에 몸이 변화된다(살전4;13-18). 휴거라고 부른다.
7년 환난기 전에 이루어진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천국을 예수님은 약 60년 뒤 요한에게 보여 주셨다. 그 내용이 계21-22장에 나온다. 이곳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이다. 가장 큰 특징: 없는 것, 눈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계21;4-5)
주님의 말씀(4), 도마의 대답(5)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11:16)
늘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사람, 그래서 알기를 원하였다.
주님의 논리: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다(행4:12).
예수님의 말씀: “내가 그 길을 알려준다. 가리킨다.” 아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다!”
그 길(the way)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행9:2; 19:9, 23 등)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19:9) 바로 그때에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19:23).
종교 행위, 종교 창시자, 선행, 전통, 집안,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나를 통해서
그 당시 마음에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
우리는 어떤가?
요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다. 요즘 세상을 심장병 시대라고 한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시기(부동산 폭등, 범죄, 악한 일들 합법화), 근심거리가 워낙 많아서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것이 붕괴되고 있다.
좌익 독재 세력의 활성화, 자유가 강탈되고 있다. 경제 폭망,
미국의 부정 선거 문제, 미국마저도. CNN 등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들의 횡포
정말로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제자들처럼 염려가 된다. 근심이 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1).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주님의 말씀(1).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온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히12:2)

우리는 지금 아버지를 안다(7-11)

예수님의 추가 설명(7)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빌립의 등장(8), 요1:43-45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다. 3년 반을 따라다닌다.
그리고 질문을 한다. “아버지를 조금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9)
추가 설명(10-11): 내 말들, 내 일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보여 준다.
근심을 벗어나게 하는 또 다른 요인: 아버지를 아는 것
질문: 우리는 아버지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에 가야만 알 수 있는가?
영생은 무엇인가(요17:3)?
주님의 말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아버지를 알고 있고 어려운 때에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복음에는 안다는 말이 약 140회 정도 사용됨
요한복음에 나오는 ‘안다’는 말의 3단계
1. 말 그대로 사실을 안다. 내 생일을 안다. 이름을 안다.
2. 어떤 사실 뒤에 있는 진리 혹은 원리를 안다.
3. 서로 사귀는 관계: 어떤 존재를 믿고 관계를 맺는다(요17;3). 창4:1, 부부 간의 관계
지금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알고 믿고 사랑한다(벧전1:8).
이 아버지가 바로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불변하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유일한 분, 우주보다 크신 분
우리가 이 아버지를 정확히 알면 근심이 물러간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12-15).

제자들 지금 근심하고 있다. 주님의 말씀(1).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신다. 기도 방법을 명시해 주심. 근심을 덜라고.
1. 믿음으로 기도하라(12). 주님의 말씀: 더 큰 일도 한다.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말씀(히2:3-4), 주님의 기적보다 더 낫거나 위대한 것은 아니다.
제자(종)가 스승(주인)보다 나을 수 없으므로(13:16)
그러나 구원 사역의 양과 범위가 훨씬 더 컸다. 베드로의 경우 설교 한 번 3000명 회개, 구원
지금 우리의 사역: 온 세상으로 퍼진다.
성도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원하는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은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12).
2.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13-1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이면 마술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것을 간구한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
아빠 이름으로 그 일을 해라. 큰 특권을 부여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 이름을 빌려줄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무엇을 구하든지(13, 14), 기도할 조건이 이미 명시되어 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을 기도하기 원하는가
보기 위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을 구해야 한다.
그분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요일5:14-15). 그것을 알 수 있는 길, 성경 말씀
그래서 장신대 나채운 박사, 〈우리말 성경 연구〉, 100독 1도
기도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다.

결론:

우리도 제자들처럼 근심 가운데 있다. 정신이 있으면 근심할 수박에 없는 상황

1.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어라.

2.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간다. 휴거된다.

3. 너희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 창조자

4. 너희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내 이름을 빌려줄 테니 기도하라.

39 요한복음: 예수님 대신 다른 위로자 성령님이 오신다

성경말씀: 요14:16-18

요한복음 13장, 발을 씻겨 주심, 그리고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의 근심, 14장부터 주님의 위로, 1. 너희는 천국에 간다. 2.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오늘 〈 〉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2020년 마지막 예배,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소개하는 시간

마지막 만찬의 다락방, 이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성령님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다.

이유: 성령님의 도움과 위로가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등을 알아야만 한다.

성령님의 이름

다른 위로자(16), 진리의 영(17)

위로자, 요한만 쓴 단어(14:16, 26; 15:26; 16:7, 요일2:1)

위로자: 우리와 같이 가면서 돕는 존재, 동행하며 돕는 존재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보통 comfort의 뜻: 위로한다. 위안하다. 맞는 말이다.

원래 영어 단어 comfort는 ‘힘차게 하다’의 뜻

원래 뜻을 살리면 ‘우리를 강하게 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하며 싸우고 나가게 하는 분’

우리의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것 아니다.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요일2:1, 변호자,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 그래서 이기게 해 주시는 분

진리의 영

진리: 명사 235회, true 81회

예수님은 진리이시다(요14:6).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17:17).

성경이 말하는 진리: 대개 하나님의 말씀(단10:21)

성령님은 성경 말씀에 영감을 주시는 분(딤후3:16; 벧후1:21), 성경의 저자

말씀에 조명을 주시는 분, 이해하게 하시는 분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의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거짓과 함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말씀에 위배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므로

고후(13:8)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

1.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하신다. 2. 세상의 사악한 행로를 보게 하신다.

3.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26).

불신자들: 하나님의 섭리, 신비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생긴다.

성경을 보면 세상의 행로가 보인다.

아무리 악이 창궐해도 결국 마귀와 그의 무리들이 순식간에 파멸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 침례(3:11), 신자 성령 침례, 불신자: 지옥 불 침례

언제 처음 이루어지는가?

행1:5 이후, 사도행전 2장

성령 침례: 모든 신자에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 성령님 속으로 푹 잠기는 일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 침례: 성령 봉인

성령 충만(엡5;18)

성령님의 충만: 그분에 의해 지배되는 삶

이것은 간구하며 힘을 써야 한다. 육을 죽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엡5:18-6:8, 성령님의 일, 기쁨, 감사, 복종

갈5:22,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려면

1.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해야 한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영원히 머무신다(16).

아들의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선물

예수님의 지상 사역: 그분이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함

이제 그분이 떠남,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머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함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일하심: 아브라함, 삼손, 다윗 등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기도 하였다.

사울(삼상16:14; 18:2), 다윗(시51:11).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님이 주어진 이후로 그분은 신자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의 의미

23절: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이 두 분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거처 안에 있다. 이것이 내주

낙심에 빠지는 경우: 나는 혼자다. 자기 연민,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가 아프다고 해 보자. 부모는 결코 아이를 떠나지 않는다. 심지어 아이가 죽는다 해도 같이 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내주

내 생각: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신다. 죽음의 병상에 홀로 남게 되어도 주님이 함께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에도

다른 위로자의 뜻

다른 위로자(16), another, 같은 종류의 다른 것

사과: 여러 종류, 아오리, 부사, 홍옥, 홍로 등

즉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는 다른 인격체

그럼에도 동일한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도 손해가 없다.

다른 인격체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롬8:8).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게 된다.

과거의 욥,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

바로 앞의 빌립처럼 아버지를 한 번 보면 좋겠습니다(8).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보면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다.

"주님 참으로 인생이 어렵습니다. 모든 일이 꼬여서 출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병, 경제, 결혼, 직업, 학업, 인격의 변화, 교회 찾기 문제, 성화 문제, 국가의 체제 붕괴 문제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분명히 문제가 풀릴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과 대화한 뒤 문제를 해결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어라고 하시는가?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라.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줄 응답과 그분의 줄 응답이 동일하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중동의 예루살렘에 계셨다. 지금 그분이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자.

예루살렘행 비행기표 매진, 기차표, 배표, 버스표 다 매진

혹시 거기에 갈 수 있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1초도 만나기 어렵다.

그런데 주님이 무어라고 하시는가?

나를 1분 동안 먼발치에서 보려고 여기로 올 필요 없다. 나와 동일한 하나님,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너희 속에 영원히 머물고 계신다. 그러므로 물리적으로 내게 접근해서 대화를 나누듯이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과 대화를 하라.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아빠

먼저: 시범을 보인다. 그 뒤 두 손으로 잡아 준다. 그리고 자세히 안내해 준다. 한 손으로 잡아 준다. 두 손을 다 놓는다. 그러고도 그 아이를 쫓아간다. 넘어지지 않게

성령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고후7:4-7, 특히 6절을 보라.

사도 바울도 낙심, 디도가 옴, "바울 형제, 잘 지내요? 그런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바울ㅇ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다. 디도가 듣고 바울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 위로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위로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대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과 태도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고전6:19-20)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일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영향을 미친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과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듯이 성경책을 소중히 여긴다.

우상숭배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소중히 여긴다.

예수님의 위로

2020년 코로나 창궐, 모든 사정이 어렵다.

지금까지 인생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 없이 두지 않는다(18).

즉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함께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다.

너희는 잠시 후에 다시 나를 볼 것이다(19).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이 흘러간다. 어려움이 닥친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이 있다.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2020년 마무리하고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하자.

시23:4-6

요한복음 40 내 말들을 지키라: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이유

요14:21-24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 19,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제 1년이 지나갔다. 송구영신에서 이야기한 대로 코로나 19는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회개하고 돌아오라.

2021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는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머리에 두고 슬픔과 고통을 헤치며 나가서 결국 연말에는 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새해가 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설정한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목사가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사실 나는 매해 교회 목표, 인원, 헌금 목표 등을 세우지 않는다. 사실 우리 교회는 재정 팀이 모여서 예산을 세운 적도 없다. 그냥 주어진 실정에 맞게 운영해 왔다.

2021년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다.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다만 한 가지 계획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2021년 상반기에는 지난 6년 동안 교정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마제스티 판을 출간하려고 한다.

2000년 8월에 초판이 나온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킹젬미스 성경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며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미약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성경, 바른 성경을 읽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족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했다.

2021년부터는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킹제임스 성경 마제스티 판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하늘 높이 드러나기를 기대하며 오늘은 40번째 요한복음 강해를 하려고 한다. 〈 〉, 21절 명령들을 지키라, 23절 말들을 지키라는 명령의 의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어떻게 그분의 뜻을 알고 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여기에 우리의 서고 쓰러짐이 달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한 해

배경

3년 반 공생애를 마감함,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발을 씻겨 주심, 나는 간다. 베드로도 부인한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 너희는 분명히 천국에 가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2.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3. 다른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겠다. 내주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진리의 영

그리고는 떠나시기 전에 자신을 사랑하하고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이 받는 복을 말씀하신다.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 이것은 15절의 반복

두 가지가 함께해야 한다.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킨다.

그 명령들이 귀에, 입에, 머릿속에 잇을 수 있지만 지키지는 못할 수 있다.

알고,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키지는 못할 수 있다.

두 가지가 함께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명령들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자신을 나타내신다(21).

즉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면 그분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22절: 다른 유다의 질문, 무언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21절의 나타내다를 보이다로 잘못 이해함, 아직도 메시아 왕국의 꿈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좀 나타내소서. 십자가 등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름

경영 원칙이 바뀐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23절: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 내 말들을 지키는 것, 즉 내 명령들이 내 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 아버지의 사랑, 우리(아버지와 아들)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한다. 즉 우리가 그와 함께 거한다. 같은 거처에서. 그리고 성령님은 16절에서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24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증거, 내 말들을 지키지 않는 것, 이런 복이 없다.

마지막 쐐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일단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근심하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주신다.

"나를 사랑하라." 믿는 성도들의 열망: 구원받으면 주님 사랑,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내 명령들은 가지고 그것들을 지켜야 한다. 그 명령들은 내 말들이다.

그래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면 그분의 말씀들을 소유하고 지켜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시작 부분을 보라. 마4, 마귀의 시험

마귀의 첫 번째 시험(마4;3)

주님의 대답 마4:4

일단 사람이 살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단어가 있어야 한다.

설교 말씀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올리브산 설교(마24:35)

그리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 내 말들을 소유하고 지켜야 한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

하나님의 여러 속성,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하신다.

딤후3:16을 보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영감 inspiration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 있다. 그래서 살아 있는 말씀이다(히4:12).

렘23:29, {주} 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런데 숨이 들어 있는 말씀이 역사를 거치면서 소실되어 우리 손에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내 말들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유효하려면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보존해 주셔야 한다.

성경은 66개의 작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39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구약 성경과 27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신약 성경으로 구분된다. 성경은 1,189장(구약 929장, 신약 260장), 31,102절(구약 23,145절, 신약 7,957절), 788,258개 영어 단어(구약 609,247개, 신약 179,011개)로 구성되어 있다.

히브리어(42만 개), 그리스어(14만 개), 영어, 우리말 : 총 백만 개 이하의 단어

많은 인본주의자 학자들의 견해: 하나님은 100만 개 이하의 단어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래서 역사의 중간에 여러 단어들이 소실되었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그 소실된 단어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네슬레 알란드 판은 1898년 초판 발행 후 지금까지 28번이나 변경되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무에서 유로 온 우주 공간 창조, 셀 수 없는 규모의 별들을 만드신다. 그리고 그 별들을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신다(시147:4). 그분께서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지금까지 인류: 수백 억 인구, 모두 이름으로 부르신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100만 개 이하의 단어, 그것도 자신의 숨이 담겨 있는 단어들을 보존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우리 몸이 죽는다. 썩는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수많은 성도들 사자들의 밥, 바다에서 죽고 산에서
죽고 강에서 죽고 거리에서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 모든 사람들의 몸이 부활한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분해된 분자, 원자가 어디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수천 만 명의 사람들이 휴거받는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 그 사람들만 받는다.
이런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100만 개 이하의 단어들을 보존할 수 없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배치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내 말들을 소유하고 지켜야 한다.
우리가 성경 신자라고 말하려면 먼저 성경 말씀의 보존을 믿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이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존된 말씀들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다.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칼빈 올리베땅의 올리베땅 프랑스어 성경, 디오다티의 이탈리아어 성경,
레이나 발레이의 스페인어 성경, 틴데일, 제네바 성경 다 보존된 다수 사본들에서 번역된 올바른
성경, 이것이 1611년에 최종적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정점을 찍음
지난 400년 이상 전 세계 모든 신학교, 교회, 주석서, 세계 선교,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음
우리나라에도 서천 성경 박물관(1816), 킹제임스 성경, 일본에서 나온 이수정역(1884년)
아펜젤러 언더우드의 성경(1885년),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읽히고 영어 옥스퍼드 사전에 The Holy Bible로 등재된 성경

바른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도 없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아귀가 딱 맞는다.
1. 마1:25
2. 약5:16
3. 행8:37
4. 벧전2:2
5. 빌2:12
6. 요일5:6-7
7. 막9:44, 46

자그마치 그리스말로 하면 7%, 변경, 베드로전후서 분량만큼 삭제됨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고 바르게 번역된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다. 맛 본 자들이 안다.
개역성경은 귀한 성경이다. 우리 중 대다수가 그 성경으로 구원받았다.

결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원한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아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성령님의
사랑을 받기 원한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기 원한다. 말 그대로 바이블 벌리버가 되기 원한다.
이 일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있어야 한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들어
있는 성경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이후에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다.
우리 교회 설립의 목적: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을 알리고 그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갖게 하는 것
우리는 그 말씀이 바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다.
시12:6-7
2021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기 바란다.
말씀 보존에 대한 확신을 갖기 바란다. 하나님은 100만 개 이하의 단어들을 보존하실 수 있다.
말씀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개인, 교회, 국가가 설 수 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기초이다.

설교, 교리, 교육,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소유하고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이 사역에 올해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를 의지하며 승리할 것이다.

요한복음 41 우리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의 가지로서 특권과 책임이 있다

요15:1-11

3년 반 공생애 마무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발을 씻겨 주시고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몇 가지 위로를 주신다.

1.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너희는 반드시 나와 함께 천국에 간다.
2.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3. 위로자 성령님이 오신다.
4. 내 말들을 가지고 지켜라.

오늘 주님은 아버지와 자기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의 관계, 특별 관계를 맺는 성도들의 책임과 특권에 대해 말씀하신다. 오늘 2021년 세 번째 주일, 새 해 초반부, 올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을까? 물론 당연히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이것을 정확히 알고 여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 〈 〉, 우리의 신분, 가지의 의미, 특권, 책임 등

포도원과 포도나무

1-2절,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원을 가꾸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빵, 포도즙, 올리브, 우유 등이 필수품 포도나무는 대단히 중요한 식물, 헤롯의 성전, 금으로 된 포도나무 장식, 요15에서 주님은 포도나무 이야기,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 이것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비유이다.

(*) 포도원과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치기 등을 살펴보자.

1. 포도원, 2. 포도나무, 3. 좋은 열매, 4. 예수님의 표현, 5. 포도나무 가지치기, 6. 실제 가지친 것, 7. 좋은 열매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1. 포도나무

성경에는 세 종류의 포도나무가 있다.

1. 과거의 포도나무: 이스라엘(시80:8-19; 사5:1-7; 렘2:21; 겔19:10-14; 호10:1 등)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짐(시80:8-19)
   사5:1-7 설명, 하나님의 탄식, 나쁜 열매를 냄(5:4), 결국 패망(5-6), 정체(7)
   이스라엘은 한 국가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았다.
   그러나 우상숭배, 간음, 메시아가 옴. 그러나 그분을 거부함(요1:12).
2. 미래의 포도나무(계14:14-20)
   천년왕국 이전의 7년 환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기 위해 세상 시스템이 포도나무처럼 무르익는다. 여기에는 불신자들이 가지로 남아 있다.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불신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에 붙어서 주님을 대적하며 역시 우상숭배, 결국 창세 이후로 한 번에 가장 많이 죽는 일이 생김(14:20)
3. 현재의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15:1), 나는 포도나무이다. 일곱 번째 I am.
   그런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true vine)
   의미: 예수님 외에 다른 포도나무는 가짜요 모방품이다.
   포도나무에는 여러 개의 가지들이 있다. 교회, 머리와 지체들과 비슷하다.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대단히 크고 강하다. 가지들이 워낙 강하게 붙어 있어서 가지를 자르다가 포도나무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 살아 있는 관계,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 예수님은 포도나무

2. 가지들

가지 자체는 약하고 쓸모가 없다. 가지는 열매를 맺든지 불에 타든지, 포도나무 가지는 건축에 부적합(겔15).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생산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서 생명을 받는다.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 연합과 교제

몸과 지체(고전12), 신랑과 신부(엡5:25-33), 목자와 양(요10).

몸에서 떨어진 지체는 죽고 만다. 결혼은 연합을 가져오지만 매일 사랑을 유지하고 서로를 위해야 한다. 목자는 양을 떼로 데려오지만 양은 살기 위해 반드시 목자를 따라다녀야 한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한다. 즉 주님관의 교제, 연합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5).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한다. 거한다. abide, continue, remain, 1-11절 11번

거한다는 말의 의미: 그분과 늘 교제함으로써 그분의 생명 수액을 받아 열매를 맺는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죄들의 고백이 필요하다(3). 또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9-10).

그분 안에 거할 때의 증거: 특별한 감정 환희 등 없다.

명백한 증거: 1.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2). 잠시 후에 열매에 대해 설명한다.

2. 아버지의 가지치기가 있다(2). 즉 징계가 있다.

3. 기도와 응답이 있다(7).

4. 동료 그리스도인들 사랑, 교회 사랑(9, 12-13)

자연계의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자연히 형성된다.

그러나 영적인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는 이것이 자동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예배, 말씀 읽기, 묵상, 기도, 헌금과 희생, 봉사, 성도들 간의 교제 등

교회의 중요성과 필요성

3.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

주님의 말씀, 아버지가 바로 농부이시다(1).

포도원 농부가 하는 일: 많은 열매를 내도록 가지를 잘라낸다.

열매에 대한 표현: 열매가 없음(2), 열매, 많은 열매(5, 8).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많은 열매, 그런데 대다수는 가지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포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지치기

숙련된 농부들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여러 해 동안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

죽은 가지 잘라내기, 산 가지 잘라내기(품질 좋은 포도 생산)

이렇게 해야 양과 질이 우수한 포도 생산

산 가지를 잘라내면 가지 입장에서는 아프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죽은 것 잘라내는 것 당연하다.

그런데 종종 품질 향상을 위해 산 가지도 잘라낸다. 심히 힘든 과정이다.

1. 죄들로 인해(죽은 가지 치기)

2. 열매를 맺지만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산 가지 치기):

다윗을 보라. 13년 동안 가지치기 과정: 시119:71,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가지치기는 힘든 과정이다. 히12:5-7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가지치기 과정에도 아버지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신다. good, better, best, best를 내기 위해서는 good, betteer를 잘라낼 수 있다.

4. 열매

열매와 제품은 다른 말이다. 기계는 순식간에 제품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생명체는 열매를 생산한다.

열매는 대개 오랜 시간이 지나야 생산된다. 1년에 한 번 정도

가지는 열매를 생산하지만 자기가 먹지 않고 남이 먹는다. 즉 우리의 열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다. 남편과 아내, 교회 모두 남을 위한 열매를 생산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과 행위로 남을 먹이고 살려야 한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갈5:22-23), 찬양의 열매(히13:15)

여러 사람 전도하는 것도 열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인간 내부의 변화, 성품의 변화,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변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모방할 수 있다.

참 열매 안에는 그것을 재생산하는 씨가 들어 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자꾸 퍼져나가면서 여기저기서 재생산된다.

그런데 모방품은 씨가 없다. 그래서 반짝하고 죽는다. 릭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 로버트 슐러 번영 복음, 빈야드 부흥, 펜사콜라 웃음 부흥, 우리나라에도 헤븐리터치 등, 이런 것들은 다 모조품이다.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모든 가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는 않아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열매를 매고 있는가? 그래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15:8).

마5:16

5. 주의 사항

그리스도 안에 더 많이 거하면 더 많은 열매,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더 많이 하면 더 좋은 열매

가치처럼 버려진다(6-7). 이것을 구원을 잃는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

아니다. 지금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의 가지치기는 우리의 좋지 않은 품성, 행위 등을 말한다고 보아야지 구원을 잃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구원은 영원하다(6:37; 10;28).

또 여러 목사들: 자기 교회를 떠나면 생명을 잃는다. 교회는 사람들, 사람들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 교회나 목사가 잘못 하는 것을 보고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

그가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그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 그 교회나 목사에게 붙어 있지 않다.

결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

우리는 가지, 이것은 큰 특권, 동시에 열매를 맺는 책임, 이 열매는 대개 성품의 변화,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런 변화가 있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2021년에는 내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수님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가장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바란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서 열매 맺는 사역을 하기 원한다.

요한복음 42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과 성령님의 도우심

요15:18-16:4

요13장 이후: 내가 간다. 제자들 근심, 14장 근심하지 말라. 다른 위로자가 오신다. 진리의 영
나를 사랑하며 내 말들을 지켜야 한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아버지는 농부, 많은 열매, 가치치기
오늘은 〈 〉 세상에 남게 된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5:18-16:16에는 두 가지 주제.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한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기서는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한다.
그런데 이런 미움은 세상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에게서도 나온다.
오늘은 15;18-16:4만 먼저 보려고 한다.

성도와 핍박

번영 복음이라는 가짜 복음이 있다. 만사형통, 복을 받으러 교회에 온다. 헌금한다. 예배한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정반대를 말한다(딤후3:12-13). 성도는 핍박당하고 세상은 더 악하게 군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의미(마16:24)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당할 핍박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하심(마5:10-12, 44; 마10:16-23): 원래 유대인 성도들 대상 구절, 그러나 원칙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된다.
요한복음을 보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5:16; 7:19,25; 8:37, 59; 9:22(출회); 11:8).
따라서 제자들이 18절 같은 말씀을 듣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사실 재림 때까지 성도들은 핍박과 증오의 대상이 된다.
이런 압박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을까?
성령님은 인격체임을 잊지 말자(요14;16, 남성).
지정의가 있으신 분, mind(롬8:27), will(고전12:11), emotion(갈5;22-23)
15:26,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의 몸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의 성전(고전3;16-17)
중요한 사실: 성령님이 없이는 결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성령 안에서 걷고(갈5:16), 살고(5:25), 예배하고(빌3:3), 증언한다(행1:8).
그러니까 성령님은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복음 선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신다.

세상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라는 많이 나온다. 80번(단수)
세상의 정의:
1. 창조 세상(요1:10; 9:32)
2. 하나님을 떠난 세상 체제(3:16): 사람, 국가. 철학, 문화, 음악, 조직, 계획, 활동 등,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다.

종류에 상관없이 죄로 가득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이다(요일2:15-17).
세상의 통치자(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체제
이런 세상에 성도들이 남아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미움(15:18-19), 핍박(20), 출회, 심지어 죽음(16:2), 사도행전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와 있다.
세상의 특징: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핍박한다.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
1.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시된다(18, 20): 20절을 보라. 그분은 스승, 우리는 제자, 따라서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2.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19): 우리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갔다. 시민권이 바뀌었다. 물리적으로는 세상에 있지만 영적으로 아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사람(히3;1).
그래서 세상의 욕망과 죄에 큰 관심이 없다. 즉 우리는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의 것들을 본다.
세상은 순응을 요구한다. 우리더러 똑 같이 할 것을 요구한다.
말, 의복, 문화 등, 그러면 잘 지낼 수 있다.
그런데 참 성도는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다(롬12:2). 성도는 새로운 창조물(고후5:17)
그래서 더 이상 옛 생활 터전인 세상 안에서 살지 않는다(벧전4:1-4).
세상의 빛과 소금(마5:13-16).
세상은 이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

3.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영적으로 무지하고 눈이 먼 상태이다(21).
요8을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들, 하나님을 안다. 그분의 아이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요8:19; 55). 요1;10
심지어 세상의 여러 종파,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다.
비근한 예로 천주교를 보라. 성경의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
교황을 보라. 추기경들을 보라. 예수님을 아는가? 전혀 모른다.

4. 세상은 자신의 죄에 대해 정직하지 못하다(22-24; 16;1-4).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자신의 말들과 일들을 강조하신다(3:2; 5;36-38; 10;24-27; 14:10-11 등). 그래서 그들의 죄를 가려 줄 것이 없다(22).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듣고 보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세상은 결코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다. 그냥 미워한다(25). 구조적으로
요15:25, 시35:19, 69:4 등에서 인용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빌1:28-30, 딤후2:9-12; 히12;3-4를 보라.
세상은 일부러 수용하지 않는다(벧후3:5).

5. 이것이 세상 시스템이다. 요즘 코로나 19 사태를 보라.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미워하는가?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처럼 여겨진다. 교회만 10% 등 규제, 구조적인 문제이다.
더욱이 좌익 세상에선 더 그렇다.

성령님은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하는가?

그래서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고 하신다(26).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는가?

1.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 증언 사역(요15;26-27), 진리 증언, 사도행전을 보라. 진리 증언

2. 이런 핍박이 곧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빌3:10).
그래서 특권으로 여겨야 한다(벧전4:12-19).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핍박이 항상 있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늘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벧전3:15).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바르게 증언할 수 없다(행1:8).

3.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 놀라거나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다(16:1).
사서 고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진리를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핍박을 받으면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더욱이 이런 핍박은 종교 집단에서 올 수 있다(16:2). 여기는 회당 이야기, 유대인 핍박
즉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핍박할 수 있다. 중세 암흑시대 카톨릭 교회 성도들 핍박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핍박한다. 마르틴 루터의 핍박을 보라.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 왔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대적한다. 예수님을 대적하므로, 그러므로 당연히 받아야 한다.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신다(행1:8). 핍박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43 성령님은 신약 시대에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요16:5-15

요한복음 총 21장, 1-12장 예수님의 공생애, 13-17장, 십자가 처형 전날 제자들과의 만남, 이들에게 사실을 고함, 이들의 앞날 예비, 특별히 17장, 아버지께 이들을 부탁드리는 심오한 기도

자신의 사명 완수, 그들을 떠남, 근심하지 말라. 이제 신약시대가 열린다. 그런데 너희를 향한 핍박이 있다. 그것은 필연적이다. 나를 미워하고 진리를 미워하므로 반드시 나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너희는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동시에 신약시대의 복이 있다. 다른 위로자 곧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 〉 그러면 그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설명

신약 시대는 교회 시대, 이 시대의 우리의 안내자 성령님,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특히 20세기초반부터 생겨난 오순절 은사주의 성령님에 대한 혼동

성령님은 꾸짖는 사역을 하시며 교회를 통해 증언하신다(5-11).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심

이제 떠날 때가 됨, 베드로 포함 제자들: 어디로 가십니까?(13:36)

그런데 이제는 근심이 가득 차서 더 묻지도 않음(5-6)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그들에게 알려주셔야 한다.

가장 큰 이유: 이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셔야 하기 때문이다(7).

"더 좋다니!" 참으로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

또 승천하신 주님은 하늘의 왕좌에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셔야 한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

성령님은 1차적으로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오신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일하셔야 한다.

예수님을 보라.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서 일하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역시 몸이 있어야 일을 하신다. 그 몸이 바로 교회이다.

즉 우리의 몸이 그분이 거하시는 전이고 도구이다(고전3:16).

즉 우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항상 자신이 거처로 삼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힘을 주셔서 그가 선포하게 하심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 중 하나, 세상을 꾸짖는 사역(8).

reprove, 원래 뜻은 밝은 빛으로 가져가 환하게 드러낸다. 유죄임을 보여 준다. "실상을 선포하다"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에 세상이 유죄임을 알려주신다는 말이다.

즉 그리스도인의 증언: 세상은 유죄, 성령님이 세상을 향해 고소하는 검찰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 고소해서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8).

1. 죄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는다.

성령님은 그들의 불신에 대해 꾸짖으신다(9). 단 하나의 사유

하나님의 법, 사람의 양심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확증하고 성령님은 교회의 증언 사역을 통해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불신으로 인해 정죄를 받는다(요3:18-21).

사람은 여러 가지 죄를 짓는다. 그러나 그 죄들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불신 때문에 정죄받는다.

어떤 사람, 많은 죄를 지음, 개과천선, 나쁜 일 안 함. 그래도 믿지 않으며 지옥 정죄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즉 하나님만을 신뢰하는가 여부, 창조자, 구원자, 의사

그러므로 죄인들을 찾으신다. 그들이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2. 의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는다.

죄인들에게 그들의 불의에 대해 꾸짖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 꾸짖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1.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 신성모독, 율법을 파괴한다. 속인다. 마귀 들렸다고 세상이 그분을 비난함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에게 바로 그 의로운 분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13-14).

행2장 베드로의 설교 2:22-24를 보라, 유대인들의 주장은 다 잘못이다.

그분께서 아버지께로 간 것을 보면 그분의 의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은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이날 이 놀라운 일이 생겼다.

성령님은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의에 해 책망할 것이다. 그들이 그분을 핍박하였으므로 유대인들 마음속으로 찔림(39), 바로 이 일을 하신다.

2. 구원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사53:11, 56:1; 렘23:6; 단9:24).

이교도들: 양심 등에 따라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을 믿음에 의해 전가가 됨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 의를 주기 위한 사역을 모두 마쳤다는 것을 뜻한다(단9:24).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다(요17:4).

3. 심판에 대하여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마귀를 심판하신다(히2:14-15; 요12:31).

마귀는 세상의 통치자, 그러나 이미 패망한 통치자, 그는 이미 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존재

이제는 그 형을 집행하는 일만 남아 있다.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4. 교회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언하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유죄임을 알게 된다.

자신의 불신의 어리석음을 보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의에 다다르지 못함을 보고 자신이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정죄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엡2:1-3).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확증이 없이는 회심 불가능, 그 확증은 오직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함께한다.

전도하고 증언한 일은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말씀, 올바른 사람을 만나도록 성령님께 의존해야 한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성령님은 가르치시면서 교회를 인도하신다(12-15).

주님의 교육 방법: 적당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가르치심, 좋은 교사의 특징

이 시대의 교사는 성령님, 같은 방법 사용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진리들, 우리가 그것들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수요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가르치신다.

요14:26, 16:13 비교, 하나님이 신약성경을 놀랍게 기록하신 것을 볼 수 있다.

14;26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16: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함(14;26), 그 결과 사복음서

그분은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함(16;13), 그 결과 서신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심(16;13), 대언의 말씀, 계시록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분리하면 안 된다.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15:26)

그분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16:14)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에서 벗어나거나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진리(14:6), 말씀은 진리(17;17), 성령님은 진리의 영

그러므로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진리가 있다.

이 시대의 특징: 진리가 없다. 찾기 어렵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 배척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낙태, 동성애, 사회주의 공산주의, 차별금지법은 죄, 이것 말하면 극도의 혐오

그분은 자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13). 즉 아버지와 아들에 초점을 둔다.

자기만을 높이지 않는다. 혹은 자기만의 메시지를 만들지 않는다.

요16:23, 삼위일체 언급, 항상 겸손히 일하신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느냐? 아니다, 같다.

어떤 이들의 주장: 그리스도의 복음(기독교)과 바울의 복음(기독교)는 다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기독교)을 파괴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복음 메시지를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다.

요14:26, 16:13은 이런 주장 불가능함을 보여 줌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 바뀐 것을 감지하지 못함

예수님: 구약시대, 하늘의 왕국, 유대인 사역, 십자가

그러나 바울: 신약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 사역, 전 세상 복음화, 하나님의 세상 경영 통치 설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설명 필요, 예수님과 바울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딤후2:15

사복음서의 성령님이 바로 사도바울의 서신서의 성령님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보화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 성령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건의 작은 책들 안에 진리의 보화가 들어 있다. 캐내야 한다.

그러려면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하다.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자세와 결심이 필요하다.

성경 공부의 목적: 내 지식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No!

1. 그리스도를 알려고

2.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3. 삶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려고

성령님의 사역 결론

세상은 우리에게 적대적이다. 핍박한다. 1.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2.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꾸짖는다. 3.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증언할 때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사용한다. 주시는 지혜를 사용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들에 확증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언하는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신다.

요한복음 44 그리스도인의 근심과 환난과 기쁨과 평안

요16:16-33

요한복음 총 21장, 1-12장 예수님의 공생애, 13-17장, 십자가 처형 전날 제자들과의 만남, 특히 13-16장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앞날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시는 대목, 오늘 그 부분 마감

3년 반 동안 자신의 사명 완수, 그들을 떠남, 그들의 근심, 근심하지 말라. 이제 신약시대가 열린다. 그런데 너희를 향한 핍박이 있다. 그것은 필연적이다. 나를 미워하고 진리를 미워하므로 반드시 나를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너희는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동시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 위로자 성령님을 내가 보낸다.

1. 성령님은 죄, 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꾸짖는 사역을 하시며 교회를 통해 증언하신다(5-11).

2.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다. 3.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신다.

성령님의 사역: 침례, 내주, 봉인, 충만, 책망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의문이 남아 있다. 근심이 남아 있다.

오늘 〈 〉, 제자들의 근심, 그리스도인의 환난, 기쁨, 평안, 13-16장 총 4장 요역

배경

제자들의 의문: 16-18,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넘치는 슬픔, 주님의 가르침 이해 못함, 두려움

제자들은 우리와 동일한 실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사용하여 세상을 바꾼다.

이들 모두 보통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 대목에서 반복되는 주제: 기쁨(20-22, 24, 33), 근심과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

제자들은 당장에 그것을 깨닫고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였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쁨을 누림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가?

예수님의 대답: 19-20절, 내가 가므로 너희는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기쁨을 얻는 원리(20-21)

엄마와 아들을 생각하자. 조금 자라면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친구들과 같이 논다. 아이의 기쁨

그런데 장난감이 부서진다. 친구가 집에 간다. 아이의 기쁨 사라짐

엄마의 두 가지 옵션: 장난감의 경우, 1. 새로 사 준다. 대체한다. 2. 다른 것을 가지고 놀게 한다. 혹은 다른 일을 하게 한다. 상황의 변화

매번 새로 사 주면: 아이에게 한 가지가 각인된다. 엄마가 대체해 줄 것이다. 친구의 경우 다른 친구를 불러 줄 것이다. 이 경우 아이는 현실에 대처하지 못한다. 매번 새 것으로 대체해 주는 것은 사실 아이를 망치는 일, 아이의 성숙을 방해한다. 즉 늘 새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미성숙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바뀐 상황에 적응하며 적절히 대응하면 아이의 성숙을 가져온다.

22절 주님의 예: 엄마가 아이를 출산한다. 엄청난 고통, 근심

예수님의 설명: 그런 고통이 기쁨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다. 고통이 기쁨으로 변한다.

고통의 원인인 그 아이가 기쁨의 원인이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리

참으로 어려운 상황, 하나님의 은혜, 시험이 승리로, 고통이 기쁨으로

요셉의 상황을 보라. 형들의 시기 질투, 이집트로 끌려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감옥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결국 그는 감옥에서 파라오의 시종장들을 만나 꿈을 해석하고 또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됨, 12 지파를 구원함, 이스라엘 민족을 만듦, 장자권, 에브라임과 므낫세

주님의 말씀 부연 설명: 주님의 16절 말씀, 제자들은 전혀 알 수 없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런 일이 종종 생긴다.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 매장, 부활, 승천 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심

예수님의 승천: 세상은 기뻐한다. 너희는 근심한다. 그러나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다(20).

성령님이 오시므로, 행2장의 제자들을 보라. 완전히 다른 사람들
세상은 주님이 없는 것을 기뻐한다.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그러나 우리의 고통과 근심은 성령님에 의해 기쁨으로 변한다.

행5, 복음 선포, 베드로와 요한 투옥됨, 주의 천사가 그들을 데리고 나옴, 주 예수님 증언 41-42

믿는 자가 얻는 기도 응답의 약속(23-28)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기도 응답의 약속(23)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진다(24)

23절의 그 날은 언제인가? 더는 내게 구하지 않는다. 부활 후 승천한 뒤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더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구하면 된다.

이것이 제자들이 확실히 믿어야 할 약속이다.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갈4:6)

다락방 모임, 14:12-14, 15:7, 16, 16:23-26 등 기도 강조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 사도행전: 제자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기도함

성경 공부의 목적: 심오한 진리 탐구 맞는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삶이 황폐해진다.

아버지를 더 많이 아는 것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분의 것들을 존중히 여기고 언행이 거룩해져야 한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새로운 상황이 생긴다.

예수님은 하늘 왕좌,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롬8:34; 히7:25).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의 변호자(요일2:1),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회복시킨다.

성령님이 오신다. 위로자

성령님이 신음하며 중보하심(롬8:26)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약속(29-33)

제자들의 변화(29-30),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해는 아직 부분적이다. 그러나 13장 초반과 달리 이제는 얼굴에 희색이 돈다.

이제 우리는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30).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주님의 기도(17:6-8)

이해, 믿고 확신, 여기서 끝나면 또 실패한다. 그 믿음을 실행해야 한다.

주님은 제자들이 다시 실패할 것을 아시고 31-32절을 말씀하심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떠나도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요8:16; 29).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아버지가 함께하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면 아버지가 함께하신다.

요즘 무척 힘들다. “어휴 어휴”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나는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경 작업 끝내고 교회 바로 세우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최종 약속(33):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얻는다.

내 안에서(in me), 세상 안에서(in the world)

신자의 운명,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 세상에서는 환난,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

어떤 분의 질문: 예수님 안에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

죄의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

평안의 정의: 합당한 자원을 소유하는 것

어려움이 올 때 합당한 자원이 있으면 넉넉히 이긴다. 이것이 평안이다.

이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 세상을 이기신 분, 좌, 지옥, 사탄 마귀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기는 자(요일5:4)
마귀와 육신과 세상은 우리를 누르고 이기려 한다.
세상은 우리가 동화되기를 원한다. 세상을 거스르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주님이 해 주신다.
지난 1년 이상 동안 코로나, 극심한 교회 탄압,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준동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므로 우리가 믿음대로 우리 일을 하면
주님께서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 주실 것이다.
개인 문제: 병, 직업, 결혼, 학업, 취업, 가정생활, 믿음 지키기, 각종 어려움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기도해야 한다. 즉 주님만을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45 진짜 주기도문: 그 배경과 핵심 의미

요17:1-26

요한복음 총 21장, 1-12장 예수님의 공생애, 13-17장, 십자가 처형 전날 제자들과의 만남, 특히 13-16장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앞날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시는 대목, 오늘 17장은 그 부분 마감

보통 교회에 가면 주기도문을 외운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주님이 드린 기도문이다.

마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기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신다.

1. 위선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퉁이에 서서 길게 기도한다(6:5).
2. 이교도들처럼 헛된 반복의 말로 길게 기도한다(6:7).
3. 그러고 나서 6:9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시고는 9-13까지 제자들이 드려야 할 기도를 알려주신다(5절).

즉 이것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이다.

기도의 요점을 담은 모범 기도

반면에 요17장은 실제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다. 자그마치 26절

신약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기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기도, 한 마디로 이기는 자의 기도이다.

오늘 〈 〉, 배경과 의미, 교훈

구약 시대 성막: 뜰, 성소, 지성소

오늘 요17은 지성소와 같이 거룩한 것,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대해야 한다.

이제 아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상 사역을 마치면서 내일에는 자기 생명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

자신이 오신 목적 성취 보고, 남기고 가는 사람들 즉 우리를 위한 기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도 16:33을 말씀하신다. 즉 그분은 희생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이다.

세상을 이기신 분의 기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주기도문의 구성

1.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다는 보고(1-5)
2.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지켜주십시오(6-19)
3. 우리와 세상을 향한 기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20-26)

왜 이 기도를 하셨을까?

1. 갈보리 십자가 준비, 힘을 얻기 위해서
2. 제자들의 안위, 기쁨, 연합
3. 교회가 자신의 과거 사역, 미래 사역을 알도록

사명 완수 보고(1-5)

드디어 때가 왔다(1).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구절, '내 때', '때', 주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심, 3년 반 동안, 한 점의 오차도 없이, 드디어 모든 것의 정점이 왔다.

지금 우리 주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핵심, 자신의 사명 완수(4)

마6장의 주기도문, 첫 구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영광, 영화롭게 하다. 5번, 창세 전에 가지신 그분의 영광(5), 그것을 버리고 성육신

17장 안에 영광, 영화롭게 하다 glory 8회, 대단히 중요한 주제, 성경에 단수 영광만 402번

영적인 창조물들 창조; 주님의 영광

사람과 우주 공간 창조: 주님의 영광, 내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의 기적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요2:11; 11:40).

그분의 고통과 죽음, 아버지를 가장 크게 영화롭게 함(12:23-25; 13:31-32)

갈보리 십자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여 주는 것,

주님의 고백(4). 참으로 영광스러운 고백

주님의 메시지, 기적들, 제자들 훈련, 갈보리 십자가 죽음, 부활, 대신 속죄 완결

영존하는 생명(3), 영원한 생명, 영생 역시 요한복음의 큰 주제, 적어도 17번
영존하는 생명,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아버지의 선물(3:15-16; 36; 6;47; 10:28), 불멸하시는 아버지의 생명, 하늘의 생명
아들을 보낸 목적(2):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그러면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3). 아들을 통해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14:6).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의 이해가 중요한다. 약2:19,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두려워한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함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에 대해 성경은 무어라 말하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내 행위, 인격, 전통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이런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함(요일5:4),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예수님의 피로(계12:11)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심(6-12)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6). 구약 시대의 여호와(출3:11-14), I AM.
요한복음의 특징: 일곱 번의 I am. 1. 나는 생명의 빵이다(6:35). 2, 나는 세상의 빛이다(8:12). 3. 나는 양들의 문이다(10:7-9). 4. 나는 선한 목자다(10:11-14); 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11:25-26); 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14:6), 7.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15:1,5)
주님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알려주셨다.
이 I AM이 하늘에 계시는 그들의 아버지, 구약시대에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요한복음에 120회 이상, 13-17장에만 50회 이상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 하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 이름은 어떤 존재의 본성/특성을 말한다.
야곱은 속이는 자(창25:26), 이삭: 웃음(창21:6), 예수: 구원자(마1:21)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6), 아버지의 성품, 본성, 본질을 나타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밝히 드러냈다(1:18). 구약시대에 꿈, 환상, 대언자를 통해 어렴풋이 알던 아버지를 확실하게 드러냄, 자신의 기적들, 언행을 통해서 하루가 아니라 3년 반의 시간에
주님의 요청: 그들의 안전(11-12), 땅에 있는 동안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다(12).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행위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신실하심, 은혜로우심, 공의로우심)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의 본성을 따라 지켜 주신다.
제자들과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선물(11), 이 선물은 영원한 선물, 안전히 지켜야 할 선물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고 변호자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11절이; 거룩하신 아버지
11절의 오역으로 인해 이단이 생겨남(*)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13-19)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14)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버지의 말씀들(8),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을 안다.
마4:4; 딤후3:16-17, 마24;35 영감과 보존
오늘은 특별히 말씀의 성화 사역(17),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을 거스르며 살기가 쉽지 않다(16).
그래서 17절이 나온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세 요소:
아버지의 아들(14:6), 성령님 진리의 영(14:17), 아버지의 말씀 진리(17:17)

그러므로 성화를 위해서는 이 셋이 다 필요하다.
성경 공부가 유익이 되려면
1. 말씀을 통해 성경 지식 교리 확신
2.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됨, 3.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려놓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분의 증인 역할을 한다(18).
성화는 단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통로
수도승 은둔 생활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며 증인

아버지의 영광을 주셨다(20-26)

이제부터는 미래에 대한 말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
지금까지 우리의 안전, 성화, 이제는 우리의 연합
wcc, wea 등 세계 종교 통합을 하려는 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절(21)
사람 띠로 세상을 두르는 인위적인 연합이 아니다.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이다(엡4:3-6).
그러나 제자들이 보여 준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기심, 시기심의 경쟁 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성도들이 이런 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
신약 시대 교회, 성도는 외로운 별이 아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로
모이고 교제를 나누며 연합의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세상을 향한 좋은 증인이 될 수 있다(21).
이렇게 사랑하고 연합한 자들이 결국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산다(24).
그러므로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험담하거나 헐뜯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히계 보고를 해야 한다(롬14:110, 12-13).
마지막 말씀: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었다(26).
즉 3년 반 공생에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 주셨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므로 진리와 사랑이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한다(엡4:15).

결론

주님의 지상 사역 완결, 가장 중요한 것들
1. 하나님의 영광
2.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
3. 지역 교회 안의 화합
4.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복음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네 가지에 초점을 두고 믿음 생활/교회 생활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17:4를 고백하면 좋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요한복음 46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다 이루었다'의 의미

요19:17-42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마다 정해진 운명이 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달리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운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요13-17장, 십자가 처형 전날 제자들과의 만남, 13-16장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앞날에 있을 일들을 알려주시는 대목,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핵심17:4, 아버지의 영광이 내 목표, 그 일을 끝마쳤다. 그분이 끝마친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고전15:1-4. 참으로 아이러니

18장 1-27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 베드로 포함 제자들의 부인,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 18:28-19:1-16에는 빌라도의 심판정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 두 주제는 다음에 설교하도록 하고 오늘은 요19:17-42, 〈 〉, 복음의 핵심 십자가, 죽음, 매장,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말씀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십자가 처형(17-27)

유대인 지도자들 주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사형 선고는 로마가 해야 한다. 빌라도 설득, 위협, 빌라도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 그러자 수제사장들,로마 군인들 십자가 처형장으로 주님을 끌고 감

로마의 정치인/철학자 키케로: 십자가 처형은 가장 진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

〈십자가를 알아야 구원을 안다〉 마르틴 헹엘 | 이영욱 역 | 감은사

2020년 3월 2일 크리스천투데이 책 리뷰 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안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처형이었다. 로마는 자신의 체제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법에 불순종하는 국가적 반역자들에게 이 형을 선고한다. 평범한 죄수에게는 선언하지 않고, 국가 반역죄를 지은 흉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벌이다.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를 처형함으로 로마의 권력을 보여주고, 황제에게는 절대 순종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유대교에서도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법이 있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종교를 흔들고 체제를 허무는 자와 외세의 힘을 빌려 민족을 위협하는 자는 나무에 죽인다는 규칙이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와 헤롯이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님의 사형에서는 하나가 되었듯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로마의 심판을 지지하며 자신들의 종교와 신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적극 찬성한다.

이렇듯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와 죽음의 상징이다. 십자가 처형에 대한 보고를 읽으면, 그 현장이 정말 처절하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하다. 그 고통은 지옥의 공포를 느낄 정도이고 그 수치는 차라리 죽음이 나을 정도이다.

십자가는 고대 아시리아에서 패잔병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공포의 도구였는데 이것이 로마까지 이어져, 황제의 권위를 세우는 사형 제도가 되었다. 유대교에서도 율법으로 정해진 저주받은 자가 죽어야 하는 형벌이다.

그러나 이런 죽음의 십자가가 오늘날 생명의 상징이 되었다. 고대 십자가의 이미지와 오늘날 십자가의 이미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인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너무 깊고 풍성하다.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 길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에 주님은 살이 뜯기고 뼈가 드러나도록 심한 매질을 당하셨다(19:1).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장까지는 아마도 1킬로미터 정도 길,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가야 한다. 보통 사람도 감당하기 어렵다. 우리 주님은 너무 지쳐서 지고 가지 못한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등장, 유월절을 지키려고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강제로 차출되어 지치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인물이다. 그의 가족은 주님을

알게 된다(롬16:13).
죄수의 죄목을 적은 명패를 십자가 위에 붙여야 한다(19).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많은 사람들이 읽음(20), 수제사장들의 반발, 빌라도의 대답(21-22) 그는 종교인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마27;18).
위협 때문에 처형을 허용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망신을 주고 싶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여러 민족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개 처형되심
히브리어 종교, 그리스어 철학/문화, 라틴어 법
모든 민족들이 모이고 종교/철학/문화/법 등 인간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는 가치들이 모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
그럼에도 그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영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심
사실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게 온 세상이 그분의 정체를 알도록 큰일을 수행함
성경은 그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려준다(마2:2; 눅 1:31-33)
십자가 처형 장소: 예루살렘 도시 밖의 어디(히13:11-13), 아무도 모른다.
AD70년경 로마의 타이투스, 로마 병사들 예루살렘 파괴, 너무 파괴가 극심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히브리말 골고다: 해골(19:17)
갈보리(눅23:33)는 이에 해당하는 라틴어,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온다.
예수님은 두 명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심(19:18), 사53:12
당시 예수님은 유명한 분, 유월절을 지키러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방문
다수의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 소식을 듣고 그분의 처형을 보았을 것이다. 조롱하였을 것이다.
또 도시에 처형을 위해 여러 명의 군사들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군사들을 다스리는 백부장도 있었다.
예수님은 유명 인사이므로 빌라도는 많은 군사를 배치하였을 것이다.
당시의 습관: 군사들이 죄수들의 물품을 나누는 것
예수님께는 그분이 입으신 옷밖에 없었다.
군사들이 그것을 가지기 위해 제비를 뽑는다(23-24), 시22;18
1명 배반, 10명 도망함(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요한만 여자들과 함께 남아서 그분의 처형을 보고 있다
(25-27).
그분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잊지 않고 요한에게 위탁하심
마리아는 공생에 시작 가나의 혼인 잔치(2;11), 그리고 공생애 끝 처형 장소(25)
마리아 역시 이런 운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눅2:34-35)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분의 곁을 지킨다.
마리아는 그 뒤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거한다(행1:14).
막달라 마리아, 마귀들에게 고통을 받다가 주님을 통해 구원받음. 재물로 주님을 섬김
막달라 마리아는 눅7:36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이 아니다.
살로메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막15;40), 치맛바람(마20:20-29)
아마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살로메는 자기의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느꼈을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28-30)

이런 위헌함 순간에, 극도로 아픈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28).
성경 말씀 성취를 위해 내가 목마르다(시69:21).
그분은 12시부터 오후3시까지 십자가에 세 시간 달려 있었다(마27:45-49).
어둠이 온 땅을 덮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최종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지고 있다.

극도의 갈증, 칠흑 같은 어둠, 아버지에게서 철저히 고립됨, 지옥의 형벌을 당하고 있다.
결국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30) 하시고 숨을 거두심
It is finished.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끝난 상태로 있다.
Finish, 100미터 달리기, 마라톤, finishing line
다시 그리스 사람들이 늘 쓰는 말
종이 주인에게 보고할 때, 제사장이 희생예물 검사를 끝냈을 때, 작가가 책을 끝냈을 때, 예술가가 작품을 끝냈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 누구에게 빚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돈을 다 갚으면 It is finished. 빚이 전액 지불되었다.
요17:4,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드디어 끝났다.
고후5:21
히12:2
예수님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희생예물로서 우리의 모든 빚을 전액 배상하셨다.
그래서 끝이 났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히9:26
더 이상 죄들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다.
짐승 희생 더 필요 없다.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일은 그분을 믿는 것이다(요6:29).

그분의 매장(31-42)

돌아가신 주님을 무덤에 안치하는 일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
로마의 군인들(31-37), 유대인 성도들(38-42)
매장 때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유대인들의 소원(31)
군인들은 원해 사형수의 뼈를 꺾어야만 한다(32).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33-34). 이로써 성경기록이 성취된다(36; 출12;46; 민9:12; 시34;20).
그분의 옆구리를 찌른다(슥12:10; 계1:7).
요한은 그분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을 보았다(34). 기록한 이유: 영지주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 부인함, 요한일서 4장 3절(*)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등장(38-42), 이들이 아니었으면 그분의 몸은 더러운 데로 갔을 것이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부자였다. 예수님의 제자
여기에 또 하나의 신비가 있다.
당시 부자들은 무덤을 도시 안에 판다.
마태, 마가, 누가의 증언: 그것은 새 무덤이다. 분명히 요셉이 자기를 위해 판 것이다.
왜 그는 도시 밖에, 그것도 십자가 처형장 옆에 무덤을 만들었을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잠시 후
니고데모는 3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치리자, 당시는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으나 지금은 공개적으로 나타났다. 확고한 믿음 표시
이 두 사람은 십자가 처형 이전부터 면밀하게 그분의 죽음 대비, 무덤, 많은 양의 향품 준비(몰약, 알로에 39)
이 두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살펴보았을 것이다(요5:39).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을 탐구하다가 드디어 이사야서 53장을 찾았을 것이다. 53:9,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또 12절도

십자가 처형 예상, 도시 밖에 그 장소 곁에 무덤을 준비하고 향품을 준비함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우리도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수행해야 한다.

결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사역: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것,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이루었다. 죄, 지옥 형벌, 완전한 대신 속죄 희생,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주님의 의를 입었는가?

니모데모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의 신실한 믿음의 행위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47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알아들으십니까?

요20:1-18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끝에 왔다.

공생애 사역 마치시고 요17장의 주님의 기도

내가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17:4). 이들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 제자들의 도망, 드디어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선고 받고 다른 2명의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요19:30). 인류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놓이고 그분이 죄가 되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지옥 형벌을 받으시고 결국 오후3시경에 돌아가심

아리마대 요셉과 니모데모의 등장, 새 무덤에 예수님의 몸을 둠

그리고는 안식을일 지키러 모두 집으로 돌아감

복음의 핵심: 고전 15:1-6, 죽고 묻히고 부활하심

오늘은 복음의 핵심 중 마지막 1개, 부활하신 것을 살펴보려 한다. 〈 〉.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

막달라 마리아: 주일 새벽, 돌무덤에 감,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짐(1)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주님을 돌무덤에서 옮겼다. 장소는 모르겠다(2).

두 사람이 돌무덤으로 감(3)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함(4)

먼저 몸을 구부려 안을 보니 아마포가 놓여 있음(5)

베드로가 들어가서 아마포를 보고 그분 머리 주위에 있던 수건이 한 곳에 따로 놓인 것을 봄(7)

요한도 그제야 믿음(8)

그 이유(9)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 복음서 기사를 당연히 여기지 말라.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봄, 그러나 믿지 않음

우리의 반응: 아니 이 사람들 이상하네. 예수님이 몇 번이나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는데 왜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하지? 더욱이 베드로와 요한은 3년 반을 같이 다녔는데.

복음서에 기록된 사실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부활이 있던 곳으로 우리도 돌아가야 하다.

자 그때로 돌아가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사흘 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숨진 뒤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믿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사실 이상한 사람

예수님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정상인, 마리아, 베드로, 요한 다 정상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요20:1에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여자들도(막16:1-8; 눅24:1-8)

사흘 전 십자가 처형 이후 요셉과 니모데모가 급하게 그분의 몸을 무덤에 안치하고 돌아감

이 여인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만 생각함, 그분의 장례를 제대로 완결해야겠다는 생각

이들의 문제: 어떻게 돌무덤에 들어갈까? (*) 여자들 힘으로는 불가능

이들이 알지 못한 것: 지진이 발생하고 천사가 돌을 굴려내었다(마28:2). 거기 앉아 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보도 먼저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무단 침입, 주님의 몸을 가져갔다고 생각함

당시 마리아는 이 결론 외의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음

날은 아직 어둡고(1) 그녀는 아직 부활을 믿지 않았다)9).

가까운 곳에 머물고 있는 베드도와 요한에게 보고함(2). 그런데 우리라고 말함(2)
곧바로 다른 여인들도 무덤에 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소식을 천사에게 들음(막16:1-8).
그래서 무덤을 떠나서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함
정리: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은 믿음을 가진 여인들에게서 나왔다.
당시 여인들은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하는 존재, 그러나 여인들이 끝까지 십자가 처형, 부활 소식
교회는 여인들의 수고와 사랑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감사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 불신이 아니라 가려져 있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셋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왔다.

베드로와 요한(3-10)

예수님은 생전에 여러 차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복음의 초기에 요2:19, 2;22
요나의 비유(마12;40)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마16:21)
십자가 사건 바로 전 날, 주의 만찬,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를 떠난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증거에 의거한 믿음. 수의를 보았다. 예수님의 몸이 거기에 없다.
이런 증거들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삶을 바꾸지 못한다.
지금 우리는 이들이 가졌던 증거가 없다. 수의, 열린 무덤 등
다만 우리에게는 성경말씀이 있을 뿐이다(9). 요19:35; 21:24 등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성경 말씀을 사용하셨다(요2:22; 12;16; 14:26)
성경기록을 믿어라.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벧후
1:12-21). 1;19
당시 제자들의 성경기록은 구약이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함
바울: 부활 행13:33, 시2:7, 베드로 다윗 시16:8-11, 행2:23-36)
예수님, 요나(마12:38-40)
부활 뒤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이심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됨(행10:39-43). 이들의 증언이 신약 성경에 기록됨
그래서 성경전서 안에는 예수님의 북음과 매장과 부활이 모두 기록됨
베드로와 요한도 아직 어둠 속에 있었으나 이날 저녁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뛰어나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부활의 증인으로 남아 있다.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11-18)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는 두 제자의 뒤를 따라 갔던 것으로 보인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집으로 돌아감.
그녀는 돌무덤 부근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막달라는 갈릴 바다 서쪽의 도시
눅8:2에 한 번 나옴, 눅7의 죄인인 어떤 여자와 동일 인물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몸에서 일곱 마귀를 쫓아내심
마귀 하나가 있어도 힘든데 일고 마귀가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 일 뒤에 그녀는 예수님께 헌신하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 처형장까지 따라간다.
잠8:17,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지혜 인격화
마리아는 자기의 주님께 아침 일찍 이런 사랑을 보여 드리고 싶었다.

마리아는 아직도 주님이 죽어 있다고 생각함(11).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으면 크게 울었다. 우는 여인들을 고용하였다. 아마 마리아도 이렇게 울었을지 모른다. 가슴이 미어지면 울게 되어 있다.
이렇게 울다가 돌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있었다(12). 흰옷 입은 두 청년
마리아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리고는 그들과 대화하였다(13).
예수님의 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함, 이 사람들하고 더 대화해야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뒤로 돌아섬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함(14).
그렇게 찾고자 하는 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감추었을 수 있다(눅24의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들).
아직 어두운 새벽, 울다가 갑자가 돌아서서 그 사람을 분간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정신이 없다.
더 확실한 답변: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에 그분이라고는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예수님의 질문: 왜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15)
마리아가 그분의 부활을 알았다면 지금은 마리아가 울 때가 아니라 기뻐서 찬양해야 할 때이다.
롬8:16,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울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와 주님의 대화(15), 동산지기로 생가감
주님은 그녀가 부활을 믿지 못함을 책망하지 않는다.
마리아의 마음과 생각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신다.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이름을 부르신다. 마리아야!
그러자 즉각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았다.
복음 성가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날 써 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그분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다(요10:3).
아마도 예수님과 이야기하다가 다시 무덤 쪽을 향함, 예수님의 음성, 마리아야!

마리아의 말: 곧바로 랍보니여, 선생님이여, 주님이여
너무나 기뻤다. 이 주님이 다시는 자기를 떠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다.
지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던 그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같이 계시기를 소망하였다.
주님의 말씀(17),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알리라(19)
내 형제들(히2:11-12; 시22:22), 즉 자신의 부활의 권능과 영광을 공유할 자들
신약 시대 교회의 특징
17절은 난해 구절 중 하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다른 곳에서는 손을 대라고 하신다. 도마에게(요20:27), 다른 제자들(마28:9) 그분의 발을 붙잡음
그 이유: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제자들에게 전할 말: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대다수의 주석가들: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그분을 껴안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려 하였다. 이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급한 것, 그러니 손을 대지 말고 속히

가서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데 문제는 전하라는 핵심 메시지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실제 승천은 40일 뒤에, 물론 부활 소식도 있지만
성경 그대로 믿는 성도들은 대개 다음과 같이 믿는다.
지난주 처형 뒤 사흘 동안 어디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일단 지하세계로 가셨다.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 타르타로스의 영들 승리 선포
아브라함의 품(낙원) 구약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
엡4:8-9,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지하 낙원에 갇혀 있던 성도들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심, 낙원을 하늘로 옮기심(고후12)
이 과정에서 일부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여 예루살렘에 나타남
마27:51-53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
또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음
(히 9: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에는 참 성막이 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다(8:5).
예수님은 지상에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을 끝마치셨다.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 더 더할 것이 없다.
그러나 아직 부활하시며 천상에서 하실 일이 있다.
낙원을 옮겨야 한다.
구약 성도들 일부를 부활시켜야 한다. 자신의 부활 증언
자기 피를 힘입어 하늘의 거룩한 곳(지성소 혹은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 부활 승리하셨음을 아버지께 보고하는 일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에는 자기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보임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이단 소리를 듣게 된다. 즉 자기 피를 가지고 가서 하늘의 지성소에 있는 긍휼의 자리에 뿌림으로써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 십자가 끝이 아니라 부활 뒤 하늘의 성소에 피를 뿌리는 일까지 해야 구원 완성, No!! 성경에는 이런 말 없다.
땅에서 하실 일 모두 완성, 구원에 관한 한 더 더할 일이 없다.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낙원을 아버지 계시는 셋째 하늘로 옮기고 부활 승리 보고하는 일을 하셔야 한다.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자기를 보이시고 몸을 만지게 허락하였다.
이 부분은 매우 묘한 부분이므로 이것에 강조점을 두면 안 된다. 다만 미국의 성경 신자들 중에는 이렇게 믿는 분들이 많고 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는다.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가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린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셨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말하였다(18).
즉 살아계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들을 전할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났다.

결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가?
공중 강림하실 때에 출석부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 있어야 한다. 오직 믿음으로
그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해야 한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1912년 마일즈가 요20장을 읽으며 묵상할 때 가사가 떠오름
원래 가사
이슬이 아직 장미꽃 위에 있을 때 홀로 동산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후렴, 그분께서 나에게 나는 자신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He walks with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that I am his own.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 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하나
괴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1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러 오심(14)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오심(1;29)
공생애 시작, 다양한 기적, 말씀 선포, 유대인들의 환호, 수많은 군중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반대 세력(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커진다.
3년쯤 되었을 때에 드디어 가이사랴 빌립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것 예고(마16:21)
제자들, 무리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의 근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온다(요14:3).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위로자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신다(14:16).
교회 시대가 열린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를 미워할 것이며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15:19-20).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16:33).

요한복음 48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까?

요20:19-31

예수님의 복음: 죽음, 매장, 부활, 지난 몇 주 이 세 가지 설명

지난주 요20:1-88,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알아들으십니까? 알아들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 〉,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부활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려고

그런데 죽기까지 육신을 가진 상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나는 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런데 전자만 생각하고 후자가 형편없는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이

라고 말하지 않는다. 즉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삶이 변화가 되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사실 목사와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기 위해

그래야 인간의 본분, 교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주저함과 함께, 나중에는 열정과 함께

처음에는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 도마는 증거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부활 이후 중요한 일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변화를 맛본 사람들 이야기를 살피려 한다.

오늘 우리는 다시 물어야만 한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는가? 그분 때문에 내 삶이 변했는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용기를 가진 사람들로(19-25)

1. 일단 그분은 그들에게 오셨다(19).

그들이 모인 장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들에게 오셔서 확신을 주셨다.

주님의 부활하신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 문을 열지 않고도 안으로 들어가신다.

그분의 몸은 분명히 물리적인 몸이다. 음식을 드시기도 한다(눅24:41-43). 옷, 말씀하신다.

우리도 부활하면 휴거되면 바로 이런 몸을 소유하게 된다. 나는 이것이 가장 좋다.

제자들의 상태: 부활 소식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였다.

부활 소식: 여인들, 엠마오 재자들, 베드로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 불신 가운데 두려워함

이런 그들이 변화가 되어 온 세상을 뒤집어엎어놓았다.

2. 주님의 인사(10),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말 샬롬, 지금도 사용하는 말

그들을 꾸짖는 대신 화평의 인사를 전한다.

십자가 사역은 화평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화평의 복음이다(롬10:15).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려하는데 하나님은 호팔이 지내자고 하신다.

3. 그들에게 상처를 보여 주시면서 확신을 주신다(20). 나는 진짜 메시아다. 유령이 아니다.

주님의 상처는 단지 그분을 확인시켜 주는 표적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값이 전액 지불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샬롬 하신다.

4. 그들이 반가워하는 때에 그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다시 하시고 위임의 말씀을 주신다(21).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가야하는 사람, 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으므로

고후518-19

세상 끝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가라(마28:18-20). 다만 순서가 있다(행1:8).

5.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신다.

창2:7을 기억하라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숨(영)이 들어가야 흙덩어리가 제 구실을 한다.

처음 숨, 물리적인 생명, 예수님의 숨, 영적인 생명

6. 그들에게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주신다(23).

23절은 천주교에서 대단히 크게 오용하는 말씀

그들의 주장: 하나님이 몇몇 사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들의 대표가 베드로이고 그가 초대 교황이다. 그에게 왕국의 열쇠들을 주셨다(마16:19).

그래서 교황권이 계승되는 천주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사제 제도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천주교에는 고백성사 등 다른 데는 없는 것들이 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죄를 용서하는 권능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용서, 사면, 사한다 다 같은 말, 사람은 그런 권능이 없다.

23절의 의미: 제자들 혹은 성도들이 실제로 용서나 사면을 준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로 인해 죄들의 용서 혹은 사면 메시지를 전한다.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죄들을 사면한다는 말이다.

고후2:10,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니라.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죄들의 용서 메시지를 전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죄들을 용서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두 가지 반응:

1.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그들의 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사면됨

2. 거부하면 그들의 죄들이 그대로 남아 있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런 직무를 수행할 뿐이다.

7. 드디어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용기를 갖게 되었다. 사명도 받게 되었다. 죄들의 용서를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의심하던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24-28)

무슨 이유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음, 불안, 의심, 두려움, 낙심 등 복합 요인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본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다(요11:16).

그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자들의 말을 들은 뒤 그의 반응(25).

그는 의심의 사람, 불신의 사람은 아니다.

주님의 책망도 의심에 대한 것이지 불신에 대한 것이 아니다(27).

의심: 우리는 믿으려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신: 이런 증거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으려 합니다.

드디어 1주일 뒤 주님이 다시 나타나심(26), 이때에는 도마도 함께함

다시 한 번 평안의 말씀(26)

우리 주님은 이미 도마의 말을 들으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신다(27).

도마의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나쁜 과정, 여기에 쐐기를 박으심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요11장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 그리고도 여전히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한다.
이것은 불신의 마음이 요구하는 것(히3:12)
이제 도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도마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저 그분을 보고는 엄청난 고백을 한다(28).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그는 예수님에 대해 고백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백을 하였다.
나의 주, 나의 주인,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자
우리 주님은 낙담해서 의심하고 두려움에 찬 자들에게 관심을 표명하시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병, 직장, 가정 등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예수님께 아뢰기 바란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후5:7).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신가?

요한복음의 목적(29-30)

많은 사람들의 질문: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니 우리보다 믿기가 쉬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다.
이런 질문을 예방하기 위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
요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그분을 볼 필요는 없다(29).
초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부활을 보았다. 축복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본 것으로 인해 구원받지 않았다. 그들은 그분을 믿은 것으로 인해 구원받았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 믿는 것, believe, 적어도 100번 이상 나온다. 요3:16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요한이 기록한 표적들을 볼 수 없다.
다만 그 기록만 볼 뿐이다. ? 그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롬10:17,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다. 예수님을 마주 대한다. 그분이 사신 방법, 하신 말씀, 이루신 기적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결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세상의 구원자
요한이 기록한 표적들은 그분의 신성을 보여 주는 증거, 이것들 중요하다.
그러나 죄인들은 이런 표적들을 믿어서 구원받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 그분의 표적들을 믿고 그분을 따랐다.
그런데 나중에는 거의 다가 그분을 버리고 떠났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음
어떤 것이 정상적인 믿음인가?
기적에 대한 믿음이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으로 가야 된다.
기적들은 사람이 믿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바르게 되려면 말씀을 믿는 단계로 사람을 인도해야 한다.
계속해서 기적만 따라다니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적을 필요가 없었다. 사실 적을 수도 없다(21:25).
사실 이런 완전한 기록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도움이 안 된다.
요한복음과 다른 세 복음서 기록만으로도 충분하다.
죄인은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
그래서 29절의 말씀이 나온다.
요한은 이 모든 것을 30-3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핵심: 이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다.
그 결과 그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어야 한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전기가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 주는 기록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분의 표적들이 아니다. 그분의 이름(속성, 인격, 권능)

결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100% 모두 변화되었다.
두려움에서 용기
의심에서 확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함, 구원받음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삶에 변화가 생겨야 한다.
생각에 변화가 생겨야 한다.
이전 행실을 버리고 과감하게 성령님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구원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1. 주일과 안식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첫 날(20:1, 19), 일요일 아침
창세기 하나님의 6일 창조, 일곱째 날 안식하심, 안식일, 하나님의 6일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며 쉬는 날, 주일, 구속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말, 새로운 창조물이 될 것을 기념하는 날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표적으로 주심(출20:8-11; 느9:14).
그들은 육신적으로 안식하였다. 예배나 특별 행사로 모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기과느 바리새인들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백성을 괴롭게 하였다.
예수님이 하신 일: 안식일 준중하되 안식일 규정은 없애심
부활하신 날 예수님은 적어도 5차례 몇 사람에게 나타나셨다.
막달라 마리아(요20:11-18), 다른 여인들(마28:9-10), 베드로(고전15:5, 눅24;34),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사람(눅24:13-32),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요20:19-25). 한 주 지나서 다시 주일에 모임, 이때에는 도마도 있었다(요20:26-31).
제자들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주의 첫 날에 모이기 시작하였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주일(계1;10).
행20:7, 고전16:1-2 등을 보면 초기 교회들은 주의 철 날 저녁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안식일 준수는 사라짐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뀐 것은 교회나 공회의 결정이 아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과 믿음에 의해 자연스레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은 안식일 강제 규정을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에 부과하신 적이 없다.
교회에서 지키라고 하신 적도 없다. 십계명의 9가지 명령, 서신서에서 그대로 반복됨
그러나 안식을 준수는 예외, 안식일 정신을 지키지만 일곱째 날 준수는 없다.

요한복음 44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

요21:1-25

지난 1년 이상 요한복음 강해, 오늘 49회, 마지막 강해

지난 두 주, 예수님의 부활, 마리아, 도마 등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 공통점: 그들의 삶이 변하였다.

오늘은 〈 〉, 예수님을 만난 뒤 삶이 변하여 그분을 섬기는 자들을 살펴보려 한다.

21장의 배경

우리가 글을 쓴다면 아마 20장에서 요한복음을 마쳤을 것이다.

도마의 위대한 고백(20:28), 요한의 기록 목적(31)

그런데 기록자 요한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25절을 더 써서 21장으로 마무리한다.

이유: 자기 친구 베드로에 대한 추가 설명 필요함

사도행전, 베드로와 요한의 엄청난 변화, 파워, 섬김, 특히 베드로, 성도들은 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요한은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묘사해서 그렇게 된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줌

그는 또한 자기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남을 것이라는 잘못된 소문을 정정하려 하였다.

여기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사명을 바로 알자.

성도들은 어부이다(1-8)

십자가 수난 전 주님의 당부, 너희는 갈릴리에서 나를 만날 것이다(마27:7). 디베랴 바다(1)

이들은 다 거기로 갔다(1).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가기로 결심함(3), 이유는 모름

아마도 성급한 성질, 가만히 있지를 못함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6명이 함께 갔다(2).

아마도 제자 12명 중 7명이 어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부들을 많이 부르셨을까?

1. 용감하다. 2. 자기 일에 헌신적이다. 3. 진짜 어부들은 직업을 그만 두지 않는다. 4. 명령대로 한다. 5. 함께 일한다.

여하튼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실패하였다.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함(3)

아마도 베드로는 3년 전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했을 것이다(눅5:1-11).

그때에는 주님이 성공하게 해 주셨다.

이때에 주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다(4). “먹을 것을 좀 잡았느냐?”(5), “No”

이제부터 주님이 대화를 이끌어가신다.

그물을 던질 곳을 알려주시니(6) 제자들이 순종하고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았다(11).

153 숫자에 의미 없음

성공과 실패는 예수님의 개입 여부에 달려 있다.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가?

교회에서도 목회 사역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없을 때가 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는지 목사와 성도들이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요한이 가장 먼저 알아챈다(7). 주의 만찬 시 그분의 품, 십자가 처형장

그분에 대한 사랑이 컸기에 그는 가장 먼저 주님을 알아본다.

그러자 성급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님께로 간다(7).

눅5장에서 그는 주님보고 자기를 떠나달라고 부탁한다.

눅5, 요21장의 물고기 사건, 사람들을 낚는 어부에 대한 이야기(마4:19)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로 사람들을 낚는다.

만사형통, 만수무강 등의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로...

어부는 산 고기를 잡아 죽게 만든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잡아서 산 사람이 되게 한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시켜 사람들을 낚게 하려고 7명이나 되는 어부들을 택하셨다. 우연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 사람들을 낚는 것이다. 죄와 범법들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한다.

이것이 현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 마28:19-20

성도들은 목자이다(9-18)

주님은 바닷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들을 맞이하셨다(9).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에게 여러 일들이 생각났을 것이다.

눅5장의 고기 잡던 일, 벳새다 근방에서 오병 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던 일(요6)

공생애 끝 부분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에 대해 고백하는 일(마16:18).

거기에는 숯불이 있었다(21:9). 베드로에게는 숯불 트라우마가 있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이 심문 받을 때 숯불을 쬐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요18:18)

날이 추우므로 종들과 직무 수행자들이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몸을 녹이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몸을 녹이더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공황장애 혹은 공황발작

과거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어려운 일, 가난했던 일, 죄를 짓던 일, 누구나 다 있다.

그런데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기고 앞을 향해 전진한다는 것(빌3:13-14).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뒤 이미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만나셨다(눅24:34; 고전15:5). 죄들의 고백, 용서 등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공적으로 주님을 부인하였기에 공적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일이 필요하였다.

성경에서 죄를 다루는 방법

은밀하게 지은 죄, 본인이 은밀하게 고백하면 된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지은 죄는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다윗의 경우를 보라. 공개적인 죄, 공개적인 수치(압살롬까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 권징(마18, 고전5)

베드로의 공개적인 시인과 고백이 필요함

예수님은 그에게 세 번에 걸쳐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21:5. 6, 7)

그리고는 그의 회복을 위해 세 번에 걸쳐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다.

15, 다른 성경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 요한은 오역이다. 마16:17 바요나 시몬아, 바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2.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Lovest thou me more than these?

these는 이것들, 이 사람들 둘 다 된다.

2가지 의미,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나 문맥은 이런 해석을 지지하지 않는다.

1. 그는 항상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2.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와 그들을 비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항상 복종하지는 않았지만 다 그분을 사랑하였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그가 추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KJB에는 이것들보다로 되어 있다. 베드로의 대답 역시 이런 번역 지지

목사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이 안에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웬만큼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아마도 학자/목사들이 이 구절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을 한두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어에서 '아가페'(agape)라는 단어가 '깊고 은밀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필레오'(phileo)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친구 사이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뒤 우리의 설교자는 영어 단어(혹은 한국어 단어)의 제한된 표현에 대해 거의 눈물을 자아낼 정도로 한탄을 하며 자기의 주장을 폅니다. 다시

말해 영어로는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agape, 즉 깊고 은밀하며 자기를 돌보지 않는 희생의 사랑)로 사랑하느냐?"

이에 대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phileo, 즉 일상적인 친구 간의 사랑)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뒤 원어 성경 추종자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던 대답을 듣지 못하셨기에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셨다고 말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런 깊은 관계에 자신을 맡기기 꺼렸기 때문에 다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 이쯤에서 우리의 성경 교정자는 큰 슬픔에 잠기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헌신이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아가페'대신 '필레오'라는 그리스어 단어로 질문을 바꾸셨다고 말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러자 이같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 자신이 주님께 영적으로 성실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설교자는 자신 있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슬픔에 잠긴 베드로가 마침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거짓 교사는 의미가 빈약한 영어나 한국어를 사용해서는 이 구절의 깊은 뜻을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다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저 신뢰할 만한 '그리스어'는 영어나 한국어가 전달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참으로 위의 예는 '원어 찬양'을 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의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점이란 다름이 아니라 '아가페'와 '필레오'에 대한 위의 정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아가페'와 '필레오'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성경 기자들은 이 두 단어를 늘 바꾸어가며 사용했습니다. 그리스어 문법책이나 그리스어 교사들 그리고 그리스어 설교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속한 신학 대학의 교수나 혹은 목사가 '아가페'와 '필레오'에 대해 잘못 가르쳐서 이 같은 속임수에 빠지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즉시 여러분의 선입견을 품고 저의 주장을 반박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경건하고 지식이 많은 교수들이 틀릴 수 있겠는가?"

저는 이 사실을 입증하려고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가 대조를 위해 택할 수 있었던 신약성경의 다른 기자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결코 그들만이 저를 지지하는 최후의 증인들은 아닙니다. 최종적이고도 가장 확실하게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독자 여러분입니다.

결론: 고린도전서 13장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약성경에서 아가페와 필레오는 큰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참조〉 질문 47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요3:16 아가페, 16:27 필레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요3:35 아기페, 요5:20 필레오

성도들끼리의 사랑, 13:34 아가페, 요15:19 필레오

이 대화는 주님과 베드도 사이의 대화

그러나 베드로 뒤에서 다른 제자들도 들으면서 동일하게 그 질문에 대답하였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도 오늘 요21장을 읽으며 예수님의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야 한다.

네가 이것들보다(네가 추구하는 모든 것)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양들을 먹여야 한다.

1. 목사 등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당연히 주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양 떼를 먹여야 한다.

베드로의 교훈(벧전5:2)

악한 이리들의 침략을 막아내야 한다(행20:28-35).

내가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이유 중 하나: 적들의 공격의 핵심, 성경 공격

요즘 어떤 목사의 황당한 주장: 눅17:36, 행8:37, 행15:34절은 다수 사본, 소수 사본에 모두 없음 구절이라고 한다. 사본에 없는데도 킹제임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는 것은 후대에 사람들이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이것은 신성모독 발언, 이제 성경 교정 작업 끝났으므로 무식한 자들의 공격에 대해 답을 하려고 한다. "사본에 없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 한 자도 없다."

20세기 최고의 사본 학자 장로 교인 에드워드 힐즈, 킹제임스 성경 변호,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2. 목사가 아닌 성도들은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교회에 온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 넘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특히 새로 온 사람들, 아직 잘 모른다. 좋은 꼴을 먹이지 않고 넘어뜨리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좋은 언행으로 다른 지체들을 세워야 한다.

3. 즉 그리스도인은 어부의 역할을 하고 동시에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베드로의 죽음(19-25)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삶과 사역, 이제는 그의 죽음

예수님이 직접 공개적으로 자기의 죽음에 대해 말하니 그는 놀랐을 것이다.

마16:21,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죽음 언급, 베드로는 그분을 책망함

동산에서 그분을 지키려고 칼을 휘두름,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고는 그분을 부인하고 도망함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그래서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다(18).

그는 십자가의 죽음(19). 주님의 명령: 너는 나를 따르라. 십자가까지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림, 전승: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한다.

베드로의 반응: 뒤에서 요한이 오는 것을 보았다(20).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21)

너는 나를 따르라(22). 믿음 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라.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노나요?" 등, 우리는 우리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 다른 사람에 대한 계획

제자들의 오해(23)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요한은 머물렀는가? 그렇다. AD 90년경 그가 밧모 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요한 계시록을 주셨다. 그는 거의 90세를 살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다.

요한복음에 대한 확신(24-25)

결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긴다.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양들을 먹이는 어부가 된다.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요한복음의 목적(20:31), 영존하는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에는 세 번의 초대 메시지가 있다.

와서 보라(1:39), 와서 마시라(7:37), 와서 먹으라(21:12)

계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